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I)

— 總 括 編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1979년 처음으로 『韓國의 社會指標』를 발간한 지 15년이 경과되었다. 社會指標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狀態를 總體的이고도 集約的으로 나타냄으로써 國民生活의 전반적인 수준을 把握할 수 있는 尺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社會指標體系이다. 1978년 成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1차 개편한 바 있으나 급격한 제반 經濟·社會的 環境의 變化를 기존의 社會指標에서 반영하는 데에는 未洽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生活 모습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표체계를 새로이 改編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5년여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地方化, 世界化, 情報化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本 研究院은 본 연구의 위촉기관인 統計廳의 요청에 따라 현재의 指標體系를 전면적으로 再檢討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社會指標體系를 개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13개 部門別 研究責任者를 비롯한 약 40여명의 院內外 專門家가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本 研究院內에 社會指標 體系改編을 위한 專擔研究班을 常設機構로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다. 또한, 斯界의 權威者 6명으로 諮問委員會를 구성하여 연구의 基本方向 設定, 13개 부문간 指標內容의 調整, 中間 및 最終 研究結果의 檢討 등 사업 전반에 걸친 諮問 및 調整 業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社會指標 體系改編案은 諮問委員, 分野別 專門家, 政府 關係官과의 여러 차례

에 걸친 政策懇談會와 政策協議會를 통해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社會指標 體系改編을 위한 이러한 努力의 産物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第1卷과 第2卷으로 구분되어 있다. 第1卷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總括하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政府, 學界, 一般人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第1章에는 사회지표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2章에서는 사회지표의 歷史와 國際的 動向, 第3章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改編方向을 검토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사회지표체계의 改編內容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新 社會指標體系案을, 그리고 第6章에는 用語解説 및 算式 등이 수록되어 있다. 第2卷에는 각 部門別 指標體系 改編 內容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社會指標體系가 실제 社會指標의 作成에 있어서 중요한 基礎資料가 될뿐 아니라 韓國의 經濟社會變化를 잘 반영하고 國民의 “삶의 質”을 나타낼 수 있는 尺度로서 有用하게 活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政策擔當官, 關聯學界專門家, 그리고 社會指標 利用者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研究陣은 그동안 본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통계청의 李康雨 廳長, 趙彙甲 局長, 姜啓斗 課長에게 感謝하며, 본 연구의 각 단계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朱鶴中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 權泰煥 서울대 교수, 金秀坤 경희대 대학원장, 成圭鐸 연세대 교수, 韓達鮮 한림대 부총장 등 諮問委員들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延 河 清

目 次

〈第1卷：總括編〉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改編研究 要約	15
第1章 社會指標에 관한 理論的 考察	33
第1節 社會指標의 定義	33
第2節 社會指標의 機能	36
第3節 客觀的 社會指標와 主觀的 社會指標	39
第4節 社會指標의 分類	43
第5節 社會指標의 諸條件	45
第6節 社會指標의 一般的 特性	46
第2章 社會指標의 歷史와 國際的 動向	48
第1節 社會指標研究의 歷史	48
第2節 社會指標體系의 國際的 動向	49
1. 國際機關의 指標體系	50
2. 外國의 社會指標	56
第3章 韓國의 社會指標와 改編方向	66
第1節 韓國의 社會指標運動	66
第2節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69
第3節 社會指標體系改編의 基本方向	74
1. 國民의 關心度에 副應하는 指標體系의 開發	75
2. 地方自治時代에 對備한 地域指標의 開發	75

3. 世界化에 대비한 指標體系의 開發	76
4. 情報化時代에 對備한 指標體系의 開發	76
第4節 研究方法	76
第4章 社會指標體系의 改編內容	78
第1節 新 社會指標體系의 改編概要	78
第2節 新 社會指標體系의 特性	78
1. 理論的이고 均衡的인 指標體系	78
2. 可用統計資料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指標體系	86
3. 個別指標 選定과 統計的 定義, 算式, 用語解說의 補完	88
4. 主觀的 指標의 大幅的인 擴大	88
5. 特定 集團別 (女性·老人·靑少年·障礙人) 指標體系를 別途로 提示	89
6. 國際比較指標 (南北韓 比較指標 包含)의 擴充	90
7. 社會指標體系와 分野別 指標體系와의 連繫性 提高	91
8. 地域社會指標의 標準體系로서의 機能	92
第3節 部門別 改編方向과 改編內容	93
第5章 社會指標體系 改編案	111
A. 新 社會指標體系에 따른 個別指標	112
B. 生産可能的인 個別指標	156
C. 將來開發指標	180
D. 主觀的 指標	183
E. 特定集團別 指標體系	187
F. 國際比較	198
第6章 用語解說 및 算式	201
參考文獻	351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에 參與하신분	360

〈第2卷: 解説編〉

第1章 人口	17
第1節 序論	17
1. 人口指標體系의 改編과 새로운 指標開發의 필요성	17
2. 改編의 方向 및 內容	18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20
1. 國外研究의 檢討	20
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의 檢討	26
3.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33
第3節 新 指標體系	34
1. 關心領域의 設定	34
2. 個別指標의 選定	36
3. 新 社會指標體系(人口部門)의 構成	43
第4節 結 論	46
第2章 家族	50
第1節 序論	50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52
1. 既存體系의 檢討	52
2. 新 指標體系의 方向 設定	54
第3節 新 指標體系	55
1. 關心領域의 設定	55
2. 個別指標의 選定	61
第4節 要約 및 結論	69
第3章 所得과 消費	74
第1節 序 論	74

第2節 既存指標體系的 評價와 新指標體系的 方向設定	75
1. 國外研究의 檢討	75
2. 國內研究의 檢討	79
第3節 新 指標體系	80
1. 關心領域의 設定	80
2. 個別指標의 選定	81
3. 新 社會指標體系(所得과 消費部門)의 構成	89
第4節 結論	89
第 4 章 勞動	95
第1節 序論	95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的 方向設定	96
1. 國外指標의 檢討	97
2. 國際指標와 韓國의 社會指標의 比較分析	105
第3節 新 指標體系	112
1. 關心領域의 設定	113
2. 個別指標의 選定	114
3. 新 指標體系	121
第 5 章 教育	127
第1節 序論	127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的 方向設定	128
1. 國外 研究의 檢討	128
2. 國內 指標 體系의 檢討	130
第3節 新 指標體系	132
1. 關心領域의 設定	132
2. 個別指標의 選定	135

第4節 結 論	142
1. 研究結果와 含意	142
2. 向後의 課題	144
第6章 保健	146
第1節 序論	146
1. 研究意義와 必要性	146
2. 改編의 方向	147
第2節 既存 指標의 內容分析	148
1. 國外研究의 檢討	148
2. 國內研究의 檢討	155
第3節 新 指標體系	158
1. 關心領域의 設定	158
2. 個別指標의 選定	159
第4節 結論	167
第7章 住居와 交通	170
第1節 序論	170
第2節 새로운 「住居와 交通部門」社會指標體系의 摸索	174
1. 國外 研究의 檢討	174
2. 國內 研究의 檢討	178
3.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179
第3節 新 指標體系	180
1. 關心領域의 設定	180
2. 個別指標의 選定	182
3. 既存體系와 新 體系의 比較	194
第4節 要約 및 結論	198

第8章 情報와 通信	203
第1節 序論	203
1. 問題의 提起	203
2. 중요한 社會的 變化	204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208
1. 國外研究의 檢討	209
2. 國內研究의 檢討	209
第3節 新 指標 體系	222
1. 關心領域의 設定	222
2. 個別指標의 選定	222
第4節 結論	225
第9章 環境	230
第1節 序論	230
第2節 新 指標體系의 構成의 理論的 背景	232
第3節 新 指標體系	241
1. 녹색GNP	242
2. 環境壓力指標	242
3. 環境影響指標	244
4. 環境管理指標	246
5. 앞으로 開發되어야 할 環境關聯指標	247
第4節 要約 및 結論	250
第10章 福祉	254
第1節 序論	254
第2節 既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255
1. 福祉需要의 展望과 福祉指標	255
2. 既存 指標의 評價	257

3. 國外研究의 檢討	261
第3節 新 指標體系	267
1. 關心領域의 設定	267
2. 新 指標體系	268
第4節 要約 및 結論	280
第11章 文化와 餘暇	283
第1節 序論	283
1. 研究意義와 必要性	283
2. 文化環境의 變化와 指標 改善	284
3. 社會指標의 政策指標化	286
第2節 既存 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287
1. 國外 研究의 檢討	287
2. 國內研究의 檢討	291
第3節 新 指標體系	293
1.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293
2. 關心領域의 設定	293
3. 個別指標의 設定	295
4. 新 社會指標體系	306
第4節 結論	308
第12章 安全	310
第1節 序論	310
1. 研究의 意義와 必要性	310
第2節 既存 指標體系의 檢討와 改善方向	311
1. 國外研究의 檢討	311
2. 國內研究의 檢討	322
3. 既存指標體系의 改善方向	325

第3節 『安全』部門 指標體系	327
1. 安全部門의 關心領域 設定	327
2. 個別指標의 選定	332
第4節 結論	344
1. 安全部門 指標體系의 含意	344
2. 研究의 限界	345
3. 向後의 研究課題	346
第13章 政府와 社會參與	349
第1節 序論	349
第2節 既存地表의 內容分析 및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350
1. 國外研究의 檢討	350
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檢討	352
3. 新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353
第3節 新 指標體系	353
1. 關心領域의 設定	353
2. 個別指標의 選定	357
第4節 結 論	362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에 參與하신분	364

表 目 次

〈表 1-1-1〉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을 分類하는 틀	43
〈表 1-2-1〉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의 生活水準指標體系	51
〈表 1-2-2〉 UN의 社會·人口統計體系	53
〈表 1-2-3〉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54
〈表 1-2-4〉 國際機關에서 提示한 社會指標體系의 比較	55
〈表 1-2-5〉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57
〈表 1-2-6〉 日本의 社會生活統計指標 (1995)	59
〈表 1-2-7〉 日本의 國民生活指標(NSI)의 指標體系(拔萃)	61
〈表 1-2-8〉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 (PLI)의 構成	62
〈表 1-2-9〉 日本의 社會指標 體系와 관련 社會統計調查	63
〈表 1-2-10〉 英國의 社會指標體系	64
〈表 1-3-1〉 1987년 案에 의한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70
〈表 1-4-1〉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의 部門 比較	79
〈表 1-4-2〉 1995년도 改編案에 의한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80
〈表 1-4-3〉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의 部門比較	85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 要約

I. 研究推進 經緯 및 過程

본 연구의 추진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 1995. 4: • 統計廳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연구 의뢰
- ② 1995. 5: • 諮問委員會 및 研究陣 構成
• 社會指標 體系改編을 위한 제1차 政策協議會 개최
• 社會指標體系 試案 提出
- ③ 1995. 8: • 社會指標 體系改編을 위한 제2차 政策協議會 개최
• 社會指標體系 中間報告書 提出
- ④ 1995. 11: • 社會指標 體系改編을 위한 제3차 政策協議會 개최
• 社會指標體系 最終報告書 草案 提出
- ⑤ 1995. 12: • 韓國의 社會指標體系改編 最終報告書 提出

II.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의 必要性

1. 우리나라 社會指標의 發展概況

- 社會指標란 歷史的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態를 總體的이고도 集約的으로 나타내어 生活의 量的인 측면은

물론 質的인 측면까지도 測定함으로써 國民生活의 전반적인 福祉程度를 파악가능하게 하여 주는 尺度임.

- 社會指標은 한 社會의 주요 局面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判斷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規範指向의 관심의 성격을 가진 統計라고 할 수 있음.
 - 國民生活의 水準測定, 社會狀態의 綜合的인 測定, 社會變化의 豫測, 社會開發政策의 成果測定 등의 機能이 있음.
- UN에서 1972年 社會統計 體系化에 대한 勸告案을 마련함에 따라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現 統計廳)에서는 UNFPA의 지원하에 韓國開發研究院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社會指標體系를 작성하였음.
 - 1978年 8個 部門(人口, 所得消費, 雇傭勞使, 敎育, 保健, 住宅環境, 社會, 公安) 350個 指標을 선정함.
- 이를 토대로 1979年 128個 指標을 작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社會指標을 公表한 후, 1980年 151個에서 1987年 224個 指標로 擴大하였음.
- 1987年에는 급변하는 社會變化에 부합하는 새로운 社會指標體系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社會指標體系를 改善하였음.
 - 8個 部門에서 9個 部門으로 확대하고(文化餘暇部門 追加), 총 468個의 指標가 포함된 改善案이 마련되었음.
- 이를 토대로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가 매년 작성 공표되어 오고 있으며, 1988年 243個 指標에서 1994年 291個 指標로 확대되었음. 이와 같은 社會指標은 各界各層에서 널리 活用되고 있음.

2. 社會指標體系 改編의 必要性

- 1978년에 成案된 우리나라 社會指標體系는 1987년에 일차 改編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음.
 - 특히 1995年 3月 23日 金泳三 大統領은 「삶의 質」의 世界化를 실현하기 위한 社會福祉 基本原則과 政策方向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社會經濟的 與件變化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發展方向을 제시하기 위하여 現행 指標體系는 改編되어야 함. 구체적인 改編 必要性은 다음과 같음.

① 國民의 關心度에 부응하는 指標體系의 開發

- 경제적인 生活水準의 향상과 經濟社會構造의 多樣化 및 高度化에 따라 國民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轉換되고 있음.
 - 지난날의 物質的이고 量的 增加 위주의 사회적 관심에서 이제 전반적인 福祉水準의 向上뿐만 아니라, 個人生活, 家庭生活, 精神文化, 交通·通信, 環境, 社會的 安全 등 삶의 質的 向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사회적 關心이 바뀌고 있음.
- 이와 같이 國民의 다양한 關心의 變化를 반영하고, 삶의 質的 側面을 포함하는 未來指向的 指標體系의 개발이 요구됨.

② 地方自治時代に 대비한 地域指標의 開發

-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향후 廣域自治團體는 물론 基礎自治團體인 區, 市, 郡 單位에서 地域別 社會指標의 必要性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 등 일부 市·道에서 부분적으로 地域社會指標가 생산되고 있으나 指標數의 規模, 作成方法 등에 있어서 補完이 必要함.
- 따라서 社會指標體系改編을 통해 地域社會指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標準指標의 開發이 요구됨.

③ 世界化·情報化 時代に 대비한 指標體系의 開發

- 우리나라는 새로운 國際秩序를 형성하는 급속한 國際環境變化에 직면하고 있음.
 - 1994年 多者間 貿易協商(UR)의 妥結, 1995年 WTO體制의 出帆, 1996年 OECD 加入 등 國際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對應할 수 있는 社會指標體系가 요구되고 있음.
- PC의 大衆化, CATV와 같은 情報媒體의 多樣化와 高速情報網의 構築으로 情報化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在宅勤務, 遠隔會議 및 診療 등 國民의 生活樣式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情報化 社會의 變動現況을 時系列的으로 파악하고, 情報化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指標開發이 필요함.

Ⅲ. 社會指標體系改編의 基本方向 및 內容

1. 基本方向

地方化, 世界化, 情報化 時代에 對備하고 「삶의 質」의 向上을 위한 國民의 福祉欲求에 副應하는 새로운 社會指標體系를 開發함.

- 21世紀를 향한 國民의 關心度에 부응할 수 있도록 社會指標體系의 部門數를 확대하고, 指標의 理論的 基盤을 確固히 하며 각종 特定分野別 指標體系와의 連繫性을 제고함.
- 地方化 時代에 다른 地域別 社會指標의 準據가 될 수 있는 標準的인 社會指標體系를 開發함.
- 世界化 政策推進에 有用하고 情報化 社會에 對備하는 指標體系를 開發함.

2. 新 社會指標體系 改編의 概要

- 既存指標體系는 9個 部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改編體系는 13個 部門으로 擴大되었음.

- 이것은 脆弱部門을 보완하고 아울러 한국 사회·경제의 發展趨勢와 發展方向을 반영할 수 있는 관심영역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 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음.

- 情報와 通信, 家族, 福祉, 政府와 社會參與 등의 部門을 新設하고, 環境部門은 분리하였음.

〈表1〉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의 部門 比較

1978년 체계	현재의 체계 (1차개편)	개편 체계 (2차개편)
<8개부문>	<9개부문>	<13개 부문>
1. 인구	1. 인구	1. 인구 2. 가족(신설)
2. 소득·소비	2. 소득·소비	3. 소득과 소비
3. 고용·노사	3. 고용·노사	4. 노동
4. 교육	4. 교육	5. 교육
5. 보건	5. 보건	6. 보건
6. 주택·환경	6. 주택·환경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신설) 9. 환경(분리)
7. 사회	7. 사회	10. 복지(신설)
	8. 문화·여가(신설)	11. 문화와 여가
8. 공안	9. 공안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신설)

- 각 부문별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을 調整·補完하였음.
 - 관심영역은 총 41개에서 59개로, 세부관심영역은 126개에서 150개로 확대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個別指標數는 총 526개(총 553개에서 부문

별로 중복제시된 27개를 뺀 것임)로 既存案의 473개에 비하여 약 11.2% 증가하였음.

- 총 526개의 개별지표 중 신규지표는 217개로(신규지표 226개 중 9개는 중복됨) 총 개별지표의 41%에 달하고 있음. 이는 기존체계에서 더이상 時宜 適切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는 대신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설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지표를 대폭 첨가하였기 때문임.

〈表 2〉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 比較

A. 既存指標體系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 인구	4	17	46 (5)
2. 소득·소비	5	10	30 (5)
3. 고용·노사	7	19	108(16)
4. 교육	4	12	64(15)
5. 보건	4	19	48 (5)
6. 주택·환경	3	9	54 (9)
7. 사회	6	16	41 (9)
8. 문화·여가	2	9	31 (6)
9. 공안	6	15	51 (7)
합 계	41	126	473(77)

B. 新 指標體系

부문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신규지표	장래개발 지표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1. 인구	6	14	44 (5)	9	5	39
2. 가족	5	16	43 (13)	18	1	42
3. 소득과 소비	5	12	41 (4)	14	2	39
4. 노동	5	13	62 (5)	15	22	40
5. 교육	3	7	43 (10)	6	6	37
6. 보건	7	21	50 (4)	20	14	36
7. 주거와 교통	4	10	51 (7)	15	7	44
8. 정보와 통신	5	8	28 (3)	24	7	21
9. 환경	4	7	31 (2)	22	5	26
10. 복지	4	11	43 (5)	31	7	36
11. 문화와 여가	3	8	34 (8)	10	2	32
12. 안전	5	14	55 (13)	25	4	51
13. 정부와 사회참여	3	9	28 (12)	17	0	28
합 계	59	150	553(91)	226	82	471

註: ()는 주관적 지표, 총 개별지표 553개 중 27개는 중복되어 제시되었음.

3. 新社會指標體系의 特徵

① 可用統計資料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指標體系

- 既存 統計資料가 과거에 비해서는 커다란 改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며 信憑性이 낮기 때문에, 社會指標體系에 統計的 實體를 갖추는 것이 이론적인 체계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임.
- 현실적으로 可用資料의 不足은 短時間內에 解決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第1卷 第5章 B와 C에 정리된 것과

같이 可用統計資料中心으로 작성된 지표체계와 비록 현재에는 자료생산이 불가능하지만 將來에 開發해야 할 指標(信賴도가 떨어지는 指標 포함)를 별도의 지표체계로서 보고하고 있음.

- 총 553개의 個別指標 중 重複 제시된 27개를 제외한 526개의 個別指標 중 단시간내에 믿을 만한 자료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는 個別指標는 445개(84.6%)이며, 15.4%인 81개는 將來開發指標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將來開發指標는 資料의 制約에도 불구하고 國民의 關心內容을 向後 擴張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② 主觀的 指標의 大幅的인 擴大

- 현재의 社會指標體系에 설정되어 있는 指標 중에서 國民의 價値觀과 意識, 心理的 評價를 파악하는 主觀的 指標의 妥當性을 검토한 후 作成方法을 조정·보완하여 指標의 活用度를 提高함.
- 새로운 指標體系에서는 價値觀, 滿足度, 意識 등 主觀的·心理的 指標를 가능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음. 개발된 주관적 지표는 총 89개(91개중 2개 중복)로, 총개별지표수의 약 17%임(第1卷 第5章 D 참조).

③ 特定集團別(女性·老人·靑少年·障礙人) 指標體系를 별도로 제시

-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는 個人은 물론 개인이 속해 있는 集團, 나아가서 社會全體의 삶의 質을 총체적이며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尺度로서 國民의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제시해 주고 있음.
- 여성·노인·靑少年·장애인과 같은 下部集團의 삶의 질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표체계를 필요로 함.

- 이것은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가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의 삶의 질을 독립적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각 部門에 分離되어 提示되고 있기 때문에 女性·老人·靑少年·障礙人 集團에 관한 지표를 필요로 할 경우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지표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등에 관한 지표를 각 부문에서 추출하여 再整理하였음(第1卷 第5章 E 참조).
- 이처럼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집단을 위하여 別途의 指標體系를 제시함으로써 각 집단의 問題와 狀態를 나타내는 社會報告의 機能을 통해 政策立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집단별 삶의 질을 보다 容易하게 측정할 수가 있음.

④ 國際比較指標(南北韓 比較指標 包含)의 擴充

- 國際比較指標體系에서는 우선적으로 國際比較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北韓 關聯 指標도 이곳에 수록함으로써 南北韓 사이의 人口, 家族, 經濟, 保健, 福祉水準 등의 比較도 본 國際比較體系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음(第1卷 第5章 F 참조).

⑤ 社會指標體系와 分野別 指標體系와의 連繫性 提高

-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分野別 指標體系 開發은 該當分野의 專門家가 主對象이기 때문에 너무 專門的이고 深層的인 傾向으로 흐르기 쉬운 반면 우리사회의 全般的인 發展程度를 나타내는 데에는 미흡함.

- 政府機關이나 研究機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작성하고 있는 분야별 지표체계와 『韓國의 社會指標』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표체계를 『韓國의 사회지표』 체계와 比較·分析하여 重要하고 包括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個別指標은 사회지표체계에 포함하였음.
- 分野別 指標體系와 韓國의 사회지표체계와의 連繫性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문별 보고서 작성시 참고한 분야별 지표체계를 本文과 參考文獻에 收錄해 놓았기 때문에, 보다 專門的이고 深層的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 경우 이를 參考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⑥ 地域社會指標의 標準體系로서의 機能

- 地方自治制의 實施에 따라 市·道 및 市·郡·區 單位의 독자적인 社會指標의 開發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단위의 自律的인 事業計劃 樹立과 評價目的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比較分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 타지역과의 比較를 위해 (1)共通되는 概念들을 사용하고, (2) 定立된 定義와 統計的 方法 및 算式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데이터가 비교가능한 대상으로 수집되어야 함.
 - 이는 比較할 수 없는 指標들을 비교할 때 잘못된 結論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地域指標의 無分別한 開發은 지표의 정의, 작성기준 등의 차이에 따른 混亂이 예상되므로 地域社會 指標體系의 개발과 작성에 『韓國의 社會指標』의 體系가 標準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⑦ 指標의 統計的 定義, 算式, 用語解説의 補完

- 각종 指標는 時宜性, 活用性, 國民의 關心度, 資料蒐集 可能性 및 時系列 維持 등을 고려하여 追加, 削除, 補完하였으며, 第1卷 第6章에 제시하였음.
- ‘韓國의 社會指標’ 작성시 業務擔當者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계수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음.

4. 部門別 改編概要 (第2卷 參照)

① 『人口』 部門

- 人口部門을 크게 靜態人口와 動態人口로 구분하여 전자에 人口의 規模와 構造에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키고, 후자에는 人口 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人口部門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음.
 - 따라서 「총인구」, 「인구구성 및 인구분포」가 정태인구의 분류에 속할 수 있는 關心領域으로 설정되었고, 人口 변화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이 동태인구에 속하는 關心領域으로 설정되었음.
-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26개에서 44개로 증대되었음. 그 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는 9개이며, 主觀的 指標는 5개임.

② 『家族』 部門

- 既存體系가 家族問題에 비중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신 체계는 家族生活의 包括的인 理解와 把握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
 - 현재의 가족지표체계에서는 家族을 社會問題의 시각에서 보는데서 탈피하기 위하여 家族의 現象과 問題를 나누었고,

客觀的인 현상의 파악과 主觀的인 규범적 관심의 분리를 시도하였음.

- 個別指標은 27개에서 43개로 대폭증가 하였으며, 그 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은 18개이며, 43개의 개별지표중 주관적 지표는 13개로 약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③ 『所得과 消費』 部門

- 指標體系를 所得-消費-貯蓄-租稅・財政-分配라는 巨視經濟的 틀에 의거하여 재구성함으로서 部門의 體系性을 증대시켰음.
- 關心領域別 均衡이 이루어지도록 취약한 영역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음. 財産은 그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조사나 자료획득이 용이하지는 않더라도 未來開發指標로서 개발하도록 하였고, 所得部分이 미흡하므로 보강하여 分配部分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부관심영역은 “지역내 총생산”과 “조세부담”을 추가하여 기존의 10개에서 12개로 증대되었고 개별지표는 30개에서 41개로 증가하였음.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4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4개임.

④ 『勞動』 部門

- 삶의 質에 대한 관심의 증대, 國際化・世界化에 부응하는 노동력 활용 및 근로의 질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指標體系改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産業構造急變으로 인한 勞動需給間 不一致解消,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職業안정・職業훈련분야의 지표개선, 고용보험실시(1995. 7)에 따른 효과지표를 추가하도록

기준안을 개선하였음.

- 既存體系를 대폭 조정하여 關心領域이 7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細部關心領域도 19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음. 따라서 『勞動』部門이 간결하면서도 체계성을 갖게 되었고 타부문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게 되었음.
- 개별지표는 총 62개로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은 15개임. 또한 62개의 個別指標중 主觀的 指標은 5개임.

⑤ 『教育』 部門

- 「교육 기회」, 「교육 자원」,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關心領域으로 설정함. 이는 교육의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가 하는 교육環境과 교육에 투자하는 人的·物的 資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투입의 양과 질, 그리고 교육 환경에 투자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效果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함임.
- 기존안의 12개의 細部關心領域은 7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個別指標은 기존의 64개에서 43개로 감소되었음.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6개이며 43개의 개별지표중 主觀的 指標은 10개임.

⑥ 『保健』 部門

- 傷病構造의 變化, 所得水準의 增大, 生活樣式 및 環境의 變化, 全國民 醫療保障의 實現, 地方自治制의 實施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변화는 특히 醫療部門의 삶의 質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 이러한 제반 변화에 상응하도록 保健指標體系를 개편하였음.

- 『保健』부문에서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심영역을 「健康狀態」, 「死亡」, 「傷病」, 「營養」, 「保健醫療利用」, 「保健醫療資源」, 「保健醫療技術」의 7개로 구분하였음.
- 新 體系에서 關心領域은 既存의 4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細部關心領域은 既存의 19개에서 2개가 증가한 21개로 되었음. 총 50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40%인 20개가 新規指標이며 4개는 主觀的 指標임.

⑦ 『住居와 交通』 部門

- 기존안의 『住宅・環境』部門을 『住居와 交通』部門과 『環境』部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 중 『環境』部門은 별도의 部門으로 신설하였음.
 - 「住居狀態」라고 하는 關心領域에는 “주택공급과 수요”, “주거비용”, “주거이동”이라는 3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고, 「주거의 질」에서는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의 3개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였음.
 - 「交通施設」은 “교통수단”과 “교통비용”이라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으며, 「교통의 질」은 “교통편의”와 “교통운행의 질”이라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을 두었음.
- 전반적인 체계의 수정에 기초하여 4개의 관심영역과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설정되었고 개별지표는 51개임. 51개의 개별지표 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5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7개임.

⑧ 『情報와 通信』 部門

- 『情報・通信』부문의 體系는 「情報化 基盤造成」, 「情報關聯 人力」, 「情報化 程度」, 「情報관련 支出」, 「情報化에 대한 認識」등의 5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 細部關心領域인 “情報化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를 설정하였음.
- 『情報・通信』부문은 5개의 關心領域과 7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별지표는 총 28개이며 신규지표가 24개로 개별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4개가 주관적 지표로 정보화에 대한 滿足度を 살펴보는 것임.

⑨ 『環境』 部門

- 종래의 環境관련 社會指標는 環境壓力指標과 環境影響指標로 구성되어 있음. 신 체계는 이 두 가지 指標를 社會의 持續可能性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였음. 또한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持續可能開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21세기 地球環境安全 綱領은 녹색GNP를 開發하고 指標化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존의 環境關聯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였음.
- 총 31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2개는 주관적 지표이다. 개별지표의 2/3인 22개의 지표가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지표임.

⑩ 『福祉』 部門

- 삶의 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福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과 아울러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의 衣食住와 健康·教育

등 基本生活에 있어서 國民 最低 水準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따라서 新指標體系에서는 『복지』부문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福祉의 側面에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指標體系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個別指標는 각 關心領域 및 細部關心領域을 반영하되 자료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이렇게 선정된 福祉部門 指標體系를 보면 關心領域 4개, 細部關心領域이 11개, 개별지표수는 총 43개임. 그 중 주관적 지표는 5개임.

⑪ 『문화와 餘暇』 部門

- 문화와 餘暇에 관한 指標가 指標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指標로서의 체계성과 함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환경의 變化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즉 國民들의 生活패턴이 크게 변화하여 개개인의 餘暇活動이 중요시되고 관광·여행, 체육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아울러 個人 可處分所得의 增加는 國民들의 文化藝術에 대한 향수욕구 증가가 맞물려 개개인이 享受 욕구를 실제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음.
- 『문화와 餘暇』 部門은 「文化藝術活動」, 「餘暇 活用」, 「文化意識」이라고 하는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세부관심영역과 34개의 個別指標를 포함하고 있음. 개선안은 時宜適切하지 못한 指標를 削除하고 문화환경의 變化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별지표가 10개 포함되어 있으며 部門의 체계성을 증대시켰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특히 主觀的 指標가 個別指標의 1/3인 8개로 增大되었음.

⑫ 『安全』部門

- 生活水準의 향상과 經濟社會構造의 多樣化 및 高度化에 따라 국민전체 및 개개인의 ‘安全’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安全』부문의 개편이 이루어 졌음.
- 集約的인 指標에 의하여 集計項目의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個別指標의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운 個別指標들을 포함시켜 개별지표수는 기존의 51개에서 55개로 증가하였음.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가 25개이며 주관적 지표의 확충이 이루어져 기존의 7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음.

⑬ 『政府와 社會參與』部門

- 新 體系는 既存體系에서 동일한 관심영역으로 다루어졌던 정치와 사회를 분리하고, 행정·재정영역을 신설하여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부」의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음.
- 新 體系는 9개의 細部關心領域, 28개의 個別指標로 구성되어 있음. 個別指標 중 12개는 主觀的 指標임. 28개의 指標의 절반이 넘는 17개가 기존안에서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新規指標임. 既存의 17개의 個別指標에 비해 지표수가 많이 增加하였으며, 아울러 他部門에 흩어져 있던 關心領域을 모아서 體系化하였음.

第1章 社會指標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社會指標의 定義

1960년대 이후부터 『社會指標運動』(social indicators movements)¹⁾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외 사회지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統一的으로 定義된 社會指標의 概念을 찾기는 어렵다. 사회지표는 指標開發의 目的이나 必要性, 社會指標에 대한 觀點과 연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²⁾. 사회지표 創始者의 한 사람인 바우어(Bauer)는 1966년에 출간된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우리 社會의 價値와 目標을 지향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統計, 統計系列 및 다른 형태의 모든 證據”라고 정의하였다³⁾. 이러한 정의는 사회지표의 社會政策的인 機能을 강조한 것으로 社會政策을 評價하고 國家目標과 그 優先順位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어와 셸돈(Moore and Sheldon)도 “사회지표는 어떤 規範的 基準에 의하여, 進步的이든 退步的이든 전체 사회적 영역의 한 局面이 현

1) Duncan(1969)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명명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관 및 정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른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지표운동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De Neufville J.I.(1975)의 *Social Indicators and Political Policy*의 제 4장을 참고로 할 것.

2) 유중해 외, 『행정학 세미나』, 서울, 고시원, 1982.

3) Bauer, R. A.,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재상태 또는 과거 및 미래의 경향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지표의 개념은 社會變動의 監視·管理(Monitoring of Social Change)라는 착상과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이는 사회지표를 사회의 構造的 變動과 관련지어서 과거와 현재의 추세 및 미래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반면에 비더만(Biderman)은 사회지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조건을 제시하는 計量的 資料로 보았다. 또한 햄버거(Hamburger)는 사회지표를 “基礎欲求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즉 삶의 質을 측정하는 尺度”라고 정의하고 있다.

學術的 定義 뿐만 아니라 사회지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내리고 있는 사회지표의 정의도 상이하다. 國際聯合은 1975년도에 발표한 『社會·人口統計體系(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SDS)』⁵⁾에서 “社會指標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정측면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서 알려주는 客觀的 觀察과 일반적인 數量的 表現에 의거한 構成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OECD에서는 1982년에 발표한 『社會指標(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⁶⁾에서 사회지표를 “여러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사실들과 그 변화를 測定·報告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多樣한 定義에도 불구하고 『社會指標運動』이 시작되었던 배경에서 사회지표가 공통적으로 指向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로, 사회상태를 測定하고 사회에서 시행되어야 할 政策의 優先順位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量的인 記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사회지표운동』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회지표는 사

-
- ✓ 4) Moore, W. E. and Sheldon, E. B.,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 ✓ 5) 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 6)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회의 제측면에 대한 記述(description)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둘째로, 『사회지표운동』은 “經濟指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경제지표가 사회의 전반적인 福祉나 安寧을 把握함에 있어서 制限點이 있음이 인식되면서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지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제지표가 갖고 있는 제한점으로는 (1) 心的인 滿足, 幸福感이나 삶의 充足度 등 主觀的 側面을 나타낼 수 없으며, (2) 市場에서의 財貨나 서비스에 대한 評價가 사회의 안녕에 대한 기여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3) 非市場的 活動(nonmarket activities)과 市場活動이 일상생활에 갖는 영향력 등이 경제지표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4) 경제지표에서는 分配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고, (5) 인간행위를 지배하는 價值, 規範, 構造들을 포함하는 사회체계와 경제간의 相互依存性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⁷⁾.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社會指標에서는 『安寧(well-being)』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경제지표를 補完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부문까지를 포함한 사회의 全般的인 現象을 把握·報告하고 각종 사회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지표의 개발은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시도되어 공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중점을 두는 關心領域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定義에 있어서도 多樣한 면을 보여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統計廳에서 매년 발간·공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사회지표를 “歷史的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 狀態를 總體的이고도 集約的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人間生活의 全般的인 福祉程度를 파악가

7) Land, K. C., "Social Indicators",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83, Vol. 9, pp. 1-26.

능케하여 주는 尺度”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지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綜合化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설정되면 사회지표는 社會的 向方을 평가하고 사회적 관심영역에 있어서 行動의 準據로 活用이 可能하다는 점을 여러 사회지표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第2節 社會指標의 機能

社會指標의 機能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⁸⁾, 랜드(Land)의 論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지표가 가지는 세 가지 合目的性(rationale) 내지 機能으로서 ① 社會政策的 機能(social policy rationale) ② 社會變動의 機能(social change Rationale) 및 ③ 社會報告的 機能(social reporting rationale)을 들고 있다. 사회정책적 기능으로는 ① 특정한 政府(公共)政策을 평가하고 ② 國民經濟計定(national economic accounts)과 유사한 社會計定體系를 설정하며 ③ 社會目標을 설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들었으며, 사회변동적 기능으로는 ① 社會的 條件(狀態)을 측정하고 ② 삶의 質 내지는 人間生活條件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여러 경제지표를 보완하며 ③ 社會變動(社會的 條件의 變化)을 측정하는 기능을, 사회

8) 한 예로, 라이스(Rice, S.)는 그의 논문 “Social Accounting and Statistics for the Great Society”에서, 사회지표를 복잡한 사회적 상호관계의 운영에 통로를 개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고 사회문제를 규정지으며 사회의 추세(Social Trends)를 추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능들은 사회공학을 통하여 사회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목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판세트(Fanchette)는 UNESCO에서 발간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서 사회지표를 1) 사회상태와 변동의 추세를 기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기능, 2) 지표간의 사회적 연계(social-connection) 기능, 3)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변동을 추적 관리하게 하는 분석도구(analytic tool)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보고적 기능으로는 ① 社會情報體系를 개선하고, ② 장래에 있을 社會問題와 生活狀態를 예측하는 기능 등을 들고 있다⁹⁾.

랜드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제기능중 어떤 것을 強調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지표를 보는 視覺은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사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社會 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的 視覺과 사회지표의 社會報告(social reporting)的 機能을 강조하는 視覺이다¹⁰⁾. 사회적 안녕의 요소들이 확정되어야만, 그것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시각은 서로 排他的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基盤提供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가 또는 社會啓蒙的 性格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지표의 定義와 指向點이 달라진다. 정책분석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회엔지니어링의 입장을 갖게 되면 規範的 福祉指標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반면, 사회보고라고 하는 社會啓蒙的 側面(enlightment)을 강조하게 되면 社會條件, 傾向, 解析과 說明들에 관한 記述的인 指標들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社會政策設定의 基盤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엔지니어링적 시각에서는 사회지표를 社會政策이 지향하는 변화를 향한 目標 또는 產出(output) 變數로 파악한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지표가 특정한 社會政策을 評價하고 社會計定體系를 발전시키며, 國家目標와 그 優先順位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지표는 합의·설정된 社會的 價值와 目標가 전제되고 이에 대한 현황과 이를 향한 추세를 나타내는 規範的 性格을 띠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입장은 “社會의 目標”에 대한 同意를 전제로 하며, 개인과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의미있는 생활의 질

9) Land, K.C.,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in Land, K. C. and Spilerman, S. (Eds.), *Model of Social Indicators*, Russel Sage, New York, 1975.

10) Land, K. C., *ibid*, 1983.

에 관한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대한 중요 변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들을 가져오는 因果的 要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제적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¹¹⁾.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맥레(MacRae)는 사회지표를 政策指標(policy indicators)의 概念으로 대치시켜 이를 정책과 연관된 公共統計系列로 파악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책안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¹²⁾. 美國 保健教育福祉省(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또한 사회지표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社會指標를 “한 사회의 주요국면의 조건에 관하여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規範的 關心을 주입하는 統計이며 福祉의 直接的 判定基準”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상태의 변화나 관심영역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지표의 規範的 要素와 均衡的 判斷을 강조하였다¹³⁾. 그러나 문제는 한 사회의 합의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규정하기란 사회지표를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광범위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반면에, 社會報告의 機能을 강조하는 시각은, 사회지표의 주요기능은 사회의 중요한 제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社會的 測定과 分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사회조건들과 그것

11)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지표는 규범적인 관심과 동의가 가변적이며, 선택된 규범적 틀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들을 제외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Sheldon and Freeman, 1970).

12) MacRae, D. Jr.,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el Hill, North Carolina, N.C. University Press, 1985, pp.4~13.

13)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ward a Social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97.

들의 각 부분의 時系列的 變化를 나타내는 사회적 인덱스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의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技術的(descriptive)인 사회지표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며, 따라서 사회지표의 적절한 역할은 啓蒙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조건과 사회변화에 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社會指標의 機能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지표는 실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데 寄與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대표적인 학자인 비더만(Biderman)은 사회지표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조건을 제시해 주는 計量的 資料(quantitative data)로 보았다¹⁴⁾. 무어와 셸돈(Moore and Sheldon)의 『社會變動의 指標들(Indicators of Social Change)』이라는 저서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고의 시초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시각을 종합하여 사회지표의 기능으로서 ① 國民生活의 水準測定, ② 社會狀態의 綜合的인 測定, ③ 社會變化의 豫測, ④ 社會開發政策의 成果測定 등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第3節 客觀的 社會指標와 主觀的 社會指標

사회지표연구와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설정된 영역별 사회적 조건의 水準測定에 있어서 객관적 수준만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 수준의 측정(subjective measuring)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70년대 초 캠벨과 컨벌스(Campbell and Converse)¹⁵⁾가

14) Biderman, A. 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S.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pp.63-77.

15) Campbell, A. and Converse P.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에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느낌(subjective feeling)이라는 뜻을 추가함으로써 제기되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經濟·社會·文化的 背景 및 規範的 要因에 의해서 주관적인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수준의 측정은 무시될 수 없는 측면이다. 따라서 主觀的인 指標項目은 설정 및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사회지표 속에 主觀的 指標들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지표는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서로 배타적이거나 연관을 맺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에 대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라는 점에서¹⁶⁾,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사회지표가 어떻게 連繫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客觀的인 指標와 주관적 지표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인 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利用可能한 統計資料를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低廉한 經費가 들며, 둘째,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간에 比較·分析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간·부문간의 비교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이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대체로 시계열 자료를 구함으로써 社會的 趨勢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主觀的 指標는 첫째,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施設과 資源이 국민자신의 생활에 진심으로 원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와 일치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인간의 幸福과 滿足을 증

16) Andrews, F. M.,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Objective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ing Systems", Juster, F. T. and Land, K. C. (Eds.), *Social Accounting Systems*, Academic Press, 1981, pp.377-421.

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經濟的 成長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¹⁷⁾. 월터-부쉬(walter-busch)는 스위스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매우 밀접히 상호연관되어 있고, 각 지표가 갖고 있는 制限點(객관적 지표는 주관적 지표보다는 妥當性이 떨어지며, 주관적 지표는 非決定性(inconclusiveness)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相互補完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¹⁸⁾.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에서 제시한 『生活水準인덱스』(*The Level of Living Index*)는 客觀的인 指標에 중점을 둔 대표적 체계이다. 그리고 1975년에 역시 국제연합에서 펴낸 人口, 家族 및 家口, 階層 및 移動 등 11개 영역에 걸쳐 조사한 『社會·人口統計體系』(*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주관적 목표나 의식을 체계에 統合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OECD의 『社會指標』는 사회지표체계에 主觀的 指標를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주관적 지표에 관한 심층적·포괄적 연구는 자프(Zapf)가 행한 獨逸社會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이루어졌다¹⁹⁾. 그는 삶 전체와 16개 삶의 영역에 대해 過去, 現在, 未來의 滿足度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지표는 尺度의 相異함과 地域間, 國家間 比較가 어렵다는 점들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인 社會的 條件과 主觀的 指標를 상호교차시키려는 노력들이

17) 강동식, 1991,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인문·사회관학편), pp. 437-459.

18) Walter-Busch, W.,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Switzerl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983, pp. 337-391.

19) Zapf, W., "German Social Report,"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4, 1987, pp. 5-171.

행해지고 있다. 인켈스(Inkels)의 연구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경우이다²⁰⁾. 그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고, 近代化라는 社會的 變化가 과연 삶의 질이라는 主觀的 狀態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앤드류(Andrews)는 객관적인 社會的 條件과 主觀的 指標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²¹⁾. 이 틀은 社會的 現象을 全般的인 水準, 關心水準, 個人水準, 集合水準 등 4가지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측정의 대상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지표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表 1-1-1 참조>). 주관적 지표에는 (1) 전반적인 수준(global-level)의 안녕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주관적 지표(예: 삶 전체에 대한 自己判斷), (2) 관심수준(concern-level)의 안녕에 대한 전통적인 주관적 지표(예: 자신의 주거에 대한 自己評價), (3)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측정(예: 주거지가 큰지, 작은지, 중간수준인지에 대한 主觀的 評價), (4) 集團에 적용되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측정(예: 이웃의 밀집도에 대한 평가)등이 있다. 반면 객관적 지표에는 (5) 전반적인 수준의 주관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예: 삶 전체에 대한 감정의 지표로서의 自殺率), (6) 관심 수준의 주관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예: 개인의 이사여부가 주거지에 대한 滿足度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7) 개인에 관한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예: 개인의 住居地의 面積), (8) 집단의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예: 이웃의 住居密集度)등이 있다.

20) Inkels, A.,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4, 1993.

21) Andrews, F. M., *ibid.*, 1981.

〈表 1-1-1〉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을 分類하는 틀

측정대상/측정의 특성	주관적 측정	객관적 측정
주관적, 전반적 수준	(1)	(5)
주관적, 관심수준	(2)	(6)
객관적, 개인적	(3)	(7)
객관적, 집단적	(4)	(8)

자료: Andrews, F. M., "Subjective Soical Indicators, Objective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ing Systems", in Juster, F. T. and Land, K. C., (Eds), *Social Accounting Systems*, 1981, pp.377-421.

第 4 節 社會指標의 分類

사회지표의 정의 및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몇가지 서로 다른 사회지표의 분류가 가능하지만²²⁾ 본 보고서에서는 파슨스(talcott parsons)의 體系理論을 원용하여 사회지표를 분류하고 있는 카리즐(carlisle)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²³⁾. 그는 社會指標研究에서 操作化되어야 할 중심개념을 體系構成要素(system components), 體系目標(system goals), 社會問題領域(social problem area)과 政策目標(social goals and objectives)의 네가지로 꼽고 있다. 體系構成要素란 전체사회의 상호연관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下部體系를 지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保健이나 敎育과 같은 것이다. 또 操作된 사회문제영역이란 ‘老人問題’, ‘靑少年問題’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背

22) Carley(1983)는 사회지표의 규범성과 대상목표라는 두개의 기준에 따라 서술적 지표, 규범적 지표, 투입지표, 경과지표 및 산출지표 등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사회지표의 분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에서 발간된 『사회복지지표체계』 제2장을 참고로 할 것.

23) Carlisle, 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ocial Indicator," in Shonfield and Shaw, S. (Eds.),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Policy*, London, Heimann Educational Books, 1972, pp.25-26.

景情報를 제공하는 것이며, 操作化된 정책목적은 특정한 사회정책의 成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거하여 사회지표는 情報的 指標, 豫測的 指標, 프로그램 評價指標, 問題中心的 指標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情報的 指標(informative indicator)는 체계 구성요소와 체계목적의 연계속에서 형성된 지표로서 社會體系를 記述하고 사회체계들 사이의 變化에 대해 설명해 준다. 즉, 정보적 지표는 사회문제의 診斷에 도움을 주며 특정부문의 實質的 目的 達成을 제시하는 중심적 지표이다. 그러나 정보적 지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價值介入의 여지가 있고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규범과 목적도 변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定規的으로 調査되어야 한다.

둘째로, 豫測的 指標(predictive indicator)는 社會體系 構成要素들이 이론적 틀에 맞게끔 조작화된 이론적 뒷받침이 있을 때 生成 가능한 指標이다. 정보적 지표가 연구대상 부문의 原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예측적 지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의 結果를 보려는 것으로 時系列的인 持續的 點檢을 필요로 한다.

셋째로, 프로그램 評價指標(program evaluation indicator)는 조작화된 정책목적을 점검하는 지표로서 政策目的을 제시하고 政策遂行過程과 效果를 점검하는 방법에 기여한다. 이 지표는 특정한 사회정책에 따른 사업중심으로 問題解決에 分析의 焦點을 두고 있으며,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因果關係 模型을 활용하여 政策目的 達成程度를 效果와 效率의 양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問題中心的 指標(problem-oriented indicator)는 조작화된 문제영역을 제시해주는 지표로서 이 지표는 政策解決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적해준다. 이 지표는 情報的 指標體系를 통해서 발전되는 데,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문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價值介入이 개재할 潛在的 可能性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지표가

개발되면 이에 따른 後續對策을 제시해 주어야 하므로 追加的 分析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네가지 사회지표분류는 지표를 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질 것이며 어떤 지표도 이 네 분류에 동시에 有意味하지 않고 또 相互排他的이지도 않다.

第5節 社會指標의 諸條件²⁴⁾

사회지표는 社會 諸現象의 數量化 作業이다. 따라서 수량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지표는 可用한 既存의 資料를 검토하여 설정되어야 하며(availability), 그 실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료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時間과 場所에 따라 변화하여서는 안된다(quality).

둘째로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지표는 包括的이며 妥當性이 있어야 한다. 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부터 產出될 수 있어야 하며(completeness of coverage),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實際를 表現하여야 하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客觀的이고도 外部的인 證據가 있어야 한다(validity). 또한 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현상의 변화만을 반영하여야 하며(specificity), 관계된 현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sensitivity).

셋째로, 제시된 사회지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理解可能해야 한다(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 지표의 이론적인 근거나 기술적인 작업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이용자와 대중들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지

24) WHO에서 발간한 *Statistical Indicators for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mes* (Geneva, 1971)과 Stumpel, B. (Ed.),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OECD, 1972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지표의 有用性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지표는 개인들에게 유
관한 조건들의 측정이기 때문에 國家의 平均水準뿐만 아니라, 規範的
또는 分析的 必要에 의하여 제 기준별로 나뉘어 자료가 제시될 수 있
어야 한다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더불어 시계열적으로 동
일한 지표의 수준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이 그 측면의 수준이 改
善되었는지 또는 惡化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파악
이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情報源이 된다. 또한, 국제적인 비
교가 가능하여야 하는데(cross-national comparability), 국제적인 비교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共通되는 概念들을 사용하고, (2) 定立된 定
義와 統計的 方法 및 算式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데이터가 비교가능
한 대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비교할 수 없는 지표들을 비교할
때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²⁵⁾.

第6節 社會指標의 一般的 特性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社會指標는 통일된 하나의 概念이나 定
義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지표는 기존의 통계와는 상당
히 다른 몇가지 特性을 가지고 있다(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1978). 이러한 특성을 보면, 먼저 사회지표는 궁극적으로 삶의 質의
測定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지표는 측정하고자 하
는 사회상태와 경향이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떠한 意味를 가

25) 이러한 이유외에도,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적 경향성(cultural bias)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비교연구에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Ostroot. N. M. and Syner, W. A., "Measuring Cultural Bias in a
Cross-National Study," in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21, 1987,
pp.243-251.

지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지표는 進歩와 退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지표는 기존의 통계와는 달리 어떤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의 意味를 가지는 價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지표는 삶의 部分的인 情報가 아니라 삶의 全體體系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個別指標는 그 자체로서도 意義가 있겠지만, 體系全體와 연관하여 볼 때 보다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統計年報 등은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상황의 斷片的인 現象만을 표현해 줄 뿐이다. 예를 들면 保健福祉部에서 발표하는 ‘醫師數’이다. 이것은 單純統計에 불과하지만, ‘醫師 1人當 人口數’라고 지표화하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더구나, 본 연구의 ‘保健部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 1인당 인구수’라는 개별지표를 포함하는 細部關心領域인 ‘保健醫療人力’과 關心領域인 ‘保健醫療資源’이라는 지표체계속에 연계시켜 볼 때 ‘의사 1인당 인구수’라는 개별지표의 의미는 보건의료인력을,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자원을 알게 해 주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지표는 個人水準에서 의미가 있는 指標開發을 중시한다. 이때 정보의 내용은 개인수준에서의 得失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잃고 얼마를 얻었으며 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가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지표는 본질적으로 個人的 幸福度와 관련되어 있는 主觀的인 內容도 포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는 삶의 질의 時系列的인 變化의 傾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별지표와 지표체계의 상당한 安定性을 요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개별지표와 지표체계는 가능하면 시계열의 維持 次元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削除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社會指標의 特性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第2章 社會指標의 歷史와 國際的 動向

第1節 社會指標研究의 歷史

社會指標研究는 사회지표의 필요성과 그 의의가 강조되었던 '60년대, 여러나라에서 구체적인 사회지표들이 개발된 시기인 '70년대, 사회 지표체계내에 포함되어 있는 特定領域에 대한 分野別 指標들의 生産이 시도되는 시기인 '80년대 이후 등 시대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 걸쳐 西歐先進國家들이 경험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적 생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삶의 質(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서 얻어진 혜택이 모든 階層에게 分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²⁶⁾.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회지표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정책결정을 위한 社會的 情報의 確保를 위해 경제지표에 대한 逆反應으로 시작되었다. 그로스과 스프링거(Gross and Springer)²⁷⁾는 이러한 1960년대의 사회지표운동의 배경으로, 첫째, 20세기 후반의 社會科學의 급속한 발전과 計量的 接近方法의 도입, 둘째, 전문가와 지식인의 정치와 행정 분야 진출로 인한 學問的 接近의 확산, 셋째, 정치와 경제에서 合理的 意思決定模型의 도입확산으로 인한 체계적 정보수집과 처리의 필요성, 넷째, 社會科學 分野에서의 지속적인 統計領域의 개발과 확충 등 4가지를 지적하였다.

26) Carley, M.,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83.

27) Gross and Springer, "A New Orientation in American Government," *Annals of AAPSS*, Vol. 371, 1967, pp.1-9.

70년대말부터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회지표는 초기의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지표에서 점차 特定領域에 대한 細分化되고 專門化된 特殊指標의 개발이 널리 시도되고 있다. 1978년 OECD가 분야별 지표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都市環境指標』²⁸⁾를 발간하였으며, 1979년에는 UNESCO가 베니스 회의(1970)의 권고를 받아들여 『文化統計指標』²⁹⁾를 개발하였다³⁰⁾.

第2節 社會指標體系의 國際的 動向

社會指標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나타내고 個人的 福祉와 國民福祉를 통계 및 다른 형태의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사회지표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려는 것과 그 構造的 體系에 대한 定義와 理論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사회지표의 배경이 되는 人間의 基本的 및 高次元의 欲求와 必要는 한 시점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제약과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지표를 구체화하려는 여러가지 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관심영역과 여건이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관심영역과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經濟社會發展段階에 적합한 사회지표의 구조 또는 체계를 설정하려는 여러기관의 노력은 定說이 없는 가운데 대표적인 體系類型만이 제시되어 있다. 예로서, 먼저 본절에서는 국제연합(UN)이나

28) OECD, *Urban Environmental Indicators*, Paris, 1978.

29) UNESCO, *Cultural Statistics and Cultural Development*, CSR-C-27. 1982.

30) 이러한 사회지표운동의 역사는 그대로 한국의 사회지표발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볼 것.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사회지표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국가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사회지표 체계를 받아들여 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현황과 가용자료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회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個別國家에서 구성한 사회지표체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국가의 지표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美國과 日本, EC聯合의 한 국가인 英國의 지표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國際機關의 指標體系

가.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의 生活水準指標體系

드로노우스키(Drewnowski)에 의하여 제시된 國際聯合社會開發研究所(UNRISD)의 指標體系³¹⁾는 시대적 상황과 개발도상국의 발전문제를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영역과 지표의 2段階 構造로 되어 있다. 이 체계는 營養, 住宅, 健康, 敎育, 餘暇, 安全, 環境 등 7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인간의 基本的 需要를 그 내용으로 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가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資料의 可用性(availability)과 比較可能性(comparability)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지표의 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지표의 이론적인 본질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통계자료의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 체계는 국제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사회지표의 體系化 특히 計數의 內容을 分析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 후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는 사회지표자체를 발전시키려는 노

31)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RISD: Geneva, 1970.

력보다는 開發途上國의 發展指標의 데이터뱅크를 설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³²⁾. 그러나 이 데이터 뱅크에 포함된 모든 통계자료를 사회 지표라고 분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통계가 발전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論議가 있다³³⁾.

〈表 1-2-1〉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의 生活水準指標體系

영역	지표
영양	열량섭취량
	단백질섭취량
	당분 이외의 열량 섭취비율
주거	유주택율
	거주밀도
	주택의 전용
건강	병원이용
	의료이용
	예방수준
교육	학교재적율
	취학율
	교사당 학생수
여가	여가시간
안전	개인과 생활의 안정 및 안전
환경	통신
	여행
	스포츠 참여
	문화활동
	의복
	물적환경

資料: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RISD: Geneva, 1970.

32) Wolf Scott, *The Measurement of Real Progress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the Literature and a Pilot Study*,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No. 73.3. 1973.

33) McGranahan, D., Pizarro, E. and Richard, C., " Methodological Problems in Selection and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dicators," Discussion Paper submitted to the Expert Group Meeting, Pp. 20-25.

나. 國際聯合의 社會·人口 統計體系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SSDS)³⁴⁾는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사업의 결과로서 건의된 체계는 아니지만, 사회지표로서 전용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인구통계를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체계에 선정된 통계계열은 가치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나 분석과 계획작성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주로 함축적인 선정기준이 되어 있다. 이 체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보고된 체계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떤 사회에도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表 1-2-2 참조>).

이 체계는 사회지표에 포함된 모든 社會領域, 즉 人口에서 保健, 人力에서 公安에 이르기까지 견해에 따라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規範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는 제외되어 있다. 이 체계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는 것으로 선정·이용될 수 있다.

이 체계는 그 통계계열의 包括性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좋은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체계를 참고로 하여 한 나라의 지표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발전단계에 상응하고 또 分析的 資料를 얻는 데 필요한 期間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는 통계적 계열을 선정하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4)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表 1-2-2〉 UN의 社會·人口統計體系

부 문
인구의 규모, 구조, 출생, 사망, 이동
가족형성, 가족, 가구
사회적 계층과 이동
소득분포, 소비, 자산형성
주거
시간배분, 여가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교육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보건, 의료서비스
질서, 공간, 범죄

資料: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Part Two: Individual Sequences and Subsystems) New York, 1975, pp.55-125

다. OECD의 社會的 關心

OECD 會員國의 代表들은 1970년대초에 사회적 목표를 표준화하여 정의하고 가장 필요한 指標의 體系化와 그 評價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973년 『OECD諸國의 共通의인 社會的 關心領域』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社會的 關心”이란 수단이나 간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리에 기본적이며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확인되어 정의할 수 있는 熱望 또는 福利를 관심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 체계는 8개 분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15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구분된다.

이 체계는 1982년에 <表 1-2-3>과 같이 改編되었다. 關心分野와 下位 關心事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은 전자와 같으나 지표수는 24개에서 33개로 증가하였다.

〈表 1-2-3〉 OECD의 社會的 關心體系(1982)

관심분야	영역	지표
건강	수명	기대수명
		주산기사망율
	건강한 삶	일시적 장애자
		영구적 장애자
교육과 학습	교육시설의 활용	정규교육
	학습	성인교육
		문맹율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가용노동력	실업율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실망노동자
	근로생활의 질	평균근로시간
		통근시간
		유급연가
		비전형적인 근로
		수입의 분포
		치명적 직업병
		불유쾌한 근로환경
시간과 여가	시간활용	주당평균자유시간
		자유시간활동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소득	소득분배
		저소득
		물질적인 박탈
	부	부의 분포
물적환경	주거여건	주거공간
		실외공간 접근도
		기본적인 편의시설
	서비스의 근접가능성	선정된 서비스(의료,상점등)의 근접도
	환경적 불유쾌	공기오염에의 노출
		소음에의 노출
사회적 환경	사회적 귀속	자살율
개인의 안전	위험에의 노출	돌발적인 치사
		치명적이 아닌 심각한 상해
	인지된 위험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

資料: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t II: Selected Social Indicator Disaggregations), Paris, 1982, pp.17-46

이 OECD체계가 지니는 특징은 사회연합 사회개발연구소의 사회지표 체계와 비교하여 先進國의 社會發展狀態에 적합하고, 또 의미가 있는 主觀的 指標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기관에서 제시한 3가지의 사회지표체계는 <表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領域의 包括性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統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OECD체계가 相對的 優位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1-2-4> 國際機關에서 제시한 社會指標體系의 比較

UNRISD: 생활수준지표 (1970)	OECD: 사회적 관심체계 (1982)	UN: 사회·인구통계체계 (1975)
영양	-	-
-	-	인구의 규모·구조·출생, 사망, 이동
-	-	가족형성, 가족, 가구
-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소득분포, 소비, 자산형성
-	교육 및 경제생활의 질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교육	교육과 학습	교육
건강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 환경	물적환경	주거
-	사회적 환경	-
여가	시간과 여가	시간배분, 여가
안전	개인의 안전	질서, 공안, 범죄
-	-	사회적 계층과 이동
-	-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2. 外國의 社會指標

가.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미국의 사회지표체계는 그 關心領域의 包括性和 主觀的 指標의 統合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表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社會指標體系(Social Indicators III)』는 11부문과 58개의 細部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있다. 部門은 (1) 人口와 家族, (2) 健康과 營養狀態, (3) 住居와 環境, (4) 交通, (5) 公安, (6) 敎育과 訓練, (7) 勞動, (8) 社會的 安寧과 福祉, (9) 所得과 生産性, (10) 社會參與, (11) 文化, 餘暇, 時間利用 등이다.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보면, 미국사회의 현상태와 장래의 변화의 성격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離婚에 따른 가족문제들에 관한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자료가 인종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국민들이 각 부문에서 사회이슈화되고 있는측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을 “公的인 認識”이라는 세부 관심영역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즉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의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사회지표체계가 발표된 이후 사회지표에 대한 국가수준의 보고서의 발간은 중단되었다.

〈表 1-2-5〉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부 문	세 부 관 심 영 역
인구 및 가족	공적인 인식
	인구성장과 구성
	가족규모와 구성
	거주상태
	혼인상태와 안정성
	국제비교
건강과 영양	공적인 인식
	건강자원과 이용 및 비용
	삶의 기회
	예방과 영양
	국제비교
주거와 환경	공적인 인식
	주거양식과 시설들
	주택수요의 경향들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편의시설
	환경의 질
	국제비교
교통	공적인 인식
	미국인의 삶에 있어서의 교통의 역할
	경향과 변화들
	사회적 비용과 영향
	교통에너지소비
	국제비교
공안	공적인 인식
	자원투자
	범죄와 희생자들
	기타 공적인 안전의 지표들
	국제비교

〈表 1-2-5〉 계속

교육과 훈련	공적인 인식
	자원투자
	등록과 교육적 성과
	수행과 성과
사회참여	공적인 인식
	투표율
	자원봉사
	멤버십
	국제비교
문화, 여가, 시간이용	공적인 인식
	문화비지출
	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시간활용
	국제비교
노동	공적인 인식
	노동자원들
	취업과 실업
	노동조건과 질
	국제비교
사회보장과 복지	공적인 인식
	자원투자
	보호서비스의 제공
	국제비교
소득과 생산성	공적인 인식
	소득, 소비, 소비내구재
	소득의 비교
	빈곤층
	국제비교

資料: U. 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1980.

나. 日本의 社會指標

일본은 다양한 사회지표체계를 통하여 사회현상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總務廳 統計局에서는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를 받아들여 지역별로 작성하고 있는 『社會生活統計指標』(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의 구성은<表 1-2-6>에서와 같다. 사회생활 통계지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지역비교가 가능한 지표 및 통계를 제시한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國民生活 審議會에서는 국민생활의 제측면 혹은 사회적 제 목표분야의 상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로서 國民生活指標(NSI) 體系를 제시하였다.

<表 1-2-6> 日本의 社會生活統計指標 (1995)

부 문	지 표
자연환경	면적, 기상
인구, 세대	인구분포, 남녀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등
경제기반	현민경제계산, 사업체수, 기업도산, 종사자수 등
재정	재정력,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 조세 등
학교교육	교육시설, 공립학교의 시설, 교원, 학생, 대학 등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	사회교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등
노동	노동력 상태, 취업상태, 취업기회 등
가계	비농가세대의 가계수입 및 가계지출, 세대의 자산, 물가 등
거주환경	주택수, 주택의 질, 주택관계비용, 통신 등
사회보장	사회보장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건강·의료	유병률, 사망률, 평균여명, 사인별 사망자 등
안전	소방시설,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 등
생활시간의 배분	행동별 평균시간, 2차 활동의 종류별 평균시간 등

資料: 일본 총무청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1995.

중래의 지표가 경제지표 이외의 비화폐적 지표를 이용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려고 한 데 비하여 국민생활 지표체계는 國際化, 情報化, 高齡化 등 국민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국민생활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지표는 국민의 생활영역으로서는 健康, 環境과 安全, 經濟的 安定, 家庭生活, 勤勞生活, 學校生活, 地域社會活動, 學習·文化活動 등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 主觀的 指標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국민의 관심영역별로는 국제화와 생활, 정보화와 생활, 고령화와 생활, 도시화와 생활, 국민생활의 격차, 가정사회의 병리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표화하고 있다. 국민생활지표(NSI) 체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지표는 총 148개 이다. 구체적인 지표 체계는 <表 1-2-7>과 같다.

그후,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에서는 國民生活指標(NSI) 體系가 국민 생활의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NSI 體系를 대폭 개편한 新國民生活指標(PLI: People's Life Indicators)를 제안하였다. 신국민 생활지표는 생활지표로서의 活動領域別指標 및 構造變化指標의 2개의 지표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PLI에 있어서 活動領域은 크게, 住居, 消費, 勞動, 養育, 健康, 餘暇, 敎育, 交際 등 8개로 구분하였다. 한편, 構造變化指標는 개인의 활동영역만 보아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5가지의 구조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高齡化, 國際化, 集中化, 情報·서비스化, 그린化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表 1-2-8>과 같다.

한편 <表 1-2-9>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사회생활 통계지표와 신국민생활지표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表 1-2-7〉 日本의 國民生活指標(NSI)의 指標體系(拔萃)

국제비교지표	생활영역별 지표		주관적 의식지표	관심영역별 지표					
	생활영역	생활영역		국제화와 생활	정보화와 생활	고령화와 생활	도시화와 생활	국민생활과 격차	가정·사회의 병리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신장, 체중	건강				고령자인구 비율			어린이의 성인병
·하수도보급률 ·강도범죄율	·산림면적비율 ·하수도보급률	환경과 안전		대마 등 밀수	개인정보의 전산처리화	고령자 화장자수	도시공원		마약
·국민소득 ·소비자물가	·실 수입 ·소비자 물가	경제적 안정	·수입의 만족도			연금급부 수준		소득의 지역간격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수
·세대인원 ·이혼율	·가족구성 ·이혼율	가정생활	·생활의 만족도	국제결혼	CD·카드 전화	독거노인	3대 도시권의 주택가격	고령화의 지역간 격차	모자세대 부자세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상황	근로생활	·일의 충실감	해외장기 체류자수	정보의 공급량 과 소비량	고령자 취업률	통근시간	취업기회의 남여간 격차	단신부임
·유치원취원율 ·진학률	·유치원 취원율 ·취업상황	학교생활	·교육·청소년 대책에의 요망				지방대학 입학 생중 해당지역 거주학생수		교내폭력 교교중퇴자수
·조합원수 ·노인크림수	·교제시간 ·노인크림수	지역·사회 활동	·교제의 충실감	재일의국민	CATV	노인가정 봉사원수			
·신문발행부수 ·도서관수	·자유시간 ·도서관	학습·문화 활동	·교양취미에의 관심	출국 일본인수		노인복지 센터수			

資料: 국민생활 심의회, 「국민생활지표」, 1992.

〈表 1-2-8〉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 (PLI)의 構成

활동영역	구조변화지표
주거	고령화
소득소비	국제화
노동	집중화
양육	정보·서비스화
건강	그린화
여가	
교육	
교제	

資料: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신국민 생활지표』, 1995.

다. 英國의 社會指標

영국에서는 『社會의 傾向』(Social Trends)³⁵⁾이라는 책을 통하여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지표체계는 12개의 부문과 58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包括的인 體系이다. <表 1-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지표들이 영국이 갖고 있는 심각한 社會問題인 地域間 葛藤, 離婚, 失業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社會報告(social reporting)의 기능을 강조하여 사회현상과 변화경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35)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ment, *Social Trends*, 1990

〈표 1-2-9〉 日本의 社會指標 體系와 관련 社會統計調査

① 제 목	사회생활통계지표	신국민생활지표(PLI)
② 작성기관	총무청 통계국 통계정보과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국민생활과
③ 연 혁	- 1976년 도도부현자료를 중심으로 시작 - 1981년 대상지역을 시구정촌으로 확대하고 수집항목도 대폭 늘리는 등 체계확충을 시도하여 오늘에 이름	- 1970년 사회지표 개발에 착수 - 1974년 지표체계 수립 및 공표 - 1979년 1차 개편 - 1986년 2차 개편(NSI) - 1992년 3차 개편(PLI)
④ 작성분야	- 13개 분야로 구성 ㉠자연환경 ㉡인구·세대 ㉢경제기반 ㉣재정 ㉤학교교육 ㉥사회교육·문화·스포츠 ㉦노동 ㉧가계 ㉨거주환경 ㉩사회보장 ㉪건강·의료 ㉫안전 ㉬생활시간의 배분	- 8개의 활동영역 ①살다 ②소비하다 ③일하다 ④양육하다 ⑤치료하다 ⑥놀다 ⑦배우다 ⑧교제하다 - 4개의 생활 평가측 ①안전·안심 ②공정 ③자료 ④쾌적 - 5개의 구조변화지표 • 고령화·국제화 • 집중화 • 정보·서비스화 • 그린화
⑤ 특 정	- 통계의 망라성 - 기본적 관심은 인간 - 스톡과 플로우 - 개념, 정의, 분류의 공통성 - 지역통계의 정비	- 개인생활의 활동에 착안하여 활동영역을 선정 - 개별지표 선정 - 중복지표의 선정 - 국민생활선호도 조사에 의한 주관적 weight 채용 - 가공통계
⑥ 사회통계조사 및 자료원	- 사회생활 기본조사(노동력통계과) - 도도부현의 데이터 - 기타	- 국민생활 선호도 조사 - 총무청 통계국 등 - 도도부현에 대한 앙케이트 및 보고자료

〈表 1-2-10〉 英國의 社會指標體系

인 구	인구구조와 변화
	출생과 사망
	이동
	국제비교
가족과 가족	가구
	가족
	결혼과 이혼
	가족형성
교육	5세이하 아동을 위한 학교와 유치원 시설
	학교와 학생
	16세이상의 학습과 활동
	추가.상위교육
	성인의 교육기준
고용	노동력
	고용의 유형
	이동성과 태도
	노동시간
	실업
	고용과 훈련
수입과 부	가구수입
	조세
	수입의 분배
	하위수입군
	부
지출과 자원	가구지출
	가격
	소비자신용과 가구저축
	공적 수입과 지출
	국가자원

〈表 1-2-10〉 계속

건강과 사회서비스	국가의 건강실태
	다이어트
	사회적 습관과 건강
	사고
	예방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자원
주거	주택공급
	주택조건
	무주택자들
	주거비용과 지출
	주거인의 제특성
교통과 환경	교통
	환경
여가	가용한 여가시간
	사회·문화활동
	휴일
	자원
사회참여	봉사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정치
	기타참여
법집행	법위반
	경찰·법원의 대응과 형집행
	감옥과 재할교육
	배상과 법적 원조
	자원

資料: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Social Trends*, 1990.

第3章 韓國의 社會指標와 改編方向

第1節 韓國의 社會指標運動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노력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1967년경이다. 당시 保健社會部는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속에 社會開發 (social development)의 내용을 확충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아래 社會開發 長期計劃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담당한 보건사회부의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班은 주로 국제연합의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社會指標 模型을 따라 사회지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사회개발장기계획의 작성결과는 『社會發展-第1號: 基本構想』(1968), 『社會開發長期計劃:第2號』(1970), 『社會開發長期計劃:第3號』(1973) 그리고 『社會開發: 部門別 事業展望』(1974) 등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1969년에 『社會開發: 長期展望』이 完成·出刊되었으나 공표가 유보되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國際聯合 社會開發研究所에서 제시한 체계이므로, 주요영역은 국제연합의 『生活水準指標』(1966)의 模型에 크게 접근하고 있으며 여기에 人口·社會福祉 및 社會保障·地域 社會開發 그리고 機構執行들의 領域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사회개발: 부문별 사업전망』(1974)에 지역사회개발영역에서 새마을 사업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새로이 社會氣風 淨化에 관한 영역이 추가되어 있는 점은 영역설정이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사회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사부의 이러한 노력은 그후 중단되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회개발계획과 사회지표운동을 연결시켜 사회지표의 개발필요

성을 정부로 하여금 인식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현재 발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국제연합(UN)에서 1972년 社會統計 體系化에 대한 勸告案을 마련함에 따라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現 統計廳)이 國際聯合 人口活動基金(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지원하에 韓國開發研究院과 공동으로 작성한 사회지표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1975년말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人口統計改善: 發展計劃作成을 위한 社會經濟指標』라는 공동연구를 2년간에 걸쳐 수행하여 社會指標體系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期間에 있어서 社會開發計劃部門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대비하기 위한 基礎資料로서 사회통계를 정비·통합한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78년 정부에 의해서 『社會指標試案』이 마련되었으며, 1979년부터 『韓國의 社會指標』라는 이름 아래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공표되고 있다. 1978년 성안된 『사회지표시안』에는 8個 部門 (人口, 所得·消費, 雇傭·勞使, 教育, 保健, 住宅·環境, 社會, 公安)에서 350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를 토대로 1979년 128개 지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지표를 공표한 후, 1980년 151개에서 매년 지표수를 확대하여 1987년에는 224개 지표로 확대하였다. 1987년에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여 8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擴大하고 (文化·餘暇部門 追加), 총 473개의 지표가 포함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1987년이후부터는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지표』가 매년 작성 공표되어 오고 있으며, 실제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수는 1988년 243개에서 1994년 291개로 확대되었다.

사회지표의 개발과 이의 공표는 각 영역을 분리시켜 보다 微視的인 觀察이 가능한 特殊指標의 개발에 자극을 주었다. 그 예로 한국연구보

건연구원이 1981년 『人口保健指標』를 발간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精神文化研究院이 전통문화의식과 국민문화의식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國民文化指標』의 체계구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1986년에는 UNESCO 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용, 국제문화교류들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文化指標 作成을 위한 體系構成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윤중주·임문영이 문화활동에 관한 UNESCO 조사모형으로 1983년 가을 서울과 공주지방에서 사례연구적 성격을 띤 小規模 標本調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³⁶⁾.

이 외에도 政府出捐研究機關에서 각 부문별로 지표작성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韓國教育開發院에서 발간한 『韓國의 教育指標』, 靑少年開發院에서 발간한 『靑少年 指標』, 消費者 保護院에서 발간하고 있는 『消費者指標』, 女性開發院에서 발간하고 있는 『女性和 관련한 統計·指標』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각 지방단체별로 사회지표를 살펴보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市政開發研究院에서 펴낸 『서울시의 社會指標』, 송파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송파구청의 사회지표』, 慶尙南道에서 발간한 『경상남도의 사회지표』 등이다.

36) Yoon, Jong-Joo and Lim, Moun-Young, "Report of Household Survey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Adapted Version of the UNESCO Survey Model," in *UNESCO,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ree Case Studies*, 1986, pp.49-89.

第2節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韓國의 社會지표는 그 체계가 유형상 國際聯合의 社會人口統計體系模型을 따르고 있어 양자의 지표영역구분이 매우 유사하다. 『韓國의 社會指標』는 그 간 꾸준히 보완작업을 계속하여 부문을 확대하고 지표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관심을 반영하여 왔다 (<表 1-3-1>참조). 또한 現實生活에 대한 국민의 의식 내지는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를 社會지표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977년 社會統計調查(Social Statistics Survey)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그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때 연도에 따라 2-3개부문에 역점을 두어 국민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도출에 이용되고 있는 統計資料는 대부분이 정부 각 부처가 생산하고 있는 重要기본통계인 指定統計, 一般統計 및 統計年報등과 소수의 민간단체의 통계이다. 지표의 計量的 表現은 거의 전 지표항목에 있어서, 實數(number), 構成比(percentage), 比(ratio) 및 比率(rate)들의 개념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들이 時系列的 및 諸特性別로 제시되고 있으나 綜合的인 指數化 作業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表 1-3-1〉 1987년 案에 의한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성장	인구추세
		자연증가
		국제이동
		추계인구
		북한인구
	출생과 사망의 구조	연령별 출산
		출산억제
		자녀수와 성선회
		출생시 기대여명
		연령별 사망율
	인구분포와 이동	순재생산율
		도별인구
		도시인구
	인구구성	국내이동
		연령및 성 구성
		혼인상태
		가구및 가족구성
소득·소비	소득수준	소득
		소득자원
	소득분배	분배상태
		재분배
	소비수준	소비규모
		내구소지배지출
	저축수준	국민저축수준
고용·노사	경제적 생활의 안정	저축생활
		소득의 안정
		소비의 안정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취업
		실업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부가급여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表 1-3-1〉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안전보호	예방책
		구제책
	직업선택과 이동	근로이동
		직업안정
	근로자 자기개발	인적자원의 형성
		인적자원의 보존
	비차별 대우	성별 비차별
		연령별 비차별
	노사관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경영참가
교육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열과 수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자원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교육효과	학업성취도
		교육목표 달성도
		인력의 양성공급
	교육의식	교육의 경제적 효과
		국민의 학교교육관
보건	건강상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생존년수
		출생시 체중
		성장
		성인건강
		영양섭취
		구강보건
		개인건강평가
	사망 및 질병	사망수준
		사망원인
		질병
		질병평가

〈표 1-3-1〉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보건의료자원배정
	보건의료이용	예방
		진료
		이용
		의료비
		의료서비스 충족
주택·환경	주거상태	주택공급
		주거공간
		주택수용
		주거비용
		주택부대시설
		인근편리시설
		주거환경
사회	환경공해	환경오염
	재해	자연적 재해
	가족형성 및 해체	결혼
		자녀출산
		가족주기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안정성	가구와 가구원수
	가족관계의 원활화	부부, 부모 및 자녀관계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보호	사회보험의 보편화
		공적보호
		사회복지시설
	사회계층	사회적 이동
	사회참여의 증가	정치참여의 증가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종교생활
		사회단체참여
		사회교육참여
		자원봉사참여

〈표 1-3-1〉 계속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문화·여가	문화활동	문화생활용품 및 시설의 보급
		문화활동기회의 향유
		매스컴에 대한 인식
	여가활동	공원과 휴양지
		여가시설수준
		체육시설
		여가활용도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용비
공안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주요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범죄
		범죄피해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교통사고
		화재
	사회의 안녕도	국가의 안전
		준법수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관장하는 관공서에 대한 신뢰도
	보안능력	범죄방지
		교도능력
	법적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법적 공정성
		피해자 보호 및 변호
	안녕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안녕감

第3節 社會指標體系改編의 基本方向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30여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인 금년에 1인당 국민소득 萬弗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만불 소득달성은 그동안 우리경제가 개도국·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입하기 위한 문턱에 겨우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즉, 빠른 量的 成長過程에서 相對的으로 소홀했던 國民生活의 安全과 삶의 質的 水準 향상미흡, 部門間的 成長隔差 持續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先進國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나 21세기 경쟁여건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전망이다.

예를들면, WTO체제 정착으로 국경없는 無限競爭時代가 전개되고 있으며, 정보화로 地球村化와 함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욕구도 단순한 성장보다는 삶의 質 향상과 衡平性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정세속에서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회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1978년에 成案된 우리나라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에 일차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1987년에 개편된 지표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社會指標體系의 改編이 必要한 實情이다. 기존지표체계는 구체적인 指標項目에 있어서 각 部門別 均衡이 잡혀있지 않았다. 즉 『雇傭 및 勞使』部門領域의 지표항목의 비중이 큰 반면 社會部門의 項目數는 여러영역에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동시에 社會保障 및 時間利用에 관한 항목들이 등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지표체계의 再整備와 함께 지표항목의 조정, 지표항목중 부분적인 성격을 띤 것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福祉指標的 項目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福祉水準의

測定이라는 지표의 특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⁷⁾.

또한 급속한 社會經濟的 與件變化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發展方向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國民의 關心度에 副應하며 둘째, 地方化 時代에 대비하고 셋째, 世界化·情報化 시대에 대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1. 國民의 關心度에 副應하는 指標體系의 開發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經濟社會構造의 多樣化 및 高度化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난날의 物質的이고 量的 成長 爲主에서 이제는 全般的인 福祉水準의 向上뿐만 아니라, 個人生活, 家庭生活, 精神文化, 交通·通信, 環境, 社會의 安全 등 삶의 質的 向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사회적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未來指向의 指標體系의 개발이 요구된다.

2. 地方自治時代에 對備한 地域指標의 開發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향후 廣域自治團體는 물론 基礎自治團體인 區, 市, 郡 單位에서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지표수의 규모,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마다 상호 비교가능한 사회지표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準據들이 될 수 있는 社會指標體系의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통해 地域社會指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標準指標의 開發이 요구된다.

37) 강동식, “『사회지표』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집, 1991.

3. 世界化에 對備한 指標體系의 開發

우리나라는 새로운 國際秩序를 형성하는 급속한 國際環境變化에 직면하고 있다. 1994년 多者間 우루과이 라운드(UR)의 妥結, 1995년 WTO體制의 出帆, 1996년 OECD 加入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지표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4. 情報化時代에 대비한 指標體系의 開發

PC의 大衆化, CATV와 같은 情報媒體의 多樣化와 超高速情報網의 構築으로 情報化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在宅勤務, 畫像會議 및 遠隔診療 등 국민의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보화 사회의 변동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지표체계개편의 基本方向은 (1) 21세기를 향한 국민의 관심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社會指標體系의 部門數를 擴大하고, 지표의 理論的 基盤을 확고히 하며 각종 특정 분야별 지표체계와의 連繫性을 提高하고, (2) 地方自治 時代에 따른 지역별 사회지표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며, (3) 世界化 政策推進에 유용하고 情報化 社會에 對備하는 指標體系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第4節 研究方法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事業은 본연구에서 제안한 바 있는 13개 부문별로 실시되었다. 각 부문별로 2-3명의 院內外 專門家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선정하여 部門別 指標開發과 그 結果를 執筆토록 하였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내에 社會指標體系改編을 위한 專擔 研

究班을 常設機構로 運營하여 各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다. 또한, 斯界의 權威者 6명으로 구성된 諮問委員會는 研究의 基本方向 設定, 14個 部門間 指標內容의 調整, 中間 및 最終 研究結果의 檢討 등 사업 전반에 걸친 諮問 및 調整業務를 담당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國內外 社會指標의 體系에 관한 各種 資料를 蒐集·分析하고, 社會指標의 概念, 定義 및 機能에 관한 理論的 考察을 하였으며, 社會指標의 開發動向, 內容 및 構成體系 등에 관한 國內外 文獻檢討와 더불어, 各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分野別 指標의 作成現況 및 作成體系를 파악하여 개별지표의 개발에 참고로 하였다. 이처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개별지표의 작성, 자문위원회 의 운영, 국내외 문헌고찰, 관련지표에 대한 자료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별지표는 수차에 걸친 政策懇談會와 政策協議會에서 各계 專門家, 研究陣, 政府關係官과의 意見交換을 통해 확정되었다.

第4章 社會指標體系的改編內容

第1節 新社會指標體系的改編概要

國際機關 및 外國의 指標體系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社會指標體系를 개편하였다. 특히 SSDS체계와 OECD체계를 원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改編案으로 제시한 社會指標體系를 部門別로 요약하면 <表 1-4-1>과 같다. 총 526개(총 553개에서 부문별로 중복 제시된 27개를 뺀 것임)의 個別指標로 구성된 사회지표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문별로 본 연구보고서의 第2卷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의 구체적인 개별지표는 第5章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 定義 및 算式, 集計項目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편안의 체계만을 <表 1-4-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第2節 新社會指標體系的特徵

1. 理論的이고 均衡的인 指標體系

본 연구에서 수행한 『韓國의 社會指標』의 體系改編은 ‘社會關心 接近方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첫번째 단계는 國民의 關心을 반영할 수 있도록 ‘社會的 關心’(본 연구에서는 部門)을 설정하는 일이며, 다음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는 일이다. 세부관심영역속에 개별지표를 두어 실제 資料를 통해 現實을 반영토록 하였다. 즉 全體體系에 있어서 部門의 設定은 斯界의 權威者로 구성된 諮問委員會를 통하여 도출되었고, 體系構造로서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은 각 부문의

〈表 1-4-1〉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 比較

기존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 인구	4	17	46 (5)
2. 소득·소비	5	10	30 (5)
3. 고용·노사	7	19	108(16)
4. 교육	4	12	64(15)
5. 보건	4	19	48 (5)
6. 주택·환경	3	9	54 (9)
7. 사회	6	16	41 (9)
8. 문화·여가	2	9	31 (6)
9. 공안	6	15	51 (7)
합 계	41	126	473(77)

신지표체계 부문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신규지표	장래개발 지표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1. 인구	6	14	44 (5)	9	5	39
2. 가족	5	16	43 (13)	18	1	42
3. 소득과 소비	5	12	41 (4)	14	2	39
4. 노동	5	13	62 (5)	15	22	40
5. 교육	3	7	43 (10)	6	6	37
6. 보건	7	21	50 (4)	20	14	36
7. 주거와 교통	4	10	51 (7)	15	7	44
8. 정보와 통신	5	8	28 (3)	24	7	21
9. 환경	4	7	31 (2)	22	5	26
10. 복지	4	11	43 (5)	31	7	36
11. 문화와 여가	3	8	34 (8)	10	2	32
12. 안전	5	14	55 (13)	25	4	51
13. 정부와 사회참여	3	9	28 (12)	17	0	28
합 계	59	150	553(91)	226	82	471

註: ()는 주관적 지표, 총 개별지표 553개중 27개는 중복되어 제시되었음.

〈表 1-4-2〉 1995년도 改編案에 의한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부 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추세
		장래인구
	인구구성	연령별인구
		성별인구
		혼인특성별 인구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도시인구
	출생	출산율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자녀수와 성선택
	사망	사망률
		기대여명
가족	인구이동	국내이동
		국제이동
	가족구성	가구구성
		가족의 크기
		가족형태
	가족형성	혼인
		자녀출산
		가족의 해체
	가족생활	주거 및 주택환경
		가구소득 및 지출
		생활안정
		문화생활
	가족문제	노인의 가족생활
		청소년 및 취약가구

〈表 1-4-2〉 계속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소득과 소비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가계의 중요성
		가족생활선호
		여성의 역할
	소득수준	소득
		소득원천
		지역내 총생산
	소비수준	소비규모
		소비지출
	저축·투자 및 재산	저축 및 투자수준
		저축생활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분배상태
		조세부담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소비의 안정
노동	고용·인력개발	취업
		실업
		직업안정
		인력개발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안전보호	산재예방
		재해발생
	차별대우	성차별대우
교육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 수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자원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제정의 확보 및 활용

〈表 1-4-2〉 계속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보건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
		교육의 인력양성
	건강상태	생존년수
		체격
		구강보건
		개인건강평가
		보건의식행태
	사망	사망수준
		사망원인
	상병	질병
		부상
		상병평가
	영양	영양섭취
		식품소비
	보건의료이용	예방
		이용
		의료서비스충족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국민의료비
	보건의료기술	장기이식
		의료보장구이식
		장비보유현황
주거와 교통	주거상태	주택공급과 수요
		주거비용
		주거이동
	주거의 질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비용
	교통의 질	교통편의
		교통운행의 질

〈表 1-4-2〉 계속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정보와 통신	정보화 기반조성	연구개발활동
	정보관련 인력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정보화 정도	PC 보유 및 이용
		통신 서비스 이용
		방송정보 서비스 이용
		전산망 확충
	정보관련 지출	정보관련지출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화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
환경	녹색GDP	녹색GDP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연자원의 이용
	환경영향	환경의 질
		자연자원 보존량 (생물다양성)
	환경관리	환경관련지출
		환경관리노력
복지	복지증진	복지자원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보험	의료보장
		공적연금
	공적부조	자원
		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문화생활용품 공급
		매스컴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문화활동기회향유
	여가활용	관광·여행
		여가 및 체육활동
		시간배분
	문화의식	문화의식

〈表 1-4-2〉 계속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범죄로 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범죄피해
	범죄의 방지 및 교도 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범죄방지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화재 및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
		기타사고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
정부와 사회참여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정치참여	정치참여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정부	행정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研究陣에 의하여 外國과 既存의 分野別 指標體系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체계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既存指標體系는 <表 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個 部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改編體系는 13個 部門으로 擴大되었다. 이것은 脆弱 部門을 보완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간의 우리 經濟社會의 發展趨勢와 發展方向에 걸맞게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에 있어서도 이러한 關心領域을 반영시키려는 뜻이다. 예를 들면, 國民의 關心事로서 그동안 經濟優先主義下에서 상대적으로 國民의 관심이 낮았던 관계로 극히 일

부만 포함되어 왔거나 현행 체계에서 제외된 情報·通信, 家族, 福祉 등의 部門을 新設하고, 環境部門은 분리하여 새로운 부문으로 포함함으로써 先進國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이들 부문에 대한 國民의 關心이 增大하고 있는 現象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을 調整·補完하였다. 관심 영역은 총 41개에서 59개로, 세부관심영역은 126개에서 150개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個別指標數는 총 526개(총 553개에서 부문별로 중복제시된 27개를 뺀 것임)로 既存案의 473개에 비하여 약 11.2% 증가하였다. 총 526개의 개별지표중 신규지표는 217개(신규지표 226개중 9개는 중복됨)로 41%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체계에서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는 대신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설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지표를 대폭 첨가하였다(第5章 A 참조).

〈表 1-4-3〉 既存指標體系와 新指標體系의 部門 比較

1978년 체계	현재의 체계 (1차개편)	개편 체계 (2차개편)
<8개부문>	<9개부문>	<13개 부문>
1. 인구	1. 인구	1. 인구 2. 가족(신설)
2. 소득·소비	2. 소득·소비	3. 소득과 소비
3. 고용·노사	3. 고용·노사	4. 노동
4. 교육	4. 교육	5. 교육
5. 보건	5. 보건	6. 보건
6. 주택·환경	6. 주택·환경	7. 주거와 교통 8. 정보와 통신(신설) 9. 환경(분리)
7. 사회	7. 사회	10. 복지 (신설)
	8. 문화·여가(신설)	11. 문화와 여가
8. 공안	9. 공안	12. 안전
		13. 정부와 사회참여(신설)

아울러 각 부문별로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를 再構成하거나 또는 新規로 追加하여 個別指標의 聯關性을 증대시켰으며, 이때 부문간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部門間의 比重에 있어서 대체로 均衡的으로 되었다. <表 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지표체계에 있어서는 부문별 개별 지표수에 있어서 『雇傭·勞使』部門의 개별지표수가 108개로서 전체의 23.4%나 차지하여 타 부문에 비해 偏重되어 있는 반면에 改編體系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均衡잡힌 體系가 되었다.

2. 可用統計資料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指標體系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社會指標에 대한 定義와 機能의 輪廓을 설정하여 社會的 價値와 目標을 나타내고 個人的 福祉와 國民福祉를 측정한다고 추상적으로 말하기 쉬우나, 이를 統計, 統計系列 및 다른 形態의 證據로써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實務的인 과제이다. 만약 무엇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理論的 根據가 確立되어 있다면 社會指標의 理論的 틀(framework)을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經濟指標가 經濟理論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社會指標의 경우 窮極的으로 나타내려는 것과 그 構造的 體系에 대한 定義와 理論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社會指標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基本的 및 高次元의 欲求와 必要는 한 시점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時間의 흐름에 따라 變化가 크기 때문이다.

理論적으로 정립된 社會指標體系가 實用化되려면 計數化될 수 있는 公式로 定義되고 橫斷面과 時系列의 統計 資料로서 計數化되어야 한다. 社會指標가 되는 통계자료의 主 源泉(sources)은 政府 및 民間

統計機關에 의하여 실시되는 全數調査, 標本調査 및 報告統計가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규모의 社會統計調査가 社會指標의 계수화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립된 社會指標體系에 計數的 實體를 完璧하게 提供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統計生産 體系가 상당한 質的 水準에 이르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既存 統計資料가 과거에 비해서는 커다란 改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며 信憑性이 낮기 때문에, 社會指標體系에 統計的 實體를 갖추는 것이 이론적인 체계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可用統計 資料의 範圍內에서 관련된 社會統計를 拔萃하여 社會指標로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용자로 하여금 社會指標에 대한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拔萃된 社會統計만 가지고는 既編制된 社會指標體系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社會的 價値와 目標나 社會的 關心事를 構造的 體系로서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社會指標의 研究者가 요구하는 통계와 통계생산자가 제공할 수 있는 통계는 차이가 있어 社會指標의 分析的으로나 政策立案에 利用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可用資料의 不足은 短時間內에 解決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第5章 B와 C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가용통계자료중심으로 작성된 지표체계와 비록 현재에는 자료생산이 불가능하지만(신뢰도가 떨어지는 지표포함) 장래 개발해야 할 指標를 별도의 지표체계로서 보고하고 있다. 총 526개의 개별지표중 단시간내에 믿을 만한 자료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지표는 445개이다(471개중 중복 제시되고 있는 개별지표 26개를 뺀 숫자임). 부문별 연구진에 의해 제시된 526개의 개별지표의 15.4%인 81개는(82개에서 중복되는 개별지표 1개

를 뺀 숫자임) 장래 개발지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未來指標은 國民의 關心內容을 資料의 制約에도 불구하고 擴張하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며, 향후 사회지표 연구자와 통계생산자 양자간의 相互理解와 合心된 努力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3. 個別指標 選定과 統計的 定義, 算式, 用語解説의 補完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각종 個別指標은 時宜性, 活用性, 國民의 關心度, 資料蒐集 可能性 및 時系列 維持 등을 고려하여 追加, 削除, 補完 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定義, 算式, 用語解説을 검토·보완하였다. 즉 사회지표는 第1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既存의 統計와는 상당히 다른 몇가지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特性을 충분히 고려하여 指標化를 하였다. 이러한 社會指標의 特性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며, 진보와 퇴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規範的인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部分的인 情報가 아니라 삶의 全體體系에 관한 情報提供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個人水準에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삶의 질의 時系列的인 變化의 傾向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별지표와 지표체계가 상당히 安定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개별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個別指標의 定義, 算式, 用語解説을 보완하여 第6章에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業務擔當者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계수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主觀的 指標의 大幅的인 擴大

社會指標研究와 관련되어 중요한 爭點의 하나는 설정된 영역별 社會的 條件의 水準測定에 있어서 客觀的 水準만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

면 主觀的 水準의 測定(Subjective Measuring)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經濟·社會·文化的 背景 및 規範的 要因에 의해서 주관적인 滿足度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수준의 측정은 무시될 수 없는 측면이다. 따라서 主觀的인 指標項目은 設定 및 測定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사회지표 속에 주관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相互 補完的이며 主觀的 指標가 客觀的 指標에 대한 補充的 情報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사회지표가 어떻게 連繫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主觀的 指標는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施設과 資源이 國民自身的 生活에 진심으로 원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와 일치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人間의 幸福과 滿足을 증가시키는 데 重要的 要素는 무엇인지, 또한 經濟的 成長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指標體系에서는 價值觀, 滿足度, 意識 등 主觀的·心理的인 指標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개발된 주관적 지표는 총 89개(91개중 2개 중복)로, 총개별지표의 약 17%에 이른다(第5章 D 참조).

5. 特定集團別(女性·老人·靑少年·障礙人) 指標體系를 別途로 提示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는 個人은 물론 개인이 속해 있는 集團, 나아가서 社會全體의 삶의 質을 총체적이며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尺度로서 國民의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靑少年·장애인과 같은 下部集團의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표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가 여성·

노인·청소년·장애인의 삶의 질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部門에 分離되어 提示되고 있기 때문에 女性·老人·靑少年·障礙人集團에 관심이 많은 경우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지표를 하나 하나 찾아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집단을 위하여 別途의 指標體系를 제시함으로써 각 집단의 問題와 狀態를 나타내는 社會報告의 機能을 통해 政策立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집단별 삶의 질을 보다 容易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또한 女性의 社會參與 擴大, 老人人口의 增加, 靑少年問題, 障礙人福祉 등 각 집단이 가지는 固有한 領域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에 관한 지표를 각 부문에서 추출하여 再整理하였다(第5章 E 참조).

6. 國際比較 指標 (南北韓 比較指標 包含)의 擴充

韓國人の 삶의 질에 대한 國際比較는 특히 金泳三大統領이 1995년 3월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 이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선언이란 공업화·근대화시대의 구각을 깨고 情報化·世界化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意識·慣行·制度를 재구축함으로써 우리 民族이 21世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구상이다. 이러한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經濟는 지난 30여년동안 연평균 8%이상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면서 금년중에 國民 1人當 所得이 1만달러를 달성하고 全體 經濟規模도 세계 1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근 統計廳에서 발표한 『統計로 본 OECD 國家와 韓國』(통계청, 1995)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所得分配, 保健醫療(人口 對比 醫師數), 教育(學生 對比 敎員數), 社會保障, 環境, 物價水準 등 生活水準의 質의인面에서 세계수준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이며, 아울러

國際經營開發研究院의 『95年 國家競爭力 報告書』(IMD, 1995)³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 32위로서 經濟水準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國際比較 指標體系에서는 우선적으로 國際比較가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北韓 關聯 指標도 이곳에 수록함으로써 南北韓 사이의 人口, 家族, 經濟, 保健, 福祉水準 등의 比較도 본 國際比較 指標體系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第5章 F 참조).

7. 社會指標體系와 分野別 指標體系와의 連繫性 提高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分野別 指標體系 開發은 該當分野의 專門家가 主對象이기 때문에 너무 專門的이고 深層的인 傾向으로 흐르기 쉬운 반면 우리사회의 全般的인 發展程度를 나타내는 데에는 오히려 社會指標體系가 보다 包括的인 接近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政府機關이나 研究機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작성하고 있는 분야별 지표체계와 『韓國의 社會指標』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표체계를 『韓國의 사회지표』 체계와 比較·分析하여 重要하고 包括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個別指標는 사회지표체계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部門別 研究陣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文化와 餘暇』部門의 경우 韓國文化政策開發院에서 작성하고 있는 ‘文化藝術統計資料集’을 검토하여 一般 國民의 關心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표는 사회지표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情報와 通信』部門 역시 情報通信部에서 개발한 ‘情報通信産業 分類表’, 김광웅교수의 ‘情報化指標’³⁹⁾ 등을 검토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는 본 체계에 포함시

38) World Economic Forum and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켰다. 또한 『福祉』部門 역시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개발한 『社會福祉指標』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部門別 報告書 作成에 참고하였다.

한편 分野別 指標體系와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와의 連繫性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문별 보고서 작성시 참고한 분야별 지표체계를 本文과 參考文獻에 收錄해 놓았기 때문에, 보다 專門的이고 深層的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 경우 이를 參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地域社會指標의 標準體系로서의 機能

地方自治制의 實施에 따라 市·道 및 市·郡·區 單位의 독자적인 社會指標의 開發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단위의 自律的인 事業計劃 樹立과 評價目的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比較分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地域指標의 無分別한 開發은 지표의 정의, 작성기준 등의 차이에 따른 混亂이 예상되므로 地域社會 指標體系의 개발과 작성에 『韓國의 社會指標』의 體系가 標準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타지역과의 比較가 可能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共通되는 概念들을 사용하고, (2) 定立된 定義와 統計의 方法과 產出公式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데이터가 비교가능한 대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比較할 수 없는 指標들을 비교할 때 잘못된 結論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가 地域單位 指標開發을 희망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社會指標 體系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통되는 개념들을 사용하게 하고, 指標作成에 있어서도 基準, 定義, 算式 등에서의 統一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指標作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 유의점, 문제점 등을 교육함으로써 統計廳이 主導的으로 지역 사회지표 개발을

39) 김광웅, 정보통신정책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92 통신학술연구과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

先導해 나가도록 한다. 다만, 지역사회에 固有한 特性이 地域單位 社會指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指標體系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柔軟하게 對處할 필요가 있다.

第3節 部門別 改編方向과 改編內容

1. 『人口』 部門

1987년 사회지표의 개편이래 지속적인 出產水準의 減少와 死亡率의 低下, 인구집중의 지속, 자녀관이나 윤리의식의 변화와 상실, 노동력인구의 감소와 부족, 노인인구의 증가와 대책문제, 성비의 불균형과 결혼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항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社會指標에 반영될 수 있도록 人口部門을 개편하였다.

1977년의 최초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의 개별지표 부터 쌓아온 시계열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지표의 나열식을 지양하고 지표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간의 자료이용성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재분류를 하였다. 人口部門을 크게 정태인구와 동태인구로 구분하여 전자에 人口의 規模와 構造에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키고, 후자에는 인구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人口部門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인구, 인구구성 및 인구분포가 정태인구의 분류에 속할 수 있는 關心領域으로 설정되었고, 인구변화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이 동태인구에 속하는 關心領域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1987년 案(기존안)에 포함되었던 북한 인구는 앞으로 만들어질 北韓關聯指標에 포함하기로 하고 新指標體系에서는 削除하였다.

또한, 人口部門의 특성상 主觀的 指標은 5개로 타부분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지표수와 성선히를 살펴보는 '이상 자녀수'와 '자녀수에 대한 의식'의 2개 지표와 이민에 관한 '지난 1년간 이주의 원인별 구성비',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등의 3개 지표가 인구부문에 포함된 주관적 지표이다.

요약하면, 기존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이 「총인구성장」, 「출생과 사망구조」, 「인구분포와 이동」, 「인구구성」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總人口」, 「人口構成」, 「人口分布」, 「出生」, 「死亡」, 「人口移動」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관심영역은 1987년 체계의 17개 영역중 북한인구, 가구 및 가족구성 등 2개 영역을 삭제하고, 자연증가, 순재생산을 등 2개 領域을 다른 領域에 統合하였으며, 연령별 인구와 성별 인구를 新規領域으로 추가하여 新體系의 細部關心領域을 14개로 하였다. 개별지표수는 기존안의 26개에서 44개로 증대되었다.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은 9개이며, 主觀的 指標은 5개이다.

2. 『家族』部門

家族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既存體系에서 『社會』部門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家族에 관한 지표들이 개편안에서는 『家族』이라는 독립된 部門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체계중 家族과 관련성이 약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생활안정 및 보호」와 「사회계층」부문의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 속한 家族관련 項目들을 統合 調整하여 『家族』部門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가족부문의 체계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既存體系가 家族問題에 비중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신체계는 가족생활의 포괄적인 이해와 파악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즉, 현재의 가족지표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家族을 사회문제의 시각에서 보는

데서 탈피하기 위하여 가족의 현상과 문제를 나누었고, 객관적인 현상의 파악과 주관적인 규범적 관심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현상은 「家族構造」, 「家族形成」, 「家族生活」의 영역으로, 그리고 규범은 「家族問題」와 「家族規範」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즉 5개의 관심영역으로 나누어 家族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시도하였다. 관심영역의 수에서는 기존안과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안의 지표체계는 關心領域-細部關心領域-個別指標의 연관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 사이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거나, 관심영역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個別指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 결여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細部關心領域과 個別指標가 재구성되거나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體系성과 包括性の 增大와 더불어 主觀的 指標의 증대가 신지표체계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5개의 主觀的 指標가 13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 노인부양의 문제, 부부관계 등 가족의 많은 부문이 주어진 사회의 規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범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新體系에서는 主觀的인 指標의 설정을 통해서 그러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존안에서는 關心領域이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구조의 안정성, 가족관계의 원활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보호, 사회계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체계에서는 「가족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규범」 등의 5개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細部關心領域은 가족생활과 가족규범에 대한 細部關心領域 등을 추가함으로써 細部關心領域 수가 16개로 증대하였다. 個別指標는 27개에서 43개로 대폭증가 하였으며,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는 18개이다. 43개의 개별지표중 주관적 지

표는 13개로 약 1/3정도 된다. 이는 기존안의 10개 細部關心領域과 27개의 個別指標에 비교할 때 팔목할 만한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3. 『所得과 消費』部門

所得과 消費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나타낸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개개인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고용 및 소득·소비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의 확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신체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편된 『所得과 消費』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指標體系를 所得-消費-貯蓄-租稅·財政-分配라는 巨視經濟의 틀에 의거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부문의 體系性을 증대시켰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地方化時代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投資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항목을 보강하였다. 셋째, 부문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취약한 영역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財産은 그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조사나 자료획득이 용이하지는 않더라도 未來開發指標로서 개발하도록 하였고, 所得部分이 미흡하므로 보강하여 分配部分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안에서는 소득수준, 소득분배, 소비수준, 저축수준, 경제적 생활의 안정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체계에서는 「소득수준」, 「소비수준」, 「저축·투자 및 재산형성」,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의 5개 관심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세부관심영역은 지역내 총생산과 조세부담을 추가하여 기존의 10개에서 12개로 증대되었고 개별지표는 30개에서 41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기존안이나 현행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4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4개이다.

4. 『勞動』部門

우리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노동의 중심이 그간의 노사관계로부터 고용 및 인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부분의 명칭을 『雇傭·勞使』에서 『勞動』으로 바꾸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 國際化·世界化에 부응하는 노동력 활용 및 근로의 질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指標體系改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産業構造急變으로 인한 勞動需給間 不一致解消,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직업안정·직업훈련분야의 지표개선, 고용보험실시(1995. 7)에 따른 效果指標를 추가하도록 기존안을 개선하였다.

新指標體系를 구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개별지표를 대폭 삭제하였다. 기존안의 『雇傭·勞使』部門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개별지표의 갯수가 너무 많아서 타부문과의 均衡을 깨뜨리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면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指標를 補充하되, 기존의 個別指標의 수는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둘째로, 關心領域을 재정비하였다. 既存體系에서는 별도의 관심영역으로 설정되었던 「雇傭構造」와 「職業選擇과 移動」과 「근로자 자기개발」을 통합하여 「雇傭·人力開發」이라는 하나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차별 대우」는 「差別待遇」로, 「안전보호」는 「産業安全」으로 명칭을 바꾸어 좀 더 명료한 관심영역 명칭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新指標體系는 7개의 관심영에서 2개 축소된 5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細部關心領域에서도 영역의 축소 및 조정이 이루어져, 세부관심영역의 수가 19에서 13개로 축소되었다. 既存體系에서는 「노동이동」과 「직

산출할 수 없는 지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시의 적절하지 못한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안은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의 효과, 교육의식의 4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식은 다른 3개의 領域에 흡수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 개별지표를 이러한 3개 영역에 적절히 재배치하였다. 세 영역은 「교육 기회」, 「교육 자원」, 그리고 「교육의 효과」로, 이는 교육의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가 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에 투자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투입의 양과 질, 그리고 교육 환경에 투자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關心領域의 축소와 더불어 細部關心領域도 축소되었다. 교육기회중 교육기회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細部關心領域으로 통합하였고, 교육효과는 기존에는 4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신체계에서는 「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안의 12개의 細部關心領域은 7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個別指標는 기존의 64개에서 43개로 감소되었다. 기존안이나 현행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6개이며, 43개의 개별지표중 주관적 지표는 10개이다.

6. 『保健』部門

1987년 社會指標體系의 개편이래 보건·의료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병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증대,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변화는 특히 의료부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제반

변화에 상응하도록 보건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첫째, 關心領域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지표체계는 관심영역이 건강상태, 사망 및 질병,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이용 등의 4개로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부문의 지표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관심영역을 4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체계에서는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되었던 영양섭취 및 식품소비 는 별개의 관심영역(영양)으로 설정하여 중요성의 증대를 반영하였으며, 질병과 사망은 분리하여 별도의 관심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부문을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추가하였다. 즉, 보건부문에서 장래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심영역을 「건강상태」, 「사망」, 「상병」, 「영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기술」의 7개로 구분하였다.

둘째로, 個別指標를 調整·補完하였다. 個別指標에 있어서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指標가 부족하므로 추가하였다. 반면 시의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指標들은 대폭 削除하였다. 예로서 기생충감염률 및 나환자등록수 등은 과거보다 향상된 우리나라의 현 保健醫療의 水準을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削除하였다. 또한 산전진찰률, 분만개조자별 구성비, 1차의료장소, 지역의료시설방문회수등은 변화된 보건의료실정하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한 指標로 생각되어 削除하였다.

요약하면, 新體系에서 關心領域은 기존의 4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細部關心領域은 19개에서 2개가 증가한 21개로 되었다. 총 50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40%인 20개가 신규지표이며 4개는 주관적 지표이다.

7. 『住居와 交通』 部門

그동안 주택부문이 공급확대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왔으

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서 복지의 한 측면으로서의 주택이 갖는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복지의 척도로서 주거부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지표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투자는 주로 생산활동을 지지하고 진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추세와 더불어 '삶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서 교통시설의 공급 및 교통시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부문의 독자적인 사회지표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통부문의 양적 및 질적 지표는 사회복지의 한 척도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안의 「住宅·環境」部門을 「住居와 交通」部門과 「環境」部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중 「環境」部門은 별도의 部門으로 신설하였다. 기존안의 주택부문에는 주거상태라는 단 1개의 關心領域이 설정되어 있어서 住居部門에 대한 包括的인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신체계는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이라는 2개의 關心領域을 설정함으로써 주거의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住居狀態라고 하는 關心領域에는 「주택공급과 수요」, 「주거비용」, 「주거이동」이라는 3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고, 주거의 질에서는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의 3개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交通部門 또한 「교통시설」과 「교통의 질」이라고 하는 2개의 關心領域을 설정하였다. 교통시설은 「교통수단」과 「교통비용」이라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으며, 「교통의 질」은 「교통편의」와 「교통운행의 질」이라는 2개의 細部關心領域을 두었다. 기존안에서 주택의 인근편의시설이라는 細部關心領域으로 분류되었던 個別指標들이 新體系에서는 교통편의라고 하는 細部關心領域에 포함되어있다.

요약하면, 전반적인 체계의 수정에 기초하여 4개의 관심영역과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설정되었고 개별지표는 51개이다. 51개의 개별지표 중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지표는 15개이며, 주관적 지표는 7개이다.

8. 『情報와 通信』 部門

정보화라고 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와 통신』부문을 신설하였다. 본 부문은 情報化 기반조성과 情報化 실태를 파악하고 情報化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體系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성에 있어서는 韓國의 社會指標에 수록할 情報·通信指標는 그 수가 많지 않고 産業의 情報化와 個別生活의 情報化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情報의 수요(소비)적 측면과 공급(생산)적 측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때 정책평가형 指標 開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情報·通信』부문의 體系는 「情報化 基盤造成」, 「情報關聯 人力」, 「情報化 程度」, 「情報관련 支出」, 「情報化에 대한 認識」등의 5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情報化 基盤造成」에서는 情報化 時代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硏究開發實態와 情報通信 서비스 인력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情報化 정도는 4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情報化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情報通信事業의 분류표에 기초하여 「PC보유 및 이용」, 「通信 서비스 이용」 및 「방송 서비스 이용」 등의 3개의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다. 한편, 공동생활의 情報化를 측정하기 위하여 醫療業務 情報化, 流通部門 情報化, 金融 情報化, 文化 情報化 등을 살펴볼 수 있는 「電算網 擴充」이라는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情報化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情報化는 成長段階이므로 情報化에 대하여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이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細部 關心領域인 「情報化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情報와 通信』부문은 5개의 關心領域과 7개의 細部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별지표는 총 28개이며 신규지표가 24개로 개별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3개가 主觀的 指標로 정보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9. 『環境』 部門

國際的인 압력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화되고 있는 國內의 環境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기존안에서는 『住宅·環境』部門에서 미미하게 파악되었던 환경관련 지표들이 『環境』이라는 부문으로 독립되었다.

自然環境에 관한 자료나 環境汚染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나, 그런 자료들이 조각조각 산재해 있으므로 그런 資料들을 의미있게 체계화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관련 사회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흩어져 있는 기존의 환경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活用하여 體系化하도록 하였다. 종래의 環境관련 社會指標는 環境壓力指標와 環境影響指標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계는 이 두 가지 指標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持續可能開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21세기 지구환경안전 강령은 녹색GNP를 開發하고 指標化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존의 環境關聯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안에서는 단지 3개의 개별지표만 있었으나, 新體系에서는 「녹색

GDP, 「환경압력」, 「환경영향」, 「환경관리」 등의 4개의 관심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녹색GDP」,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연자원의 이용」, 「환경의 질」, 「자연자원 보존량」, 「환경관련지출」, 「환경관리노력」이라고 하는 7개의 세부관심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총 31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2개는 주관적 지표이다. 개별지표의 2/3인 22개의 지표가 기존안이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지표이다.

10. 『福祉』 部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과 아울러 국가에서도 모든국민의 의식주와 건강·교육 등 기본생활에 있어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新指標體系에서는 『복지』부문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복지적 측면에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指標體系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社會保障制度의 3대축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關心領域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社會福祉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福祉水準을 나타낼 수 있도록 福祉增進이라 關心領域을 설정함으로써 총 4개의 關心領域을 두었다.

먼저 福祉增進領域에서는 「복지자원」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細部關心領域속에 7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社會保險領域에서는 「의료보장」과 「공적연금」이라는 細部關心領域속에 6개의 개별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公的扶助領域에서는 公的扶助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생활보호」라는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고 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社會福祉 서비스 영역에서는 社會福祉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인 「자원」, 그리고 서비스 대

상자별 분류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1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個別指標는 각 關心領域 및 細部關心領域을 반영하되 자료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福祉部門 指標體系를 보면 關心領域 4개, 細部關心領域이 11개, 개별지표수는 총 43개이다. 그중 주관적 지표는 5개이다. 이는 6개의 복지관련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던 1987년과 비교하여 보면 個別指標의 수와 포괄범위에서 커다란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新規指標이다.

11. 『문화와 餘暇』 部門

문화와 餘暇에 관한 指標가 指標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指標로서의 체계성과 함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환경의 變化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환경의 변화중 두드러지는 것은, 첫째, 國民들의 生活패턴이 크게 변화하여 개개인의 餘暇活動이 중요시되고 관광·여행, 체육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國民들의 文化藝術에 대한 향수욕구 증가와 맞물려 개개인이 향수욕구를 실제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최근 급격히 變化하고 있는 정보통신 고도화의 추세가 文化環境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뉴미디어 文化의 변화와 映像媒體의 중요성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넷째, 지방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地域文化의 발전과 지역의 文化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國際的 지위향상과 國際化의 급속한 진행으로 文化交流가 量的으로 확대되고 質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기존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정·보완하였다.

既存體系는 文化活動과 餘暇活動이라는 關心領域으로 2분화되어 있으며, 각 部門은 각각 구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關

心領域중의 하나인 문화부문은 지표설정에 있어서 불균형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신문잡지에 관한 지표가 불필요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文化生活의 중요부문을 점하는 예술분야, 스포츠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술, 스포츠분야에 관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균형잡힌 지표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既存體系에서는 여가활동으로 분류된 TV나 비디오감상을 문화활동영역으로 移動하여 살펴보았다.

새로운 文化部門 指標의 關心領域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文化藝術活動으로, 細部關心事項은 「문화예술 자원 및 이용」, 「文化生活用品 공급」,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문화활동 기회 향유」로 구분하였다. 이는 종래의 細部關心領域과 비교해볼 때 문화시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는 기존안에서 餘暇活用領域은 여행, 여가활동, TV로 집중되어 있다. 새로운 指標體系에서는 여행에 관한 細部關心領域을 「관광·여행」으로 하여 별도 관심영역으로 조정하였고, 체육에 대한 관심증대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여가활동을 「여가 및 체육활동」으로 세부관심영역을 변경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시간의 축적필요성이 대두되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지표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간배분」이라는 세부관심영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라는 흐름속에서 해외문화에 대한 국민의 態度와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態度와 그 變化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文化意識」이라는 關心領域을 설정하여 그러한 태도와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文化와 餘暇』 部門은 「문화예술활동」, 「여가 활용」, 「문화의식」이라고 하는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세부 관심영역과 34개의 個別指標를 포함하고 있다. 개선안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지표를 삭제하고 문화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별지표가

10개 포함되어 있으며 部門의 체계성을 증대시켰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主觀的 指標가 個別指標의 1/4인 8개로 증대되었다.

12. 『安全』 部門

生活水準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국민 전체 및 개개인의 ‘安全’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기존의 공안』부문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부문명칭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띄이는 변화이다. 既存의 體系의 『공안』부문이 신체계에서는 『안전』부문으로 부문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 바, 흔히 공공안전 또는 公的 安全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는 있으나, 북한 및 과거의 공산권과의 國際關係를 통하여 문민정부 이전에 인식되어 온 공안의 어감과 이미지를 감안하여 그 표현을 바꾸었다.

集約的인 指標에 의하여 集計項目의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個別指標의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운 個別指標들을 포함시켜 개별지표수는 기존의 51개에서 55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기존안이 나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지 않았던 新規指標가 25개이다. 또한 주관적 지표의 확충이 이루어져 기존의 7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다.

體系의 구성을 살펴보면 關心領域은 「기존체계의 안전도」,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등 4개에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라고 하는 關心領域이 추가되어 총 5개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社會的 관심이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細部關心領域은 기존의 15개에서 1개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新體系는 部門의 명칭을 『安全』으로 변경하였으며 5개의

關心領域과 14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고, 個別指標의 수는 55개로 그 중 主觀的 指標은 13개이다.

13. 『政府와 社會參與』 部門

개선안에서는 이 부문의 包括性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既存體系에서는 『社會』부문 아래서 「社會參與」로 협소하게 파악되고 있어, 국민의 삶의 質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넓은 분야인 정치, 행정, 재정의 세부문을 국민의 선거 투표라는 좁은 부분의 정치참여형태에 대한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經濟發展에 따른 社會的 變化 즉, 敎育水準의 향상, 민주화, 다원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社會參與에 대한 個別指標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地方化의 대두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包括的이고도 체계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新體系는 既存體系에서 동일한 관심영역으로 다루어졌던 정치와 사회를 분리하고, 행정·재정영역을 신설하여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부」의 3개의 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영역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와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등 3개의 細部關心領域을 기존의 「정치참여의 증가」에 추가하여 4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既存體系에서 사회참여영역안에서 개별적인 세부관심영역으로 파악되었던 社會團體參與, 宗教生活, 社會敎育參與, 自願奉仕參與들을 「社會參與」라고 하는 細部關心領域으로 一元化하였다. 또한 가족영역에 포함되었던 사회계층에 대한 指標들이 이 部門으로 이동하여 「사회참여」라고 하는 관심영역하에 두었다. 따라서 사회라는 關心領域은 「사회적 이동»,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등의 3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關心領域「정부」의 경우는 「행정」이라는 細部關心領域에서 공무원 수와 구성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재정」이라는 細部關心領域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구성을 살펴보고 있다.

요약하면 新體系는 3개의 關心領域과 9개의 細部關心領域, 28개의 個別指標로 구성되어 있다. 個別指標중 12개는 主觀的 指標이다. 28개의 指標의 절반이 넘는 17개가 기존안에서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新規指標이다. 既存의 17개의 個別指標에 비해 지표수가 많이 增加하였으며, 더불어 흩어져 있던 關心領域을 모아서 體系化하였다는 데 개선안의 특징이 있다.

第5章 社會指標體系 改編案

- A. 新社會指標體系에 따른 個別指標
- B. 生産 가능한 個別指標
- C. 將來開發指標
- D. 主觀的 指標
- E. 特定集團別 指標體系
- F. 國際比較

A. 新社會指標體系에 따른 個別指標

1. 人口 (관심영역=6개, 세부관심영역=14개, 개별지표=44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총인구	인구추세	총조사 인구
		연앙추계인구
		연평균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장래인구	장래추계인구
		장래자연증가율
		장래인구성장률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국민평균연령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성별 인구	지역별 출생시 성비
		지역 및 연령별 성비
	혼인상태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구성비)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도시인구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수도권 인구(구성비)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
출생	출산율	도시인구성장률의 요인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순재생산율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이수
		가족계획실행률
		연령별 및 합계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자녀수와 성선택	이상자녀수*
		자녀수에 대한 의식*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의 대한민국 거주 인구임.	성별, 총조사년도		
$P_t = P_0 + B \cdot D + IM - OM$ (조성법) 또는 $P_t = P_0 e^r$ (지수법)	성별, 매년		
$r = (1/n) \ln(P_t / P_0)$	연도별		
조출생률(총출생아수/ 총인구) - 조사망률(조사망자수/ 총인구)	연도별		
조성법에 의한 추계인구	성별, 매년		
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매년		
자연증가를 및 순해외이민율	매년		
구성비는 100분비	성별, 지역별, 총조사년도		
중위연령 또는 산출평균연령	성별, 지역별, 총조사년도		
유년부양비= $P(0-14)/P(15-64)$ 노년부양비= $P(65+)/P(15-64)$ 총부양비= $(P(0-14)+P(65+))/P(15-64)$	지역별, 총조사년도		
$P(65+)/P(0-14)$	지역별, 총조사년도		
지역별(출생남아수/ 출생여아수)	지역별	○	
지역 및 연령별(연령별 남자인구/ 연령별 여자인구)	지역별, 연령별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총조사년도		
-19, 20~21, 22~23, 24~25, 26~27, 28~29, 30+ (단위:세)	지역별, 성별, 연령별, 총조사년도, 교육수준별	○	
시도별 인구/ 전국 인구	성별, 총조사년도		
시읍면부별 인구/ 전국 인구	성별, 총조사년도		
시도별 인구/ 시도별 면적	총조사년도		
-10, 10~20, 20~50, 50~100, 100+ (단위:만명)	총조사년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총조사년도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5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총조사년도	○	
총성장, 자연성장, 인구이동	연도별		○
$ASFR_t = (B_t / P_t^{15-49}) \times 1,000$	지역별, 교육수준별, 조사년도별		
$TFR = n \sum ASFR_t$	지역별, 교육수준별, 조사년도별		
코호트별 실제출산율을 누적하여 연령별 및 합계출산율 산출	지역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	○
$MFR_t = (B_t / P_t^{15-49}) \times 1,000$	지역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	
$NRR = n \sum (ASFR_t \times (1 + 2.05) \times SR_{t-t-1})$	지역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
총출생아수/ 기혼부인수	지역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실천자수/ 기혼부인수	방법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AR_t = (A_t / P_t^{15-49}) \times 1,000$, $TAR = n \sum AR_t$	방법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AERI = (AEP_t) \times 1,000$	방법별, 교육수준별, 연령별	○	
주관적 지표: 이상자녀수-남, 여아로 나누어 조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		
주관적 지표: 태도를 자녀수별로 조사-무자녀, 한 자녀, 세자녀에 대한 의식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	○	

1. 人口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망	사망률	성·연령별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기대여명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내이동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지역별 전·출입자 현황(순이동 포함)
		지난 1년간 이주상태
		지난 1년간 이주의 원인별 구성비*
	국제이동	지역별 출입국 현황
		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해당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해당 인구수)×1,000	성별,연령별,연도별		
1990년 연령별 인구(표준인구)기준	성별,연령별,연도별,지역별	○	
$E_0, E_{15}, E_{25}, E_{40}, E_{65}$	성별,연령별,연도별		
$NMR_t = \{ (IM_t - OM_t) / P_t \} \times 100$	연도별,지역별,성별,연령별		
총 전·출입자에 대한 단위지역 전·출입자의 구성비	연도별,지역별,성별,연령별		
이주자의 구성비, 이주방향: 동일지역내, 도시·농촌간	연도별,지역별,성별,연령별		
주관적 지표: 이주이유-경제, 본인교육, 자녀교육, 천지결으로 등	연도별,지역별,성별,연령별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현장자료	국가별,목적별,성별,연령별		
주거목적 이동자에 국한	국가별,성별,연령별		
주관적 지표: 이민의사가 있다, 없다 (이민의사가 있는 경우 이유 조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주관적 지표: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서유럽, 일본, 기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2. 家族 (관심영역=5개, 세부관심영역=16개, 개별지표=43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구성	가구구성	총가구수
		평균가구원수
		가구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크기	평균동거가족원수
		평균출생아수
	가족형태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핵수별 분포		
가족형성	혼인	평균초혼연령
		조혼인율
		조재혼율
	자녀출산	첫자녀 출산연령
		기대 자녀수*
	가족의 해체	조이혼율
		이혼사유
가족생활	주거 및 주택환경	거주주택의 종류
		거주주택의 소유
		가구당 주거공간
	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소득분포
		가구지출구조
	생활안정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중요한 생활관심사*
		노후준비방법
	문화생활	가족여가활동현황
		가족의식빈도
가족생활용품현황		
가족문제	노인의 가족생활	노인가구 비율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노인의 가족내 역할
	청소년 및 취약가구	미성년가구 비율
		편부모 및 부모가 없는 친족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	
가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가구주 연령별, 지역별		
단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으로 구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가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단순동거인 포함)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	
조사당시 기혼부인의 평균출생아수	도시·농촌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친족가구대상,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으로 구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친족가구대상,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 준가족: 친족관계가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핵가족: 부부 또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 직계가족: 부부+남편의 부모, 부부+미혼자녀+남편의 부모 - 복합가족: 기혼방계친족이 동거하는 가족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친족가구 대상, 1핵, 2핵, 3핵 이상으로 구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	
15세 이상 5세 단계별로 계산됨(부족함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결혼율= (연간결혼건수/ 연앙인구)×100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또는 도시·농촌별		
재혼율= (연간재혼건수/ 연앙인구)×100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또는 도시·농촌별		
첫자녀 출산연령을 통해 가족확대기 시점을 파악함	연령별, 교육수준별, 도시·농촌별, 코호트별	○	
주관적 지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연간이혼건수/ 연앙인구)×100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 문제, 경제문제, 기타 동임	도시·농촌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일반, 아파트, 다세대, 기타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총사용건평/ 총가구수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족경제생활관련 기초지표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총소비지출, 식료품, 의식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육비, 교통·통신, 개인교통비, 기타소비, 잡비 등으로 구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주관적 지표: 매우 여유있다, 어느정도여유있다, 딱뚝한편이다, 부족한편이다, 매우부족한 편이다 등으로 조사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	
주관적 지표: 자녀양육, 자녀교육, 부부관계, 부모부양, 생활지정, 자기성취 등으로 관심사를 조사함.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	○	
연금, 보험, 저축, 부동산, 자녀 등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여행, 관광, 스포츠, 기타 빈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족형태별	○	
빈도: 주1회, 월1회, 3개월1회, 6개월1회, 거의 안한다 등으로 구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족형태별	○	
자가용 승용차, PC, Fax, 케이블 TV, 휴대폰 등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노인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며, 60세이상의 부인만 있거나 또는 60세이상의 부인과 18세미만의 미성년자와만 동거하는 경우	지역별		
1인 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비노인 부부가구, 기타	지역별	○	
노인이 실제 행하고 있는 역할을 조사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별	○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역별		
편부·편모가구, 조부모 동거가구, 기타 친척동거가구	지역별		
(여성가구주가구수/ 총가구수)×100	지역별, 연령별		

2. 家族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가계의 중요성	남아선호도*
		대잇기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선호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여성의 역할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주관적 지표: 누구나, 반드시, 구속불요, 여성경제력과 혼인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사유별, 자녀 유무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자녀유무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반드시, 가능한 한, 상관없음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아들, 친족중 양자, 기타 양자, 딸, 사위, 불필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핵가족, 확대가족, 무가족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아들동거, 자녀동거, 별거 아들부양, 자녀부양, 완전독립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동거, 일정기간 동거, 처음부터 별거, 별거후 부모 부양동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자녀유무, 자녀발달고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여성취업여부 고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 집계항목의 지역은 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구분 등 여러가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뜻함.

※ 코호트는 연령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所得과 消費 (관심영역=5개, 세부관심영역=12개, 개별지표=41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수준	소득	GDP 및 GNP
		1인당 GDP 및 1인당 GNP
		국민가처분소득
		개인가처분소득
		가구당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농가 월평균 소득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소득원천	소득원천별 구성비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GRP)
		1인당 GRP
		지역별 생산구조
소비수준	소비규모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1인당 소비지출액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소비지출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지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흑자율
저축·투자 및 재산	저축 및 투자수준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대외투자율
	저축생활	가계저축률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부채가구 비율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노동소득 분배율
		영업잉여
		순간접세
		소득10분위별 분포
	분배상태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 분배율)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률 비조세부담률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GDP, GNP	경상, 불변		
1인당GDP 및 GNP(원화표시)= 경상GDP 및 GNP(원화표시)/ 연앙인구 1인당GDP 및 GNP(달러화표시)= 1인당GDP 및 GNP(원화표시)/ 평균환율	원화표시와 미달러화표시		
국민가처분소득= 국민총생산 -고정자본소모 +대의순수취경상이전		○	
(개인소득 -직접세 -경상이전지급)/ 총인구 (참고 : 개인소득= 국민소득(좁은의미) -법인소득 -일반정부의 재산소득)			
총소득/ 가구수	지역별, 도시근로자·농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농가 월평균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농가가구소득/ 도시근로자가구소득)×100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	경상·불변, 지역별	○	
1인당 GRP = GRP/ 당해지역 인구	지역별	○	
지역내 총생산 생산구조	지역별	○	
(민간소비지출/ 국내총생산)×100			
민간소비지출/ 총인구			
내구소비재, 준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지출액/ 총가구수		○	
(항목별 가계소비지출/ 총가계지출)×100	도시·농촌별		
(내구소비재소비지출/ 총가구소득)×100	소득계층별		
{ 소비지출/ (소득 -비소비 지출)} ×100		○	
(1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100	소득계층별	○	
총저축률= {(국민총가처분소득 -총소비)/ 국민총가처분소득} ×100	민간정부		
(국내총자본형성/ 국민총가처분소득)×100		○	
(대의투자/ 국민총가처분소득)×100		○	
(총가계저축액/ 총가계수입)×100			
총금융자산/ 총가구수			○
(부채가 있는 가구수/ 총가구수)×100	지역별		○
{ (피용자보수 +대의순수취 피용자보수)/ 국민소득(좁은의미: NI) } ×100 국민소득(좁은의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간접세 -보조금		○	
(각 분위의 소득수준/ 전체 가구소득)×100	지역별		
10분위 분배율= 하위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비율/ 상위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비율	지역별		
주관적 지표: 매우균등함, 균등한편임, 그저그렇다, 불균등한편임, 매우불균등함			
주관적 지표: 소득수준에 비한 세금부과정도에 대한 인식-매우적게내고있음,적 게내는편임,적당한편임,많이내는편임,매우많이내고 있음,모르겠음			
(조세부담액/ 경상GNP)×100			
{ (조세이의 사회보험부담액 +제 공과금)/ 총수입 } ×100	소득계층별		

3. 所得과 消費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만족도*
	소비의 안정	소비자 물가지수 및 물가 상승률
		구매력 지수
		수입물가지수
		공공요금지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주관적 지표: 많이 나빠짐, 나빠짐, 전과 비슷, 나아짐, 많이 나아짐	교육정도별, 소득계층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함, 만족하는편임, 그저그렇다, 불만족한편임, 매우불만족함	교육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구매력지수= 1/ 소비자물가지수		○	
		○	
		○	
소비자 피해구제건수= 총피해구제건수/년	지역별, 처리결과별		

4. 勞動 (관심영역=5개, 세부관심영역=13개, 개별지표=62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고용·인력개발	취업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중 피용자율
		취업자 구성비
		대기업 근로자 비율
		고령취업자 구성비
		기혼여성취업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수 및 비율
		장기근속 비율
		상시취업율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자 비율
		재택근로자비율
		파견근로자비율
		여성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실업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직업안정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전직자 비율
		구인배율
		취업알선 비율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사업체 비율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고용안정기금수혜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실업급여수혜자 비율
	인력개발	고령자 재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 비율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직업훈련자수
		재훈련수료자 지수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100			
(피용자/ 취업자)×100			
(산업·직업별 취업자수/ 취업자)×100	산업별, 직업별		
(대기업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고령취업자/ 취업자수)×100			
(기혼여성취업자/ 여성취업자)×100			
(외국인근로자/ 총근로자수)×100		○	
(5년이상 근속 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상용고/ 총취업자수)×100			
(취업시간대별 파트타임 근로자수/ 근로자수)×100	성별, 산업별	○	○
(재택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	○
(파견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	○
(여성관리직 종사자/ 여성취업자)×100			
주관적 지표: 생계유지,가계보통,자기집일,적성활용,사회경험,시간활용, 사회기여,기타 등			
주관적 지표: 자녀유무,자녀발달을 고려			
(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평균실업기간(월)×실업자수/ 총실업자수	실업기간별,성별,교육정도별		
입직률= { 금월중입직자수/ (전월말근로자수+금월말근로자수)/2 } ×100			
이직률= { 금월중이직자수/ (전월말근로자수+금월말근로자수)/2 } ×100			
전직자(1년전과 현재의 근무처가 다른 사람)의 비율	산업별, 연령별, 전직별	○	○
(구인수/ 구직인수)×100			
(취업양산자수/ 구직인수)×100			
(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 총사업체수)×100		○	○
(고용보험가입자수/ 총취업자수)×100		○	○
		○	○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수/ 총사업체수)×100		○	○
(실업급여수혜자수/ 총실업자수)×100		○	○
(재고용/ 만기퇴직자)×100			○
(장애인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	○
(기능자격증소지자수/ 취업자)×100		○	
직업훈련자수			○
(재훈련수료자수/ 취업자)×100			○
(전직훈련수료자수/ 취업자)×100			○

4. 勞動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일수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임금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임금계층별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지수
		기본급 비율
		산업별 평균임금격차
		직종별 평균임금격차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격차
		성별 평균임금격차
		노동분배율
	근로조건	평균정년퇴직연령
		희망정년시기*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선택요인*
안전보호	산재예방	직업병 유병근로자율
	재해발생	재해발생률
		산재사망률
차별대우	성차별대우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성별 근속연수 격차
		성별 근로시간 격차
		성별 이직률비
노사관계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체결 기업체 비율
		노사분규건수, 손실일수 및 비율
	경영참가	종업원 지주제도 참여업체율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월평균 근로시간/ (7÷30.4)			
월중 근로일수/ ((전월말 근로자수 +당월말 근로자수)÷2)			
유급휴가 총일수/ 총근로자수			○
(토요휴무제 실시 사업체수/ 100인 이상 사업체수)×100			○
(변형근로시간근로자수/총근로자수)×100			○
임금총액에 대한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의미함, 평균임금을 100으로 제시함 (최하위 최저임금/ 전근로자 평균임금)×100 ※ 최하위만 업종별 최저임금 중 최하위 업종의 임금임.	명목·실질		○
10%단위로 임금소득의 임금구조 기본조사		○	
산업생산자수 또는 불변GDP지수/ 연 실근로시간지수			○
(임금중 기본급/ 임금총액)×100			
산업별로 평균임금을 비교함			
(생산직/사무직 평균임금수준)×100			
기업규모별로 평균임금을 비교함			
성별로 평균임금을 비교함			
(피용자보수/국민소득)×100		○	
직급별가중평균 정년퇴직자연형총계/ 정년퇴직자수			○
주관적 지표: 희망하는 정년연령을 조사함			
주관적 지표: 직무,작업환경,장래성,임금,근로시간,인간관계, 전반적인사노무관리 등			
주관적 지표: 명성·명예,안정성,수입,보람,발전성,기타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수/ 대상근로자수)×100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100만			
(근로자 중 사망자수/ 총근로자수)×10,000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여성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남성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100			
(여성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 남성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100			
(여성근로자 이직률/ 남성근로자 이직률)×100			
(조직근로자수/ 조직대상자)×100			
(단체협약체결기업체수/ 50인 이상 기업체수)×100			○
(노사분규 손실일수/ 총노동일수)×100			
(참여업체수/ 100인 이상 사업체수)×100		○	○

5. 敎育 (관심영역=3개, 세부관심영역=7개, 개별지표=43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敎育기회	국민의 敎育수준	국민의 평균敎育년수
		국민의 학력구성비
		자녀敎育의 목적*
	敎育기회의 확대	유치원 취원율
		취학률
		진학률
		대학생수(인구 1만명당)
		敎育기회 미충족 이유*
		특수敎育대상아동 취학률
		소득계층별 사敎育비
敎育자원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생 및 교원현황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
		여교원 비율
		교원의 이·퇴직률
		사무직원당 교원수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한 인식*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당 교지·건물·체육장 면적
		시설·비품 확보율
		특별교실 확보율
		도서실 장서·좌석수
	敎育재정의 확보 및 활용	GDP 대비 공敎育비
		정부예산 대비 敎育예산
		가구당 敎育비 지출률
		학생 1인당 공·사敎育비
		학교단계별 공敎育비 비율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사敎育비 부담에 대한 인식*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국민의 총 교육년수/ (만 6세 이상 인구-학생수)	연령별		
(교육단계별 졸업자수(중퇴자포함)/ 25세 이상 성인인구수)×100	성별		
주관적 지표: 자녀교육의 목적을 가구주에게 질문하여 조사함	교육정도별, 소득계층별		
(유치원 아동수/ 적령인구수)×100			
(취학자수/ 적령인구수)×100	성별, 학교급별		
(전학생수/ 졸업생수)×100	성별, 학교급별		
(대학생수/ 총인구수)×100	대학교종류별, 소득계층별		
주관적 지표: 미충족자의 경우 미충족 이유를 조사	성별,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자수/ 특수교육대상아동 인구수)×100			
총사교육비/ 학생총수			○
교원수, 학생수	학교급별		
총학생수/ 교원수	학교급별		
교원의 총연령/ 총교원수, 교원의 총 경력년수/ 총교원수	성별, 학교급별		
(여교원수/ 총교원수)×100			
(이·퇴직교원수/ 총교원수)×100	성별, 학교급별, 직위별		
총교원수/ 사무직원수	학교급별		
주관적 지표: 매우낮음, 다소낮음, 보통, 다소높음, 매우높음 등		○	
학급수/ 학교수	학교급별		
학생수/ 학급수	학교급별		
총학교교지/ 학생수, 총건물면적/ 학생수, 체육장면적/ 학생수	학교급별		
(현행확보시설/ 법정시설)×100, 시설(컴퓨터, 시청각, 급식, 냉·난방, 수세식화장실)	학교급별, 지역별		
(현행 특별교실확보수/ 법정 특별교실수)×100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보유장서수/ 학생수, 학생수/ 학교도서관 좌석수	학교급별		
공교육비/ GDP			
문교예산/ 정부예산			
(교육비/ 소비지출)×100	소득계층별		
총공교육비/ 학생수, 총사교육비/ 학생수	학교급별		○
공교육비/ 학교교육비	학교급별		
(장학생수/ 총학생수)×100	학교급별		○
(연구개발투자기비/ GDP)×100			
주관적 지표: 매우부담, 약간부담, 보통, 부담이 별로 없음, 부담이 전혀 없음 등	지역별, 소득계층별		

5. 教育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성형성의 효과(덕)*
		건강·체력증진의 효과(체)*
		중퇴율
		비행발생률
		교육수준별 평균임금격차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의 인력양성	전공선택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졸업생의 취업률
		계열별 학위취득자수
		전공계열별 대학생 비율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주관적 지표: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은 제외	학교급별		
주관적 지표: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은 제외	학교급별		
주관적 지표: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은 제외	학교급별		
중퇴학생수/ 총학생수	학교급별	○	
폭력, 절도, 흡악, 기타비행발생수/ 총학생수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	○	
교육수준별로 평균입금을 비교함	학교급별		
주관적 지표: 매우 만족,만족스러운편,불만족 등		○	○
주관적 지표: 매우 만족,만족스러운편,그저 그렇다 등	성별, 전공별	○	○
주관적 지표: 매우 일치,일치하는 편,그저 그렇다 등	전공별	○	○
(취업자수/ (졸업자수 - 진학자 - 기타))×100	성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성별, 학위별		
(계열별 대학생수/ 전체 대학생수)×100	성별		

6. 保健 (관심영역=7개, 세부관심영역=21개, 개별지표=50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상태	생존년수	연령별 기대여명
		무병 기대여명
	체격	신장
		체중
		흉위
		체질량지수(BMI)
	구강보건	1인 보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개인건강평가	혈압정상 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보건의식행태	음주율 및 과음횟수
1인당 주류 소비량		
흡연율 및 흡연량		
사망	사망수준	영아사망률
		1~4세 사망률
		주산기사망률
		65세 이상 사망 비율
		모성사망률
	사망원인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상병	질병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주요질환 발생건수
		치매 유병률
		정신질환 유병률
	부상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상병평가	유병률(기간)
		활동제한일수
외병일수		
영양	영양섭취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식품소비	1인 1일당 식품소비구성비

* : 주관적 지표

정식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어느 연령에서 그 이후 몇년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지 평균계산한 연수	성별, 연령별		
상병으로 인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내게 될 기대여명	성별, 연령별	○	○
신장·체중·흉위는 6~17세의 성장기 학생 대상으로 측정함	성별, 연령별		
상동	성별, 연령별		
상동	성별, 연령별		
체중(kg)/ {신장(m)} ²		○	
{ (D +M +F)의 수/ 12세이상 조사인구 } ×1,000 D: 부식치이수 M: 발치치이수 F: 보충치이수	성별, 지역별		○
주관적 지표: 조사인구 중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건강관리방법: 운동, 식사조절, 담배·술절제, 보약, 영양제복용, 기타, 아무것도 하지 않음	성별, 지역별, 연령별		
주관적 지표: “연령에 비하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함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음주인구/ 조사인구)×100	성별, 연령별		
(주류소비량/ 총 인구수)×100		○	
(흡연인구/ 조사인구)×100	성별, 연령별		
(출생 1년 미만내 사망영아수/ 특정년도 1년간 출생수)×1,000	지역별		
(1~4세 사망자수/ 연간출생수)×100			
(A+B/ C)×1,000 단, A: 임신 제29주 이후의 사산수 B: 생후 7일미만의 신생아 사망수 C: 같은 해의 연간출생수	성별, 지역별	○	○
(65세이상 사망수/ 연간사망수)×100	성별, 지역별		
(임신, 분만, 산욕합병증과 관련된 사망부인수/ 연간출생수)×1,000	지역별		
(각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총 사망자수)×100	성별, 연령별		
유병률= 특정시기의 환자수/ 특정시기의 인구			
주요질병은 AIDS, 뇌염, 말라리아, 홍역, 성병, 결핵 등이 포함됨		○	
특정시기의 치매환자수/ 특정시기의 인구		○	○
특정시기의 정신질환자수/ 특정시기의 인구		○	○
산업재해, 교통사고, 가정내 사고 등		○	○
(기간내 유병자수/ 조사인구)×100	성별, 지역별		
활동제한일수/ 유병수	성별, 지역별		
와병일수/ 유병자	성별, 지역별		
1일 1인당 순식용 공급량에 식품별 단백질 성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양			

6. 保健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보건의료이용	예방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이용	입원율
		평균 재원일수
		1인당 평균의사방문회수
		병상이용률
		한방의료이용 회수 및 이유
	의료서비스 총족	의료서비스 총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의료시설	의료기관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국민의료비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부문별 국민의료비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보건의료기술	장기기식	장기기식건수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장비보유현황	고가장비대수(인구1,000명당)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종류별 예방접종수/ 당년도 0~4세 인구)×100	성별, 지역별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총조사인구)×100		○	○
(입원환자수/ 총인구수)×100			
(입원환자연인원수/ 입원환자당 실인원수)×100			
내원일수/ 연평균 적용인구		○	
(1일 평균개원환자수/ 병상수)×100			
한의원, 한약방, 약국, 약제상 포함		○	○
주관적 지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		○	
주관적 지표: 의료기관의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	
총인구/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병상당 인구= 입원환자수/ 병상수	지역별		
결핵, 나병, 정신과병원 등		○	
1인당 의료비= 총국민의료비/ 총인구		○	○
(국민의료비/ GDP)×100		○	○
국민의료비를 민간 및 공공부문별로 구분함	민간, 공공	○	○
(보건부문예산/ 당년도 총예산)×100			
(의료비 지출/ 소비지출)×100			
간, 신장, 폐, 심장, 각막, 뼈, 피부		○	
인공관절, 고정장치, 실리콘이식, 치아이식 등		○	○
감마나이프, CT, MRI 등의 고가장비의 보유여부 일정 시점에서의 고가장비보유대수/ 1,000		○	○

7. 住居와 交通 (관심영역=4개, 세부 관심영역=10개, 개별지표=51개)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상태	주택공급과 수요	주택보급률
		주택투자율
		연간주택건설호수(인구1,000명당)
		주택의 유형분포
		자가보유율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노후정도
		도시주택 가격지수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주택방수*
		원하는 주택규모*
	주거비용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주거의 질	주거이동	최초 주택마련시기
		결혼 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현 주택거주년수
	주거공간	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
		가구당 사용건평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당 대지면적
		방당 가구원수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과밀거주가구수
	주택부대시설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입식부엌 시설률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취사용 연료
		목욕탕 시설률
		수세식변소 시설률
		에어콘소유 가구율
		주차장 확보율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주택재고수/ 일반가구수)×100	지역별		
GNP대비 주택투자율= (총주거용건물건설투자액/GNP)×100			
(연간 총건설호수/ 인구수)×1,000	지역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기타	지역별, 규모별, 주체별		
현재 남의 집에 살더라도 다른 곳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기집을 가진 가구 비율= (자가보유가구수/ 총가구수)×100			
자가, 전세, 월세 형태별 주거비율	지역별, 연령별	○	
현재 거주주택의 내구연수	주택유형별(단독,연립,아파트)	○	
전월(또는 전년) 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주택유형별, 주택점유형태별		
주관적 지표: 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지역별		
주관적 지표: 1,2,3,4,5,6+ (단위:개)	지역별		
주관적 지표: -33,33~65,66~98,99~131,132~164,165+ (단위:m ²⁰)	지역별		
(주거비지출/ 소비지출)×100	지역별,점유형태별(자가전세)		
최초 주택마련시 연령: 25,26~34,35~44,45~54,55~64,66+ (단위:세)	지역별		
결혼후 내집마련까지 이사회수: 0,1~2,3~4,5~6,7~8,9~10,11+ (단위:회)	지역별, 연령별, 주택형태별		
주택자금마련방법: 저축,상속,부모친척보조,융자 및 사채,재산매각,퇴직금,기타			
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주택형태별, 연령별	○	
현 거주하는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가구의 수: 1,2,3,4+ (단위:가구)	지역별, 주택형태별		
총 사용건평/ 총가구수	지역별, 1인당		
총사용방수/ 총가구수	지역별		
총대지면적/ 총가구수	지역별		
가구원수/ 방수	지역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약간만족,보통,약간불만,매우불만 - 불만이유: 주택의 노후,일조통풍불량,난방시설불량,주택협소, 부대시설미흡,상하수도시설미흡	지역별, 주택형태별		
거주(밀도)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수			○
(상수도 공급인구/ 총인구)×100	지역별		
(하수도관의 접속인구/ 총인구)×100	지역별		
(임식부엌시설주택수/ 총주택수)×100	지역별		
난방방식별 주택분류: 연탄온돌,중앙집중식난방,단독연탄보일러,단독유류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단독전기보일러,태양열,지역난방	지역별		
취사용 연료: 가스,연탄,유류,임산연료,기타	주택형태별		
(단독목욕탕시설주택수/ 총주택수)×100	주택형태별		
(수세식변소시설주택수/ 총주택수)×100	주택형태별		
(에어컨소유가구수/ 총가구수)×100	주택형태별	○	
(전용주차장확보주택수/ 총주택수)×100	주택형태별	○	

7. 住居와 交通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의 질	주위환경	편의시설 근접도
		현거주지 선택 이유*
		현거주지역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가구당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교통비용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 비율
교통의 질	교통편의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된 통근·통학수단
		버스·지하철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수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시내버스 혼잡률
		지하철 혼잡률
	교통운행의 질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자동차 주행속도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편의시설(가까운 병·의원, 금융기관, 우체국, 유치원 및 국민학교)까지의 소요시간	지역별	○	○
주관적 지표: 자녀교육, 직장사업, 교통인근시설, 경제적 사정, 자연환경, 기타	지역별, 연령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 불만이유: 교육여건불만, 교통사정불편, 주변환경불량, 공해, 편의시설낙후, 범죄다발지역, 기타	지역별, 주택형태별		
대중교통수단별 수송인구 분담비율: 버스, 지하철, 기타	지역별	○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총인구수)×100	지역별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대수를 조사함	지역별	○	
(교통비지출액/ 총가구지출액)×100	지역별, 교통수단별	○	
도로의 총연장 km			
(포장된 도로의 총연장/ 총도로연장)×100	지역별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왕복)	지역별		
통근·통학수단: 시내버스, 지하철, 전철, 승용차, 기타	지역별, 교통수단별		
버스나 지하철역(주된 대중교통수단)까지의 도보시간	지역별, 주택형태별		○
장애인 전용주차면수, 횡단보도, 유도노면, 음성정보 신호등수, 지하철 승강기시설수	지역별	○	○
주관적 지표: 표지판,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신호기 설치, 신호등, 도로넓이	지역별		
시내버스 이용승객수/ 총시내버스대수	지역별	○	○
총지하철이용승객수/ 총지하철차량수	서울, 부산	○	○
총도로연장/ 총자동차대수	지역별	○	
자동차의 평균주행속도	지역별	○	○
(연간 총교통법규위반건수/ 총차량대수)×100	지역별, 차량별	○	

8. 情報와 通信 (관심영역=5개, 세부관심영역=8개, 개별지표=28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보화 기반조성	연구개발활동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
		특허수(대내, 대외)
		기술수출액
정보관련 인력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방송서비스 인력 비중
정보화 정도	PC 보유 및 이용	PC 보유가구율
		PC 이용시간의 구성비
		PC 공중전산망 가입자수 (인구 1,000명당)
		컴맹비율
	통신서비스 이용	가구당 전화보급률
		가구당 Fax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수 (인구 1,000인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 (인구 1,000인당)
		공공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이용자수 (인구 100인당)
		PC통신 가입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전산망 확충	의료업무 전산화율
		판매관리 전산화율
		금융전산망 크기
		행정전산망의 정보입력률
		과학·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액
정보관련 지출	정보관련 지출	GDP 대비 정보·통신투자액
		가계정보관련비용 지출률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화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를 위한 투자실태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기업연구개발비+대학연구개발비+정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국내총생산액×100= (총연구개발지출/ GDP)×100	주체별, 재원부담별	○	
대내특허수= 어느 발명자에 의한 발명 중 그 나라에 등록된 특허건수 대외특허수= 어느 발명자의 발명 중 그 국가 이외 외국에 등록된 특허건수	출원인별, 부문별, 시도별	○	
기술의 권의 등을 제공하여 외국으로부터 받은 금액	출원인별, 부문별, 시도별	○	
(통신서비스 부문 취업인구/ 상용근로자수)×100	자격별, 경력별	○	
(일반방송·뉴미디어 취업인구/ 상용근로자수)×100	자격별, 경력별	○	
(PC 보유대수/ 총가구수)×100	자격별, 경력별	○	
-필요하지 않아 사용않음, 사용하면 주당 평균이용시간, 게임,오락,놀이를 위해 이 용하는시간, 학습(스프레드실,데이터베이스,통계패키지)과 워드프로세서기능을 위해 이용하는 시간, PC통신 및 인터넷 등 정보교환으로 이용하는 시간의 비중	자격별, 경력별	○	
-원지 몰라 전혀사용안함, 필요하지 않아 사용않음, 가끔 목적없이 시간을 보내 기 위해 이용, 국내정보검색 및 교류를 위해이용, 가끔 국제정보검색 및 교류를 위해 이용, 전문정보의 교류 채널로 자주 오래 이용	자격별, 경력별		
(PC이용가능자수/ 총가구수)×100	연령별, 교육수준별	○	
(전화가입자수/ 총가구수)×100	지역별		
(Fax매출대수/ 총가구수)×100	지역별	○	
(이동통신 가입자수/ 총인구)×1,000 - 휴대폰, 카폰 이용자수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백백가입자수/ 총인구)×1,000	지역별, 연령별, 성별		
(공공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이용자수/ 총인구)×100	지역별, 연령별, 성별	○	○
(PC통신 가입회선/ 총전화회선)×100	지역별, 연령별, 성별	○	
(인터넷 가입회선/ 총전화회선)×100	지역별, 연령별, 성별	○	
(CATV 가입가구수/ 총조사가구수)×1,000	지역별	○	
(위성방송안테나 설치가구수/ 총조사가구수)×100	지역별	○	
(전산처리 의료업무/ 총의료업무)×100	지역별	○	○
(단발기 도입 점포수/ 총점포수)×100	지역별	○	○
금융기관의 주전산기 대수	지역별	○	○
행정 전산망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입력 건수/ 총인구	지역별	○	○
매출액(1,000만원)	지역별	○	○
(정보·통신산업 투자액/ 국내총생산액)×100	지역별	○	
(매월 정보처리지출/ 매월 총가계지출)×100	지역별	○	○
주관적 지표: 매우 불만,약간 불만,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		○	
주관적 지표: 매우 부정적,부정적,중립적,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		○	
주관적 지표: 매우 불만,약간 불만,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		○	

9. 環境 (관심영역=4개, 세부관심영역=7개, 개별지표=31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녹색GDP	녹색GDP	녹색GDP
		1인당 녹색GDP
		녹색GDP/ GDP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1인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인당 폐수배출량
		농업생산량 대비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대비 농약투입량
	자연자원의 이용	1인 1일 급수량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환경영향	환경의 질	대기의 질
		수질
		주요연안의 수질오염도
		토양오염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주요도시의 스모그 발생률
		수질기준 달성률
		음용식수 종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자연자원 보존량(생물다양성)	1인당 녹지면적
		1인당 공원면적
환경관리	환경관련지출	GDP 대비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1인당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어적 지출액
	환경관리노력	하수처리율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환경오염 방지노력
		재생산업사업체수 및 인력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환경자본의 서비스가액이 반영된 GDP를 의미함	지역별	○	○
녹색GDP/ 총인구수	지역별	○	○
녹색GDP/ GDP	지역별	○	○
일반폐기물: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총인구 특정폐기물: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총인구	지역별	○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인구 GDP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	지역별	○	
질소산화물 배출량/ 총인구	지역별	○	
폐수배출량/ 총인구	업종별, 공단별, 수계별	○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지역별	○	
농약투입량/ 농업생산량	지역별	○	
하루평균 급수 사용량/ 급수인구	지역별	○	
에너지 사용량/ 총인구	지역별,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에너지 사용량/ GNP	지역별,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	
환경기준: SO ₂ 연평균 0.005ppm 이하 24시간 평균 0.15ppm 이하	지역별		
환경기준: BOD 1~10 이하	지역별		
환경기준: COD 1급 1mg/l 이하, 2급 2mg/l 이하, 3급 4mg/l 이하	지역별		
매년 환경부 발표		○	
(환경기준치 적합지점수/ 소음측정장소수)×100	지역별		
매년 환경부 발표	지역별	○	
기간내 하천구간별 수질등급달성률	지역별	○	
수돗물(그대로, 끓여서), 정수기, 생수, 약수, 지하수, 기타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주관적 지표: 매우 불안함,불안함,보통,별로 불안하지않음,전혀 불안하지않음	지역별		
주관적 지표: 매우 심각,심각,보통,별로 심각하지않음,전혀 심각하지않음,모름 등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녹지면적(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총인구	지역별	○	
공원면적/ 총인구	지역별	○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GDP)×100	지역별	○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총인구	지역별	○	
기업의 방어적 지출액/ 기업의 매출액	지역별	○	
(하수처리량/ 하수발생량)×100	지역별	○	○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 총인구)×1,000	지역별	○	
환경오염방지도력: 합성세제줄임,쓰레기분리,소음억제,하천바다오물투척금지, 야외쓰레기폐기,비닐봉지사용자제,기타 등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	

10. 福祉 (관심영역=4개, 세부관심영역=11개, 개별지표=43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증진	복지지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민간모금액 및 사용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보험	의료보장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인당 평균부담액
		1인당 평균급여비
	공적연금	공적연금 적용률
		가입자 대비 수혜자
공적부조	자원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
		총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급여액
		의료보호수혜율
		임대주택공급호수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지표	장래개발
(사회보장예산/ GDP)×100	국민연금, 산재보험, 직역별 (공무원, 군인, 교원)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100			
		○	○
		○	○
주관적 지표: 전반적 삶의 질, 소득수준, 직업, 환경, 개인건강, 주택, 교통		○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	
주관적 지표: 매우향상될것임, 약간향상될것임, 비슷할것임, 조금나아질것임, 매우나아질것임 등		○	
주관적 지표: '매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어느정도 부담 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함			
		○	
급여금액/ 급여건수			
(가입자/ 18세 이상 취업자)×100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	
(국민연금수혜자수/ 국민연금가입자수)×100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	
(급여비/ 급여건수)×100	종별	○	○
(공적부조예산/ GDP)×100	제도별	○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100	제도별	○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100	성별, 연령별	○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소요비용: 가구원수별로 제시		○	○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성별, 연령별		
(생활보호대상자/ 총인구)×100	종별		
(생활보호급여액/ 생활보호대상자)×100	종별		
(의료보호대상자/ 총인구)×100			
		○	

10. 福祉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노인복지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비율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시설입소희망 노인인구 비율*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요보호아동 발생수
		소년소녀가장세대수 및 아동수
		아동일양현황
	여성복지	요보호여성수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인복지	장애인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시설수용장애인 비율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사회복지서비스예산/ GDP)×100		○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100		○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100		○	
(시설수용(이용)자수/ 총인구)×100			
시설종사자수/ 시설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수/ 노인인구)		○	
(치매노인수/ 노인인구)×100		○	○
(노인시설수용자수/ 노인인구)×100			
		○	
주관적 지표: (시설입소희망노인인구/ 노인인구)×100	성별, 연령별	○	
		○	
(미아·가출 소년소녀수/ 소년소녀수)×100		○	○
		○	
		○	
		○	○
(장애인수/ 총인구)×100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	
(시설수용장애인수/ 장애인수)×100			
(취업장애인수/ 취업희망장애인수)×100		○	
(등록장애인수/ 추정장애인수)×100		○	
(의무고용준수사업체수/ 의무고용대상사업체수)×100		○	

11. 文化와 餘暇 (관심영역=3개, 세부관심영역=8개, 개별지표=34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부예산
		문화예술시설공간수
		전시장 입장률
		공연시설 입장률
		공공도서관현황 및 이용률
	문화생활용품 보급	도서발행 종류 및 부수
		보유장서수, 구입인구, 독서인구 비율
		잡지발행부수 및 구독률
		음반, 테이프 등 구입 비율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CATV 가입률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구독신문 종류 및 빈도
		신문의 관심분야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TV 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문화활동기회 향유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공연예술 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	관광여행	휴양지 종류별 이용자수
		평균 여행회수
		해외여행 비율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활동방법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여가및 체육활동비 지출률
		취미 및 교양학원별 수강자수
		1인당 체육시설면적
		여가및 체육시설 이용현황
	시간배분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문화의식	문화의식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문화체육예산/ 정부예산)×100		○	
극장,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체육시설의 수	지역별	○	
전시장 입장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소득계층별		
관람공연장 입장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소득계층별		
도서관 이용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도서종류: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산업,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아동, 학습참고서 등	분야별		
도서구입인구비율= 도서구입인구/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독서인구비율= 독서인구/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1개월에 1회 이상 구독한 사람의 비율/ 조사대상 인구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1년간 음반, 음악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Rom 구입인구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위성방송안테나 설치가구수/ 총조사가구수)×100	성별, 지역별, 교육정도별	○	
(CATV 가입가구수/ 총조사가구수)×100	성별, 지역별, 교육정도별	○	
1주 1회 구독인구수/ 조사대상 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정치, 산업경제, 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연예·스포츠, 국제, 기타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이유·비신속성, 편파성, 비정확, 정보부족, 깊이있는 내용 부족, 기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1주간 TV(CATV포함) 시청시간/ 시청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불만이유: 비공정성, 교양·교육프로그램부족, 프로그램질낮음, 재미없음, 비현실성, 광고가 많음, 방송사간 과도경쟁 및 중복, 기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일간신문, TV, 라디오, 잡지, 친구·동료, 포스터·전단, 지역신문, 교육문화기관, 기타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각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영화관별로 성·교육정도·전문직 종사·연령·수입 등의 특성조사	지역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비디오 시청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비디오종류별		
휴양지 이용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여행회수/ 휴양지 이용자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여행종류별		
최근 1년간의 비율임(관광, 가사, 업무여행으로 구분)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여행종류별		
주관적 지표: 이유·교통, 숙박, 화장실, 음식·식수, 바가지요금, 질서, 오락시설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감상, 관람, TV시청, 창작적취미오락, 참가·승부놀이, 스포츠·여행, 가사, 기타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교양·오락비 지출액/ 총소비지출액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학원종류: 꽃꽂이, 서예, 요리, 컴퓨터, 사진, 무도장, 불림장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체육시설면적/ 총 인구수		○	
여가시설 이용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1주당 수면, 직장, 직장파 관련된 교제, 개인적인 교제, 가사시간, 여가, 출퇴근 등에 소비한 시간조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항상 쫓기고 있음, 때때로 쫓기고 있음, 쫓기는 일이 거의 없음 등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매우 긍정적임, 약간 긍정적임, 보통임, 약간 부정적임, 매우 부정적임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임, 약간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12. 安全 (관심영역=5개, 세부관심영역=14개, 개별지표=55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경험률
		야간보행시 안전도*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인구 10만명당)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주요범죄의 질적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보고된 범죄자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주요범죄 초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여성범죄자의 비율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컴퓨터 범죄자수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교내폭력·협박 피해학생수(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주관적 지표: 각종 재해로 인한 비안전 지역, 시설물, 운송수단 등에 대한 순위 - 지역: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 시설물: 공공용물(도로, 하천, 함판, 건축물등) - 운송수단: 유상, 해상, 항공 등	특성별	○	
주관적 지표: 일생동안 평안하고 위험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 - 가능성: 가능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불가능할 것 등 - 불가능할 것: 이유를 조사함	특성별	○	
주관적 지표: 매우 안전, 약간 안전, 그저 그렇다, 약간 불안, 매우불안	특성별	○	
주관적 지표: 매우 안전, 약간 안전, 그저 그렇다, 약간 불안, 매우불안	특성별	○	
주관적 지표: 지킨다, 보통이다,안지킨다 등	지역별,교육정도별,소득계층별	○	
주관적 지표: 사회 안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과 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견해 - 안녕질서: 생명과 재산이 안녕하고 사회질서가 바른 상태 - 안전도: 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그저 그렇다,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 불안요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협사상, 기타 등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포괄적인 불안요인)	특성별	○	
주관적 지표: 두려움의 정도: 느낀다, 보통, 못느낀다	특성별		
(공갈·협박·전화폭력 경험자/ 조사대상자)×100	특성별	○	
주관적 지표: 두려운 곳 없다, 있다(있을 경우 어떻게 두려운지를 조사)	특성별		
형법범 및 특별법 범죄의 총발생건수 - 형법범: 유형별로 표시	형법범,특별법범		
주요범죄: 절도, 강도, 폭력행위 등, 강간, 살인 - 절도: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 강도: 폭력,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단순,특수,살인강도 등) - 폭행·상해: 형법법상의 폭행, 상해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하는 것 - 살인: 보통살인, 존속살인, 영아살인, 기타 - 조직폭력사범, - 마약사범	지역별		
외국인(국적을 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국내범죄의 연간 건수 - 범죄의 주동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법범, 특별법범	○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의 연간 발생건수 - 범죄의 주동자가 내국인인 경우	국별	○	○
주관적 지표: 광역화,홍폭화,가동화,집단화(조직범죄),전문화,지능화에 대한 인식 (주요 범죄별 범죄자수/ 총인구)×100,000	특성별	○	
	주요범죄별,동기별		
	주요범죄별,동기별		
(초범자/ 주요범죄자)×100	주요범죄별		
	연도별		
(여성범죄자수/ 총범죄자수)×100	형법범, 특별법범		
전자화폐, 신용카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한 범죄자수	지방경찰청별		
(20세미만의 주요범죄자수/ 주요범죄자수)×100	연도별		
학교주변: 등하교시의 통행로상	성별, 학교급별		
주관적 지표: 청소년에 의한 비행 및 탈선행동에 대한 인지정도 - 인지정도: 경험하였다, 보았다, 들었다, 등 - 인지내용: 학내·학생간 폭행, 집단구타, 학내 시설물 파괴, 스승구타 등 - 가정: 혈연폭행, 가구집기의 파괴, 가솔 등 - 사회: 흡연, 음주, 약물의 오·남용, 삼야배회, 성적탈선 등	특성별	○	

12. 安全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피해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률과 피해자수 (인구 10만명당)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피해액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주요범죄(피해)신고율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범죄방지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경찰관 1인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주요범죄 제법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야기 도주 검거율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입체도로 시설수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
		소방관 1인당 인구수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범죄예방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및 피해액)
	기타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불의의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법집행의 공정성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유죄선고율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피의자 보호 및 변호	형집행유예 비율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강간, 살인을 제외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조사에 의함) -조사대상범죄: 강도, 절도, 소매치기, 폭행상해	주요범죄별		
조사대상범죄: 강도,절도(소매채기포함),폭행상해 등 민생범죄	주요범죄별		
(조사된 주요범죄(피해)신고건수/ 조사된 주요범죄 발생건 수)×100	연도별		
주관적 지표: 미신고이유(피해근소,보복우려,신고해도성파미흡,귀찮아서,명예손상,차 체해결,기타)와 미신고율을 같이 표시	특성별		
-조사대상범죄: 강도,절도(소매치기 포함),폭행상해 등 민생범죄			
채포기간: -1일,2~4일,-20일,-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채포기간별		
(신고된 주요범죄해결건수/ (조사에 의한)주요범죄발생건수)×100	특성별		○
연양인구수/ 경찰관수 - 경찰관: 경찰(전경, 의경 제외)과 해양경찰	지역별		
(경찰청 지출액/ GDP)×100	연도별	○	
순찰차량수/ 지·파출소수			
- 순찰차량: 범죄신고응체계에 활용되는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	
(주요범죄자 중 재범자수/ 주요범죄자수)×100	연도별, 同·異種별		
	연도별		
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출액/ 수감자수	연도별		
철도(철도, 지하철, 고속전철),항공,자동차,선박에 의한 사고의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발생건수의 지수	교통사고별		
(자동차사고 사상자수/ 총 사상자수)×100	연도별		
- 사망자수를 함께 표기	연도별		
고속화도로 상의 교통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율	연도별		
주관적 지표: 운전자 부주의,도로구조상 결함,각종 신호체계미비,교통혼잡,기타 등	특성별	○	
도로연장 100km당	연도별, 자치지역별	○	
(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100	연도별, 화재종류별		
총피해액/ 화재발생건수	연도별		
각 관할지역 주민수/ 동 지역 소방관수	연도별	○	
각 관할지역 주민수/ 동 지역 소방자동차수	연도별		
산불, 풍수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연도별		
(화재보험가입인구수/ 총가구수)×1,000	화재보험종류별	○	
(사상자수/ 불의의사고건수)×100 - 불의의사고: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가스폭발, 교량붕괴, 건물의 붕괴, 군중에 의한 사고 등	서술적으로 기술	○	○
주관적 지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식 - 공정성: 매우공정,약간공정,그저그렇다,약간불공정,매우불공정 - 사법기관: 법원,검찰,경찰및사법권이 부여된 기관	특성별	○	
소송사건: 민사,가사,행정,형사,소년,기타의 사건	소송사건별	○	
(유죄선고/ 기소범죄)×100	연도별	○	
(집행유예/ 선고건수)×100	연도별	○	
		○	○
	연도별	○	
(개업번호사수/ 총인구수)×1,000	연도별	○	

13. 政府와 社會參與 (관심영역=3개, 세부관심영역=9개, 개별지표=28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치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교육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후원금·기부금 제공자 비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집회 참여도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정부	행정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공무원의 부처별 분포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재정	GDP 대비 기능별예산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예산
		국민 1인당 기능별예산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조세행평에 대한 태도*

* : 주관적 지표

정의 및 산식	집계항목	신규 지표	장래 개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매우 많다, 많다, 다소, 약간, 없다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기준-인물, 정당,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여성국회의원수/ 총국회의원수)×100		○	
(여성지방의회의원수/ 총지방의회의원수)×100	지역별	○	
주관적 지표: 매우 공정,공정한 편,그저그리함,불공정한 편,매우불공정함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매우 신뢰할만함, 어느정도 신뢰할만함, 그저 그러함, 신뢰할 수 없는 편,매우 신뢰할 수없음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대단히 절실하고 조속히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함,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현재의 분단상태유지가 더 좋다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이 서로 인정하며 남한 주도로 통일, 남북한의 좋은 점을 따서 통일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주관적 지표: 사회의 개방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등 6범주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사회단체가입인구/ 15세 이상 조사인구)×100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사회교육 참여인구/ 총인구)×100 - 대상별: 주부·여성, 청소년, 노인, 일반시민 등 - 종류별: 일반교양, 기술·직업, 취미, 안보·통일 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자원봉사자수(연인원)/ 15세 이상 조사인구)×100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후원금,기부금을 1년에 한번이상 제공한 사람수/ 15세이상 조사인구)×100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종교인구/ 총인구)×100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종교유형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정치민주화,불가안정,빈부격차,농촌문제,주택문제,교통문제,교 육문제,치안문제,부정부패,윤리·도덕성,환경공해 등에 대한 국민의 견해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주관적 지표: 주택,교통,환경,문화·교육,보건,방범·재해 중 우선순위를 조사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공무원수/ 총인구)×1,000	지역별	○	
(각 부처별 공무원수/ 총공무원수)×100	지역별	○	
(서기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수/ 서기관급이상의 공무원수)×100		○	
주관적 지표: 매우만족, 만족하는편, 불만스런편, 매우불만족, 잘모르겠음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기능별예산액/ GDP)×100	지역별	○	
(기능별예산액/ 총예산액)×100	지역별	○	
기능별예산액/ 총인구	지역별	○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세외총액 } ×100	지역별	○	
주관적 지표: 매우 적게내고 있음, 적게내는 편임, 적당한 편임, 많이 내는 편임, 매우 많이내고 있음, 모르겠음.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	

B. 生産可能な 個別指標

1. 人口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총인구	인구추세	총조사 인구
		연앙추계인구
		연평균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장래추계인구
		장래자연증가율
		장래인구성장률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국민평균연령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성별 인구	지역별 출생시 성비
		지역 및 연령별 성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초혼연령별 인구 (구성비)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구성비)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도시인구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수도권 인구(구성비)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

1. 人口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출 생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가족계획실천율
		연령별 및 합계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이상자녀수*
		자녀수에 대한 의식*
사 망	사망률	성·연령별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기대여명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내이동	연령별 순인구이동을
		지역별 전·출입자 현황 (순이동 포함)
		지난 1년간 이주상태
		지난 1년간 이주의 원인별 구성비*
	국제이동	지역별 출입국 현황
		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2. 家族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구성	가구구성	총가구수
		평균가구원수
		가구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크기	평균동거가족원수
		평균출생아수
	가족형태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족의 핵수별 분포
가족형성	혼인	평균초혼연령
		조혼인율
		조재혼율
	자녀출산	첫자녀 출산연령
		기대 자녀수*
	가족의 해체	조이혼율
		이혼사유
가족생활	주거 및 주택환경	거주주택의 종류
		거주주택의 소유
		가구당 주거공간
	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소득분포
		가구지출구조
	생활안정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중요한 생활관심사*
		노후준비방법

2. 家族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가족생활	문화생활	가족여가활동현황
		가족외식빈도
		가족생활용품현황
가족문제	노인의 가족생활	노인가구 비율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노인의 가족내 역할
	청소년 및 취약가구	미성년가구 비율
		편부모 및 부모가 없는 친족가구 비율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가계의 중요성	남아선호도*
		대잇기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선호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여성의 역할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3. 所得과 消費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수준	소득	GDP 및 GNP
		1인당 GDP 및 1인당 GNP
		국민가처분소득
		개인가처분소득
		가구당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비율
		농촌가구 월평균소득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소득원천	소득원천별 구성비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GRP)
		1인당 GRP
		지역별 생산구조
소비수준	소비규모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1인당 소비지출액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소비지출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지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흑자율
저축·투자 및 재산	저축 및 투자수준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대외투자율
	저축생활	가계저축률

3. 所得과 消費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노동소득 분배율
		영업잉여
		순간접세
	분배상태	소득10분위별 분포
		소득집중도 (지니계수, 소득10분위 분배율)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의식*
	조세부담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률
		비조세부담률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만족도*
	소비의 안정	소비자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구매력 지수
		수입물가지수
		공공요금지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4. 勞 動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고용·인력개발	취업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중 피용자율
		취업자 구성비
		대기업 근로자 비율
		고령취업자 구성비
		기혼여성취업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수 및 비율
		장기근속 비율
		상시취업률
		여성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실업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직업안정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구인배율
		취업알선 비율
	인력개발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4. 勞動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일수
	임금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임금계층별 임금수준(지니계수)
		기본급 비율
		산업별 평균임금격차
		직종별 평균임금격차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격차
		성별 평균임금격차
		노동분배율
	근로조건	희망정년시기*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선택요인*
안전보호	산재예방	직업병 유병근로자율
	재해발생	재해발생률
		산재사망률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차별대우	성차별대우	성별 근속연수 격차
		성별 근로시간 격차
		성별 이직률비
노사관계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분규건수, 손실일수 및 비율

5. 教育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국민의 학력구성비
		자녀교육의 목적*
	교육기회의 확대	유치원 취원율
		취학률
		진학률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교육자원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생 및 교원현황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
		여교원 비율
		교원의 이·퇴직률
		사무직원당 교원수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한 인식*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당 교지·건물·체육장 면적
		시설·비품 확보율
		특별교실 확보율
		도서실 장서·좌석수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GDP 대비 공교육비

5. 敎育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敎育자원	敎育재정의 확보 및 활용	정부예산 대비 敎育예산
		가구당 敎育비 지출률
		학교단계별 공敎育비 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사敎育비 부담에 대한 인식*
敎育효과	敎育의 효과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성형성의 효과(덕)*
		건강·체력증진의 효과(체)*
		중퇴율
		비행발생률
		敎育수준별 평균임금격차
	敎育의 인력양성	졸업생의 취업률
		계열별 학위취득자수
		전공계열별 대학생 비율

6. 保健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상태	생존년수	연령별 기대여명
	체격	신장
		체중
		흉위
		체질량지수(B.M.I)
	개인건강평가	혈압정상 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보건 의식 행태	음주율 및 과음횟수
		1인당 주류 소비량
		흡연율 및 흡연량
사망	사망수준	영아사망률
		1~4세 사망률
		모성사망률
		65세 이상 사망 비율
	사망원인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상병	질병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주요질병 발생건수

6. 保健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상 병	상병평가	유병률(기간)
		활동제한일수
		와병일수
영 양	영양섭취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식품소비	1일 1인당 식품소비구성비
보건의료이용	이용	입원율
		평균 재원일수
		1인당 평균의사방문회수
		병상이용률
	의료서비스 충족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의료시설	의료기관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국민의료비	정부예산 대비 보건예산
		가구당 의료비지출
보건의료기술	장기이식	장기이식건수

7. 住居와 交通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상태	주택공급과 수요	주택보급률
		주택투자율
		연간주택건설호수(인구1,000명당)
		주택의 유형분포
		자가보유율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노후정도
		도시주택 가격지수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주택방수*
		원하는 주택규모*
	주거비용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주거이동	최초 주택마련시기
		결혼 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현 주택거주연수
주거의 질	주거공간	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
		가구당 사용전평
		가구당 사용방수
		가구당 대지면적
		방당 가구원수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주택부대시설	상수도 보급률

7. 住居와 交通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의 질	주택부대시설	하수도 보급률
		입식부엌 시설률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취사용 연료
		목욕탕 시설률
		수세식변소 시설률
		에어콘소유 가구율
		주차장 확보율
	주위환경	현거주지 선택 이유*
		현거주지역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가구당 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교통비용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 비율
교통의 질	교통편의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된 통근·통학수단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교통운행의 질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8. 情報와 通信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보화 기반조성	연구개발활동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
		특허수(대내, 대외)
		기술수출액
정보관련 인력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방송서비스 인력 비중
정보화 정도	PC 보유 및 이용	PC 보유가구율
		PC 이용시간의 구성비
		PC 공중전산망 가입자수 (인구 1,000명당)
		컴맹비율
	기간통신서비스 이용	가구당 전화보급률
		가구당 Fax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수 (인구 1,000명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 (인구 1,000명당)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PC통신 가입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방송서비스 이용	CATV 가입률(1,000가구당)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율
정보관련 지출	정보관련 지출	GDP 대비 전기통신투자액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화 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만족도	정보획득을 위한 투자실태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만족도*

9. 環境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 배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인당 폐수배출량
		농업생산량 대비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대비 농약투입량
	자연자원의 이용	1인 1일 급수량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환경영향	환경의 질	대기의 질
		수질
		주요연안의 수질오염도
		토양오염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주요도시의 스모그 발생률
		수질기준 달성률
		음용식수 종류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자연자원 보존량 (생물다양성)	1인당 녹지면적
1인당 공원면적		
환경관리	환경관련지출	GDP 대비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1인당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어적 지출액
	환경관리노력	천명당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
		환경오염 방지노력
		재생산업사업체수 및 인력

10. 福祉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증진	복지자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보험	의료보장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인당 평균부담액
	공적연금	공적연금 가입률
		가입자 대비 수혜자
공적부조	자원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
		총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급여액
		의료보호수혜율
		임대주택공급호수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수용인원
		시설별 평균종사자수
	노인복지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10. 福祉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시설입소희망 노인인구 비율*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수 및 아동수
		아동입양현황
	여성복지	요보호여성수(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인복지	장애인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시설수용 장애인 비율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

11. 文化와 餘暇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자원 및 이용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부예산
		문화예술시설공간수
		전시장 입장률
		공연시설 입장률
		공공도서관현황 및 이용률
	문화생활용품 보급	도서발행 종류 및 부수
		보유장서수, 구입인구, 독서인구 비율
		잡지발행부수 및 구독률
		음반, 테이프 등 구입 비율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CATV가입율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구독신문 종류 및 빈도
		신문의 관심분야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TV 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문화활동기회 향유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공연예술 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비디오 시청률 및 시청편수
여가활용	관광·여행	휴양지 종류별 이용자수
		평균 여행회수
		해외여행 비율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11. 文化와 餘暇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여가활용	여가 및 체육활동	여가활용방법
		여가및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여가및 체육활동비 지출률
		1인당 체육시설면적
		여가및 체육시설 이용현황
	시간배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문화의식	문화의식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12. 安全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 (인구 10만명당)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주요범죄의 질적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보고된 범죄자	주요범죄별 범죄자수 (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주요범죄 초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여성범죄자의 비율
		컴퓨터 범죄자수

12. 安全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로부터의 안전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교내폭력·협박 피해학생 수(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범죄피해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률과 10만명당 피해자수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피해액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주요범죄(피해)신고율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범죄방지	경찰관 1명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교도능력	주요범죄 재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사상자 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야기 도주 검거율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입체도로 시설수

12. 安全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상자수 및 피해(사상자수 및 피해액)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유죄선고율
		형집행유예 비율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13. 政府와 社會參與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치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교육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후원금·기부금 제공자 비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집회 참여도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정부	행정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공무원의 부처별 분포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재정	GDP 대비 기능별예산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예산
		국민 1인당 기능별예산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C. 將來開發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도시인구성장의 요인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순재생산율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가 족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
소득과 소비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부채가구 비율
노 동	파트타임(part time)근로자 비율
	재택근로자 비율
	파견근로자 비율
	전직자 비율
	고용보험적용사업체 비율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고용안정기금수혜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실업급여수혜자 비율
	고령자 재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 비율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재훈련수료자 지수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C. 將來開發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동	노동생산성 지수
	평균정년퇴직연령
	단체협약체결 기업체 비율
	종업원 지주제도 참여업체율
교육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전공선택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보건	무병 기대여명
	1인 보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주산기 사망률
	치매유병률
	정신질환 유병률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예방접종률
	건강검진율
	한방의료이용 회수 및 이유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부문별 국민의료비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고가장비대수(인구 1,000명당)
주거와 교통	과밀거주가구수
	편의시설 근접도
	버스·지하철 접근성

C. 將來開發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주거와 교통	장애인 편의시설수
	시내버스 혼잡률
	지하철 혼잡률
	자동차 주행속도
정보와 통신	100인당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자수
	의료업무 전산화율
	판매관리 전산화율
	금융전산망 크기
	행정전산망 정보입력률
	과학·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액
	가계정보관련비용 지출률
환 경	녹색 GDP
	1인당 녹색 GDP
	녹색 GDP/ GDP
	1인 1일 일반폐기물비출량 및 1일 특정폐기물배출량
	하수처리율
복 지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민간모금액 및 사용처
	연금급여 건당 평균급여비
	최저생계비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의 비율
	요보호아동 발생수
	요보호여성 수(미혼모, 기혼여성)
문화와 여가	취미 및 교양학원별 수강자수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안 전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불의의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D. 主觀的 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이상자녀수
	자녀수에 대한 의식
	지난 1년간 이주의 원인별 구성비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가 족	기대 자녀수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중요한 생활관심사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남아선호도
	대잇기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의식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만족도
노 동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D. 主觀的 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 동	희망정년시기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선택요인
교 육	자녀교육의 목적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한 인식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성형성의 효과(덕)
	건강·체력증진의 효과(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선택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보 건	혈압정상 비율
	개인의 건강평가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주거와 교통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주택방수
	원하는 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현거주지 선택 이유
	현거주지역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정보와 통신	정보화를 위한 투자실태에 대한 만족도

D. 主觀的 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정보와 통신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환 경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주관적 오염도
복 지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시설입소희망 노인인구 비율
문화와 여가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 전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자가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D. 主觀的 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안 전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주요범죄의 질적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부와 사회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E. 特定集團別 指標體系

1. 女性關聯 個別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총조사 인구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지역별 출생시 성비
	지역 및 연령별 성비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순재생산율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가족계 획실천율
	연령별 및 합계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이상자녀수*
	성·연령별 사망률
	기대여명
가 족	가족의 형태별 분포
	평균초혼연령
	조혼인율
	조재혼율
	첫자녀 출산연령

1. 女性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가 족	기대 자녀수*
	조이혼율
	이혼사유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혼인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남아선호도*
	대잇기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기혼여성 취업자 비율
	여성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성별 평균임금격차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업선택요인*
	성별 근속연수 격차
	성별 근로시간 격차
	성별 이직률비

1. 女性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교 육	국민의 학력구성비
	진학률
	여교원 비율
보 건	연령별 기대여명
	무병 기대여명
	음주율 및 과음횟수
	1인당 주류소비량
	흡연율 및 흡연량
	65세 이상 사망 비율
	모성사망률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유병률
정보와 통신	컴맹비율
복 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수용인원
	시설별 평균중사자수
	요호호여성 비율(가출여성, 미혼모)
문화와 여가	공연예술 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여가활용방법

1. 女性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안 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여성범죄자의 비율
정부와 사회참여	투표율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자원봉사 참여율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2. 老人關聯 個別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총조사 인구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국민평균연령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성·연령별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가 족	가구의 형태별 분포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중요한 생활관심사
	노후준비방법
	노인가구 비율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노인의 가족내 역할
	선호하는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소득과 소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소득 만족도*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취업자 구성비
	고령자 재고용 비율
	평균정년퇴직연령

2. 老人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 동	희망정년시기*
교 육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보 건	연령별 기대여명
	무병 기대여명
	혈압정상 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음주율 및 과음횟수
	1인당 주류소비량
	흡연을 및 흡연량
	65세 이상 사망 비율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치매 유병률
	유병률
	건강검진율
	한방의료이용 회수 및 이유
	의료서비스 미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주거와 교통	자가보유율
복 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가입자 대비 수혜자
	연금급여 건당 평균급여비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수용인원
	시설별 평균종사자수

2. 老人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북 지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의 비율
	시설입소희망 노인인구 비율*
문화와 여가	구독신문 종류 및 빈도
	신문의 관심분야*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TV 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공연예술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여가활용방법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안 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정부와 사회참여	투표율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자원봉사 참여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집회 참여도

3. 靑少年關聯 個別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총조사 인구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인구(구성비)
가 족	가족의 형태별 분포
	미성년가구 비율
	편부모 및 부모 외 친족가구 비율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교 육	취학률
	진학률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중퇴율
	비행발생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보 건	신장
	체중
	흡위
	체질량지수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유병률(기간)

3. 靑少年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보 건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주거와 교통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된 통근·통학수단
정보와 통신	컴맹비율
	이동통신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빠빠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복 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수용인원
	시설별 평균종사자수
	요보호아동발생수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수 및 아동수
	아동입양현황
문화와 여가	전시장 입장률
	공연관람장 입장률
	공공도서관현황 및 이용률
	보유장서수, 구입인구, 독서인구 비율
	잡지발생부수 및 구독률
	음반, 테이프 등 구입 비율
	TV 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공연예술 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3. 靑少年關聯 個別指標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문화와 여가	비디오 시청률 및 시청편수
	여가활동 방법
안 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교내폭력·협박 피해학생수(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불의의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정부와 사회참여	통일에 대한 태도*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계층의식*
	자원봉사 참여율

4. 障礙人關聯 個別指標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 동	장애인고용 비율
교 육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주거와 교통	장애인 편의시설수
복 지	장애인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시설수용장애인 비율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

F. 國際比較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총조사인구
	연앙추계인구
	연평균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연령별인구(구성비)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합계 출산율
	성·연령별 사망률
	기대여명
소득과 소비	GDP 및 GNP
	1인당 GDP 및 1인당 GNP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율
	1인당 소비지출액
	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총저축율
	국내총투자율
	대외투자율
	노동소득분배율
	소득10분위별 분포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분배율)

F. 國際比較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소득과 소비	조세부담률
	비조세부담률
	소비자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구매력 지수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중 피용자율
	취업자 구성비
	고령취업자 구성비
	실업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교육	취학률
	교원 1인당 학생수
	여교원 비율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보건	연령별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주요사망원인구성비
	열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유병률
	병상이용률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F. 國際比較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주거와 교통	주택보급률
	자동차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도로연장
정보와 통신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
	특허수(대내, 대외)
	전화보급률
	인터넷(internet) 가입률
환 경	1인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1일 특정 폐기물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및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배출량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1인당 녹지면적
	GDP 대비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복 지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시설 공간수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이용률
	도서발행 종류 및 부수
	해외여행 비율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안 전	주요 범죄별 범죄자수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범죄율
	경찰관 1명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정부와 사회참여	국회의원중 여성의원 의원 비율
	종교인구 비율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GDP 대비 기능별 예산

第 6 章 用語解説 및 算式

1. 人口
2. 家族
3. 所得과 消費
4. 勞動
5. 敎育
6. 保健
7. 住居와 交通
8. 情報와 通信
9. 環境
10. 福祉
11. 文化와 餘暇
12. 安全
13. 政府와 社會參與

1. 人口

1-1. 총조사 인구

- 총조사 인구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시점(11월 1일 0시) 현재의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임(단, 외국인 제외).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 연앙추계인구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총조사시 중복과 누락을 고려하여 실제 성·연령별 인구를 추계하고,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센서스년간에 연도별로 추계한 인구임.
- 총조사 실시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인구보다 많거나 적은 이유는 총조사 인구의 누락 또는 중복분을 수정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임.
- 算 式 : (조성법) $P_1 = P_0 + B - D + IM - OM$,
(지수법) $P_1 = P_0 e^r$
- 資料源 : 통계청, 『추계인구』

1-3. 연평균 인구성장률

- 연앙추계인구를 기초로 계산한 연도별 인구간의 성장률을 의미함.
- 算 式 : $r = (P_1 / P_0) \times k$
단, 총조사인구를 이용한 5년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계산할 경우, $r = (1/5) \times \ln(P_1 / P_0)$
- 資料源 : 통계청, 『연앙추계인구』, 『총조사인구』

1-4.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 인구의 이동요인을 제외할 때,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자연증가라 하고, 자연증가율은 총인구에 대한 자연증가인구의 비율임. 그러므로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로 표시할 수 있음.
- 조출생률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조사망률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算 式 :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text{조출생률} = (\text{연간출생아수} / \text{총인구}) \times 1,000$$

$$\text{조사망률} = (\text{연간사망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

◦ 資料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5. 장래추계인구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의 동태율(출생·사망·이동률)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 인구임.
- 조성법에 의한 추계인구를 의미함.
- 算 式 : $P_1 = P_0 + B - D + IM - OM$ (조성법)
- 資料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6. 장래자연증가율

- 장래추계인구의 해당연도 자연증가율임. 장래추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임.

- 算 式 : 조출생률 - 조사망률
- 資料源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1-7. 장래인구성장률

- 장래추계인구의 해당년도 인구성장률이나 연도별 장래추계인구기간(5년 또는 10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음. 인구성장률은 자연증가율에 이민에 의한 영향(이민율)을 합한 개념임.
- 算 式 : 장래추계인구를 작성할 때 적용한 성장률을 이용하거나 연도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는 ‘연평균성장률’의 산식을 이용함.
- 資料源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1-8. 연령별 인구(구성비)

- 총조사인구 또는 연앙추계인구의 성·연령별 인구이며, 총인구에 대한 성·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계산함.
- 算 式 : $(\text{연령별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앙인구추계』

1-9. 국민평균연령

- 총인구의 산술평균연령을 계산할 수 있으며, 중위연령으로 국민평균연령을 대신하기도 함.
- 算 式 : 평균연령 = 총인구의 총연령 / 총인구수

$$\text{중위연령} = l_{md} + [\{ (N/2) - \sum f_i \} / f_{md}] \times i$$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1-10. 부양인구비

- 총인구(연앙추계인구)중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율로서 생산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유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로 나눌 수 있고, 두 부양인구비의 합을 총부양인구비라고 함.
- 일반적으로 부양비가 늘어나면 저축능력이 감소되고 부양비가 줄어들면 저축능력이 향상됨.
- 算 式 : 유년부양비= $P_{0\sim 14} / P_{15\sim 64}$
노년부양비= $P_{65+} / P_{15\sim 64}$
총 부양비= $(P_{0\sim 14} + P_{65+}) / P_{15\sim 64}$
- 資料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1. 노령화지수

- 연소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동 지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인구의 노령화’라 하며 ‘인구의 연소화’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 算 式 : $P_{65+} / P_{0\sim 14}$
- 資料源 :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12. 지역별 출생시성비

-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표시되며 출생아의 성비를 출생시 성비라고 함. 출생시 성비는 지역별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算 式 : 성비= $(P^m / P^f) \times 100$

$$\text{출생시 성비} = (B^m / B^f)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13. 지역 및 연령별 성비

· 출생시 성비와 달리 연령별 성비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이나 성별 사망률의 차이 등에 따라 변함.

◦ 算 式 : $\text{연령별성비} = (P_i^m / P_i^f)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앙추계인구』

1-14.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 혼인상태별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성·연령별 인구에서 혼인상태별 인구의 구성비를 계산함. 혼인상태는 4가지(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함.

◦ 算 式 : $(\text{혼인상태별인구} / \text{성·연령별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5.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 기혼자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에 대한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임.

· 초혼연령을 7구간(-19, 20~21, 22~23, 24~25, 26~27, 28~29, 30+)으로 구분하였음.

◦ 算 式 : $(\text{초혼연령별인구} / \text{성·연령별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16. 시도별 인구(구성비)

·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9개 도의 인구를 말함. 시도별 인구구성비를 포함함.

- 算 式 : (시도별인구 / 전국인구)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17.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

- 행정구역상의 시부, 읍부, 면부별 인구를 말함. 광역시에 포함된 읍과 면도 읍부와 면부로 분류함. 시·읍·면부별 인구구성비를 포함함.
- 算 式 : (시·읍·면부인구 / 전국인구)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18. 시도별 인구밀도(구성비)

- 15개 시도의 평방 Km당 인구밀도를 말함.
- 算 式 : 시도별인구 / 시도별면적(Km²)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19.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 인구규모별 해당도시의 총인구와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도시규모를 5구간(-10, 10~20, 20~50, 50~100, 100~ :만명) 등으로 구분하였음.
- 算 式 : 시도별 인구구성비 = (시도별인구 / 전국인구)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20. 수도권 인구(구성비)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함.
- 算 式 : $(\text{수도권인구} / \text{전국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21. 5대 광역시별 인구(구성비)

- 5대 광역시도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의미하며,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를 계산함.
- 算 式 : $\text{광역시별 인구구성비} = (\text{광역시별인구} / \text{전국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22. 도시인구성장의 요인

- 도시인구의 성장은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로 구분됨.
- 산 식 : $\text{도시인구성장} = \text{자연증가}(P_B - P_D) + \text{순인구이동}(\text{전입자수} - \text{전출자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1-23. 연령별 출산율(ASFR)

- 15~49세의 가임연령인구의 연령별 출산율임. 연령층별로 여성 1인당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추정하는 지표임. 20대 후반이 가장 높고 그 후 감소하여 50세를 전후로 0이 되며, 결혼연령, 연령별

유배우율, 연령별 피임실천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

- 算 式 : $(\text{출생아수} / \text{연령별여자인구}) \times 1,000 = (B_i / P_i^f) \times 1,0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4. 합계 출산율(TFR)

-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서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타 사회와 비교할 때 단일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산출함.
- 算 式 : $5 \times \sum ASFR_i$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5.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 여자의 출생코호트(특정 연도에 출생한 집단)별로 전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한 평균 총 출생아수를 말함.
- 算 式 : $\text{누적출산율(TFR)} = 5 \times \sum ASFR_i$
단, 연령별 출산율은 동일 코호트의 출산율임.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26. 유배우 출산율(MFR)

- 15~49세 유배우 부인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함.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음.
- 법률상으로는 미혼이나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여성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算 式 : (특정기간 출생아수/
동기간 가임연령의 유배우 여자인구) × 1,000
= $(B / P^{mf}) \times 1,0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27. 순재생산율(NRR)

- 합계출산율에서 여아에 대한 출산율을 계산하고, 다시 여아출산 시 어머니의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여아의 수를 말함. 순재생산율이 1명일 때 장래인구는 정지상태에 접근하게 되고, 1명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장래인구는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됨.
- 算 式 : $n \sum \{ \text{연령별 출산율} \times (100 / 205) \times SR_{0 \rightarrow 1}^f \}$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28.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 조사당시 기혼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를 말함.
- 『가족』부문의 ‘평균출생아수(2-5)’에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총출생아수 / 기혼부인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

1-29. 가족계획 실천율

- 가임연령기에 있는 유배우 부인의 부부총수에 대한 가족계획실천 중인 부부수의 비율을 말함.
- 가족계획실천율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일환인 정부가족계획 사

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었음.

- 동지표는 평균 3년주기로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 약 6,500명 ('88년 기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후 추계하고 있음.
- 산 식 : (가족계획실천 부부수/ 15~49세 유배우 부인수)×1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30. 연령별 및 합계인공임신중절을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은 가임연령기의 5세 계급별 여자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로 표시되며,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가임연령 기간동안 여자 1인당 총 인공임신중절 회수를 합계인공임신중절률이라 함.
- 算 式 :
$$\text{연령별중절률} = (\text{연령별인공임신중절건수} / \text{연령별여자인구}) \times 1,000$$

$$\text{합계중절률} = n \sum (\text{연령별인공임신중절률})$$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31.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15세 이상 연령계급별 여자인구에 대한 인공임신중절경험이 있는 여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 算 式 :
$$(\text{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수} / \text{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32. 이상자녀수

-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은 그것이 결국 실제의 출산형태로 표출되어 출산력수 준, 피임실천양상,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연결되는 근원적 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

- 이상자녀수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의 주관적 자녀수로서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의 한 척도임.
- 이상자녀수는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기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33. 자녀수에 대한 의식

- 15세 이상 여자의 가족규모에 대한 의식을 질문을 통하여 파악함. 이것은 장래자녀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1-34. 성·연령별 사망률

- 성·연령별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수로 표시함. 연령을 5세 계급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5세 미만에서는 0세(영아)와 1~4세(유아)로 구분함.
- 算 式 : 연령별 사망률 = (연령별 사망자수 /
연령별 인구) × 1,000

$$ASDR_i = (D_i / P_i) \times 1,0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35. 표준화 사망률

- 조사망률은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받으므로 서로 다른 인구나 서로 다른 시기의 조사망률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음.

그러므로 표준인구 또는 표준연령별 사망률을 서로 다른 인구나 시기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사망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함.

- 算 式 : 직접 또는 간접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며, 1990년 연령별 인구를 표준인구로 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1-36. 기대여명

-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함.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함.
- 연령별 기대여명의 변화로 연령별 사망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
- 『보건』부문의 ‘연령별 기대여명(6-1)’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이용함.
- 資料源 : 통계청, 『생명표』

1-37.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 지역별 국내 순인구이동률로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로 표시됨.
- 算 式 : 전입률 = (지역별 전입자수 / 지역별 인구) × 100
 전출률 = (지역별 전출자수 / 지역별 인구) × 100
 순인구이동률 = 전입률 - 전출률

$$NMR_i = \{ (IM_i - OM_i) / P_i \}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인구이동특별조사』

1-38. 지역별 전·출입자 현황(순이동 포함)

- 지역(시도, 시부·군부)별 전입자와 전출자 통계를 작성함. 전출자

와 전입자의 차이가 순이동이 됨. 또한 총전입자수에 대한 지역별 전입자 또는 전출자의 구성비를 계산함.

◦ 算 式 : 순이동자수 = 전입자수 - 전출자수

지역별 전입자수 구성비 = (지역별 전입자수 / 총전입자수)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인구이동특별조사』

1-39. 지난 1년간 이주상태

· 지난 1년간 지역별 이주자의 구성비와 이주방향별 이주자수를 계산함.

◦ 算 式 : 이주자의 구성비 = (1년간 이주자수 /

지역별 인구) ×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40. 지난 1년간 이주의 원인별 구성비

· 지난 1년간 이주한 사람들의 이주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별 구성비를 계산함. 응답범주는 직장을 얻어서, 새집을 장만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자녀교육목적으로,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기타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41. 지역별 출입국 현황

· 출국자중 내국인수, 입국자중 외국인수는 국제화 진행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입·출국자에는 내국인, 외국인, 외국선원, 한국선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별 출입국자수를 집계함. 총 출입국자수에 대한 국가별 출입국자수의 구성비를 집계함.
- 算 式 : 국가별출국자구성비 = $(\text{국가별출국자수} / \text{총출국자수}) \times 100$
- 資料源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현황통계』

1-42. 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 주거목적으로 이주한 이민자수를 집계함. 지역(국가)별 이민자수의 구성비를 계산함.
- 算 式 : 국가별 이주허가자 구성비 = $(\text{국가별이주허가자수} / \text{총이주허가자수}) \times 100$
- 資料源 : 외무부, 『이주 또는 귀국허가통계』

1-43, 1-44. 이민에 대한 태도 및 선호하는 이민지역

- 이민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 이민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이민을 원할 경우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요즈음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 이민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외국에 가서 살고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등의 응답범주로 조사될 수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돈을 잘 벌 수 있다, 국내가 불안하여 외국으로 피하고 싶다,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기타 등의 응답범주가 있음.
- ‘이민의사가 있다면 어느 지역(국가)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서유럽, 일본, 기타 등의 응답 범주가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 家族

2-1. 총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2. 평균가구원수

- 가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 가구의 형태별 분포

- 가구형태를 단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4. 평균동거가족원수

- 가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센서스 자료에서는 친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도 포함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5. 평균출생아수

- 조사당시 기혼부인의 평균출생아수를 의미함.
- 『인구』부문의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1-28)’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평균동거가족원수가 한국적인 가족개념임에 비하여, 서구적인 가족개념에 기초한 지표로 가족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의 출생아수로 가족의 크기를 파악함.
- 算 式 : 총출생아수/ 기혼부인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실태조사』

2-6.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세대별 가구비율로 일반가구는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비혈연 6인이상 가구)와 외국인가구가 제외된 가구임.

· 가구구성형태비율은 국민의 가족생활의 한 측면과 그 변화추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세대별 가구정의

1세대가구 : 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기타 친척

2세대가구 : ① 부부+자녀 ② 편부모+자녀 ③ 부부+양친

④ 부부+편부모 ⑤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⑥ 부부+손자·손녀 ⑦ 편조부모+손자·손녀

⑧ 기타

(부부+편부모+부부 또는 편부모의 형제자매/

부부+양친+부부 또는 양친의 형제자매/

부모+자녀+편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손자·손녀)

3세대가구 : ① 부부+자녀+양친(또는 편친)

② 양친(또는 편부모)+부부+자녀+부부 또는

양친의 형제자매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7. 가족의 형태별 분포

·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나누어 조사함.

· 핵가족은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편

부모와 미혼자녀, 미혼 형제로만 구성된 가족을 뜻하며, 이외의 가족은 확대가족임.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8. 가족의 핵수별 분포

· ‘핵’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 또는 혼자사는 기혼자를 의미하며, 가족의 핵수로서 1핵, 2핵, 3핵, 4핵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9. 평균초혼연령

· 15세 이상 5세 단계별로 미혼인구비율에서 계산(Hajnal-methods)된 것으로, 상식적 개념의 평균초혼연령이 아님.

◦ 算 式 : * Hajnal methods

15세 ~ 19세 미혼인구비 A%

20세 ~ 24세 미혼인구비 B%

:

45세 ~ 49세 미혼인구비 G%

50세 ~ 54세 미혼인구비 H%

$I = \sum(A\% + B\% + \dots + G\% + H\%), I \times 5 = J, J + 1500 = K$

45~49세, 50~54세 미혼인구비의 평균(L)

$L = (G + H)/2, L \times 50 = M, K - M = N, 100 - L = P$

평균초혼연령 = N/P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0.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 算 式 : 결혼율= (연간 결혼건수/ 연앙인구)×1,0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1. 조재혼율

- 算 式 : 재혼율= (연간 재혼건수/ 연앙인구)×1,0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2. 첫자녀 출산연령

- 첫자녀의 출산연령을 통하여 가족생활주기의 한 단계인 가족확대기의 출발점을 파악함.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2-13. 기대 자녀수

- 완결 가족의 크기의 간접적 지표로서 기대자녀수를 조사함.
-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함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현존자녀수에 장차 추가로 더 낳으려는 자녀수를 합한 것으로 응답자들의 실제 출산행태의 결과인 현존자녀의 수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에 보다 가깝게 자녀 규모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14. 조이혼율

- 算 式 :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 연앙인구)×1,0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5. 이혼사유

- 이혼행위는 당사자, 자녀, 사회복지 등에 대하여 상호갈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용함.
- 이혼사유는 호적신고에 의한 이혼건수를 이혼사유별로 집계한 것으로 신고지연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실제 이혼발생연도별로 추가건수를 보완하여 재분류 집계하므로 과거연도(10년 이내) 자료가 매년 변동됨.
- 이혼사유는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의 문제, 경제문제,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16. 거주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주거와 교통』부문의 ‘주택의 유형분포(7-4)’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2-17. 거주주택의 소유

- 현재 타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타지역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기집을 가진 가구비율을 의미함.

- 우리사회에서 주택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며 경제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어 거주주택의 소유유무는 가족의 안녕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임.
- 『주거와 교통』부문의 ‘자가 보유율(7-5)’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text{자가보유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8. 가구당 주거공간

-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임.
- 『주거와 교통』부문의 ‘가구당 사용건평(7-18)’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text{총사용건평} / \text{총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19. 가구소득분포

- 가족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기초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20. 가구지출구조

- 전가구의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의 구성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소비지출, 식료품, 외식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육비, 교통·통신, 개인교통비, 기타소비, 잡비 등으로 세분됨.
- 『소득과 소비』부문의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3-16)’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지출률은 해당 부문에서도 각각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가구소비지출항목구성비 = (항목별가계소비지출 / 총가계지출) ×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참조)

2-21. 가구당 저축비율분포

- 가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算 式 : (저축액 / 가처분소득) ×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22.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 가족의 경제적인 생활형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족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여유를 느끼고 있는지여부를 조사함.
-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재산등 가정생활에서의 경제적 측면의 만족도를 매우 여유가 있다,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 빠듯한 형편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23. 중요한 생활관심사

-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조사함. 응답은 자녀양육, 자녀교육, 원활한 부부관계, 부모부양, 경제문제, 직업 또는 직장문제, 건강문제, 기타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24. 노후준비방법

-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해서 현재 행하고 있는 노후준비방법 유무 및 구체적 준비방법을 보험, 임금, 연금, 부동산운용, 유가증권, 기타로 구분 파악함.
- 준비방법이 여러가지인 경우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반드시 노후준비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해질 경우만 노후준비방법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25. 가족여가활동현황

- 주말, 공휴일, 휴일의 가족단위의 여가활동방법을 조사함. 이는 『문화와 여가』부문의 ‘여가활동방법(11-25)’이 개인을 단위로 한 것임에 비하여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활동종류는 여행, 영화관람, 음악회, 연극 또는 미술관람, 스포츠 또는 스포츠 관람,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빈도는 한달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정도, 전혀 안한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26. 가족외식빈도

-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을 단위로한 (가족 전부 또는 가족의 일부) 외식의 빈도를 1주일에 1번 정도, 한달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거의 안한다로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27. 가족생활용품현황

- 가족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용품의 소유현황을 살펴보는 지표임.
- 인공위성 수신장치, 케이블 TV, 사우나 시설, 자가용과 차고, 에어컨, Fax,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의 소유현황을 살펴봄.
- 『주거와 교통』부문의 ‘에어콘 소유가구율(7-31)’과 『정보와 통신』부문의 ‘가구당 Fax 보급률(8-11)’, ‘CATV 가입률(8-18)’, ‘위성방송안테나 설치가구비율(8-18)’에, 『문화와 여가』부문의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11-10)’에도 일부 제시되어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충)

2-28. 노인가구비율

- 불안정가구의 한 유형으로, 이 때 노인가구란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일컫는 것임.
- 算 式 : $\{ (\text{노인1인가구수} + \text{노인부부가구수}) / \text{총가구수} \}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29.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 노인 중 노인가구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는 지표로, 불안정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사회적 관심을 요하는 노인층을 나타냄.
- 算 式 : $\{ \text{노인가구에 사는 노인수} / \text{총노인수(65세+)} \}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0. 노인의 가족내 역할

- 노인이 가족내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31. 미성년 가구 비율

- 불안정 가구의 한 유형으로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임.
- 算 式 : $(\text{미성년 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2. 편부모 및 부모가 없는 친족가구비율

- 편부모 및 부모와의 친족과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비율로 가족구조의 불안정을 나타냄.
- 算 式 : $(\text{편부모 및 부모와 친족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3. 여성가구주가 가구 비율

- 여성가구의 비율로 가족구조의 불안정을 나타냄.
- 算 式 : $(\text{여성가구주가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34. 혼인에 대한 태도

- 혼인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나누어 태도를 조사함.
-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한한 해야 한다, 구속할 필요없다, 안하는 것이 좋다고 나누어 조사하며, 여자의 경우는 경제력이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추가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35. 이혼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자녀가 없을 때, 어린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조사함.
- 응답은 적극정으로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적극적으로 반대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36. 재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로, 자녀가 없을 때, 어린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조사함.
- 응답은 적극정으로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적극적으로 반대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37. 남아선호도

- 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남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함. 응답은 꼭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갖는 것이 좋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38. 대잇기에 대한 태도

- 남아선호도와 함께 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아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사함.
- 응답은 남자쪽 형제나 친척 중 양자를 들인다,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자를 들인다, 딸로 대를 잇도록 한다, 사위로 대를 잇도

록 한다, 그대로 지낸다고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39. 선호하는 가족형태

- 핵가족에 대한 이념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생활을 조사함.
- 응답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산다,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산다, 혼자산다고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40.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년기의 주거형태를 조사함.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함.
- 응답은 아들과 함께 산다, 자녀와 함께 산다, 따로 살며 아들이 부양한다, 따로 살며 자녀들이 부양한다, 완전히 독립하여 따로 산다고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41.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 자녀결혼시의 이상적인 거주형태를 조사함. 응답은 부모와 동거한다, 일정기간 동거한 후 분가한다, 처음부터 분가한다, 처음에 분가한 후 노후에 동거한다고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2-42. 기혼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가족내의 차별적인 여성역할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자녀가 없을 때,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성장했을 때로 나누어 살펴봄.

- 『노동』부문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4-15)’에도 제시되어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4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를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와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조사함.
- 응답은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이 도와야 한다, 공평하게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주로 해야 한대로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3. 所得과 所費

3-1. GDP 및 GNP

- GNP는 한 나라안의 가계 · 기업 ·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 정기간(주로 1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지표임.
- GNP는 적용가격에 따라 경상 GNP와 불변 GNP로 구분됨. 경상 GNP는 각 년도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 이며, 불변 GNP는 각년도의 생산물에 기준년도의 가격(불변가 격)을 곱하여 산출함.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의 GNP를 추계하는 까닭은 국민경제의 구조나 국민소득 구성요소의 변동 등을 분석하는데는 경상 GNP가 더 유용하고, 국민경제가 장기적 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불변 GNP가 더 유용하 기 때문임.
- GDP는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총계 를 의미하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민총생산(GNP)에서 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수취요 소소득 - 대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것임.
- 算 式 : $GDP = GNP - \text{대외순수취요소소득}$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 1인당 GDP 및 1인당 GNP

- GNP (또는 GDP)를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값이 원화로 표시한 1인당 GNP (또는 1인당 GDP, 원화표시)이고, 이를 다시 대미 달러화 환율로 나누면 달러화로 표시된 1인당 GNP (또는 1

인당 GNP, 달러화 표시)가 된다. 국내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1인당 GNP 그 자체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의 국제간 비교에 주로 쓰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은 평균 대미공정환율(한국은행 집중기준율)임.

◦ 算 式 : 1인당GNP(원화표시) = 경상GNP(원화표시) /

연앙인구

1인당GNP(달러화표시) = 1인당GNP(원화표시) /

평균환율

1인당GDP(원화표시) = 경상GDP(원화표시) /

연앙인구

1인당GDP(달러화표시) = 1인당GDP(원화표시) /

평균환율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3.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함.

◦ 算 式 :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총생산 - 고정자본소모

+ 대외순수취경상이전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4. 개인가처분소득

·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소득을 분배면에서 볼 때 제도부문별 분류중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이 여기에 해당됨. 개인소득(PI)에서 직접세(소득세 등)와

기타 경상이전지급(교포에 대한 송금 등)을 공제한 것이 개인가처분소득임. 이 개인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을 분배측면에서 본 지표이며 소비와 저축결정에 널리 이용됨.

◦ 算 式 : 개인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 직접세 - 경상이전지급

*개인소득이란 좁은의미의 국민소득(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인 법인소득과 일반정부의 재산소득을 공제하고 정부의 사회보장비와 대외수취경상이전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부분을 합한 것을 말함.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5. 가구당 평균소득

- 총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값임.
- 가구주가 도시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비정기적인 소득 (퇴직금, 연금일시금과 복권, 경품권 등에 의한 상금 등)은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
- 농가월평균소득은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수입)의 합으로 구성됨.

◦ 算 式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농가 월평균소득 = 농가의 농업소득 + 농외소득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3-6.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가구주가 도시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비정기적인 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과 복권, 경품권 등에 의한 상금 등)은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
- 算 式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기타소득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7. 농가 월평균소득

- 농가 월평균소득은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의 소득, 이전수입)의 합으로 구성됨.
- 算 式 : 농가의 농업소득 + 농외소득
- 資料源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보』

3-8.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 농촌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算 式 : $(\text{농가 월평균소득} / \text{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

3-9. 소득원천별 구성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사회보장수혜 등을 모두 합산한 것임. 또한 이 지표는 지방화 시대의 구현에 발맞추어 지역별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

- 算 式 :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이자 및 배당금 + 임대료 + 사회보장수혜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10. 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Product: GRP)

- 지역내총생산(GRP)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지역주민이 경제 활동을 통해 새로이 창출한 최종생산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임. 각년도의 생산물을 각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경상GRP이며,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불변GRP 임.
- 資料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1. 1인당 GRP

- 1인당 GRP는 총 GRP를 당해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임.
- 算 式 : 경상GRP / 당해지역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2. 지역별 생산구조

- 資料源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13.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算 式 : 민간소비지출률 = (민간소비지출 / 국내총생산) × 100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4. 1인당 소비지출액

- 민간소비지출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것임.
- 算 式 : $\text{민간소비지출} / \text{총인구}$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5.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 가구당 평균 세분소비재지출 비율을 지표화한 것임. 내구소비재는 실질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내구소비재 지출의 증가율은 가구당 실질자산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내는 대리지표가 됨.
- 算 式 : $\text{가구당 내구소비재지출률} = (\text{내구소비재 지출액} / \text{총가구수}) \times 100$
 $\text{가구당 준내구소비재지출률} = (\text{준내구소비재 지출액} / \text{총가구수}) \times 100$
 $\text{가구당 비내구소비재지출률} = (\text{비내구소비재 지출액}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16.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전가구의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의 구성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소비지출, 식료품, 외식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육비, 교통·통신, 개인교통비, 기타소비, 잡비 등으로 세분됨.
- 算 式 : $\text{가구소비지출항목구성비} = (\text{항목별 가계소비지출} / \text{총가계지출})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17.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지출률

- 算 式 : 가구소득에 대한 내구소비재지출 비율=

$$(\text{내구소비재지출} / \text{총가구소득})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18, 3-19. 도시근로자가구당 평균소비성향 및 월평균 흑자율

- 근로자가구의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이 가처분소득인데,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소비성향임. 한편 평균흑자율은 가처분소득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흑자율임. 평균소비성향과 평균흑자율의 합은 항상 1이 됨.
- 算 式 : 평균소비성향 = $\{ \text{소비지출} / (\text{총소득} - \text{비소비지출}) \} \times 100$

$$\text{평균흑자율} = (1 - \text{평균소비성향})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20. 총저축률

- 국민총가처분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국민저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되며 투자의 재원조달 역할을 함.
- 算 式 : 총저축 = 국민총가처분소득 - 총소비

$$\text{총저축률} = (\text{총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text{민간저축률} = (\text{민간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text{정부저축률} = (\text{정부저축}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1, 3-22.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

-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대외투자(경상계정잉여)의 국민총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임.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의 합은 총저축률과 사후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됨.

$$\begin{aligned} \circ \text{算式} : \text{국내총투자율} &= (\text{국내총투자} + \text{해외투자} / \\ &\quad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 \text{대외투자율} &= (\text{대외투자} / \text{국민총가처분소득}) \times 100 \end{aligned}$$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3. 가계저축률

- 총가계저축액이 총가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算式 : (총가계저축액 / 총가계수입)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24.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잔액을 총가구수로 나눈 것임.
- 算式 : 개인부문 금융자산잔고 / 총가구수
- 資料源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25. 부채가구 비율

- 부채가구비율은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가구당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비율이 1보다 큰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지방화시대의 구현과 더불어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算 式 : 부채가구 비율 = (부채가구수 / 총가구수) ×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26. 노동소득분배율

·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짐.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함.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으로 나눈 값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함.

◦ 算 式 :
$$\frac{\{(\text{피용자보수} + \text{대외순수취 피용자보수}) / \text{국민소득(좁은 의미, NI)}\} \times 100$$

* 국민소득(좁은 의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7. 영업잉여

·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주체에게 나누어지는데 이중 생산주체에게 귀속되는 몫을 영업잉여라고 함.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3-28. 순간접세

· 간접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정부가 그 물건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함.

- 算 式 : 순간접세 = 간접세 - 보조금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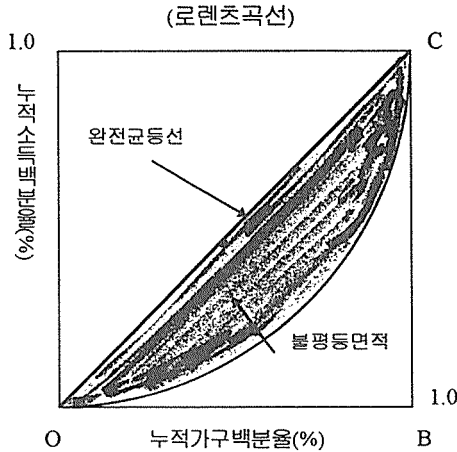
3-29. 소득10분위별 분포

- 소득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소득의 계층별분배이며, 일반적으로 개인별보다 최소 생활단위인 가구별로 분석하게 됨. 전체가구를 최저소득부터 최고소득까지 10분위(전체가구를 10%씩 구분)로 나누어 각 분위의 소득을 전체가구 소득의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임.
- 算 式 : 소득10분위별 분포 = (각분위의 소득수준 / 전체가구소득) ×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0.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소득10분위 분배율)

- 소득의 집중정도란 소득불평등의 척도를 말하며,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파레토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이 있음.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국제적 비교가 용이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사용하여 소득의 집중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은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고 1은 완전불균등분배를 나타냄.
- 10분위분배율은 소득10분위별로 등분된 소득분포자료에서 하위 40%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을 상위 20% 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로 나누어 얻음.
- 10분위분배율은 0에서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은 완전불균등분배를 나타내고 2는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냄.

· 로렌츠 곡선



- 算 式 : 지니계수= 호OC의 면적/ △OBC의 면적
- 10분위 분배율=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비율/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 비율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31.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수치상으로 분배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배상태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의 상대적 빈곤감이나 부, 소득집중도 등에 민감함. 이론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배상태와 주관적인 인식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통계조사시에 현재의 소득분배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을 실시하여 매우 불공평하다/약간 불공평하다/그저 그렇다/약간 공평하다/아주 공평하다는 5가지로 분류함. 지방화시대에는 지역간의 분배상태에 대한 인식 비교도 가능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2.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 『정치와 사회참여』부문의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13-28)’에서 자료가 제시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3.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이란 조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이와 같은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됨. 한편 조세수입의 포괄범위나 포착기준 등의 차이 때문에 국민계정통계상의 조세부담률과 재정통계상의 조세부담률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算 式 : $(\text{조세부담액} / \text{경상GNP})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3-34. 비조세부담률

- 비조세부담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算 式 : $(\text{조세 이외의 사회보험부담액} + \text{제 공과금}) / \text{총수입}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35. 장래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이 지표는 장래 경제적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함. 이 지표는 직업별, 소득계층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표화할 수 있으며, 지역간 비

교도 가능함.

- 많이 나빠질 것이다/나빠질 것이다/전과 비슷할 것이다/나아질 것이다/많이 나아질 것이다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6. 소득만족도

- 자기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지역별, 소득계층별, 및 직업별로 구분이 가능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37. 소비자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물가지수임.
- 식료품/주거비/광열·수도/가구집기·가사용품/피복·신발/보건의료/기타 등의 구분 또는 식료품/식료품이외의 구분이 가능함.
- 물가상승률이란 소비환경의 안정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선정된 지표이며, 물가상승 자체가 실질적·직접적인 감가이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음.
- 算 式 : 소비자물가상승률 = $\{ (\text{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text{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1 \}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물가연보』
한국은행, 『물가총람』

3-38. 구매력지수

-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算 式 : 구매력지수 = $1 / \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물가연보』

3-39. 수입물가지수

·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임.

◦ 資料源 : 한국은행, 『물가총람』
통계청, 『물가연보』

3-40. 공공요금지수

· 전기료, 수도료, 보건 및 의료서비스, 납입금, 공공서비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과 같은 공공교통요금 및 통신요금 등의 변동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물가연보』

3-41.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 소비환경의 개선을 보기 위한 지표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현대 경제사회의 발전에 상응하는 소비자 주권을 나타내는 척도인 동시에 국민 개개인 소비생활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資料源 : 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4. 勞動

4-1.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노동력인구비율이라고도 하며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임.
- 算 式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취업자중 피용자율

- 算 式 : $(\text{피용자} / \text{취업자})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3. 취업자 구성비

- 算 式 : $(\text{산업·직업별 취업자수} / \text{취업자})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4. 대기업근로자 비율

- 算 式 : $(\text{대기업근로자수} / \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5. 고령취업자 구성비

- 총근로자 중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 算 式 : $(\text{고령취업자} / \text{취업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6. 기혼여성취업자 비율

- 算 式 : $(\text{기혼여성취업자} / \text{취업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7. 외국인 근로자수 및 비율

- 算 式 : $(\text{외국인 근로자수} / \text{총 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4-8. 장기근속 비율

- 算 式 : $(\text{5년이상 근속근로자} / \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9. 상시취업률

- 算 式 : $(\text{상용고} / \text{총취업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0. 파트타임(part time)근로자 비율

- 算 式 : $(\text{취업시간대별 파트타임근로자수} / \text{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1. 재택근로자 비율

- 算 式 : $(\text{재택근로자수} / \text{총 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2. 파견근로자 비율

- 算 式 : $(\text{파견근로자수} / \text{총 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3. 여성관리직종사자 비율

- 算 式 : $(\text{여성관리직 종사자} / \text{여성취업자})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14.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 여성취업자에게 취업사유를 조사함. 취업상유는 생계유지, 가계보
 탸, 자기집일, 적성활용, 사회경험, 시간활용, 사회기여, 기타등으
 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15.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가족』 부문의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2-42)’에서 자료가
 제시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16.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算 式 :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7. 실업자 구성비

- 算 式 : $(\text{평균실업기간(월)} \times \text{실업자수}) / \text{총실업자수}$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8. 노동이동률(입직률 및 이직률)

- 입직률은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중 입직자(신규채용, 다른 사업체로부터 전입자)의 비율로 매월의 입직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 이직률은 전월말 근로자수에 대한 당월중 이직자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이직자란 해고, 사직(자진사퇴), 퇴직(군복무, 정년퇴직, 신체적 장애, 사망, 전출 등)자 등을 의미함.

$$\begin{aligned} \circ \text{算式} : \text{입직률} &= \{ \text{금월중입직자수} / \\ &\quad (\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금월말근로자수}) \div 2 \} \times 100 \\ \text{이직률} &= \{ \text{금월중 이직자수} / \\ &\quad (\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금월말근로자수}) \div 2 \} \times 100 \end{aligned}$$

◦ 資料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19. 전직자 비율

$$\circ \text{算式} : \{ (\text{금월중이직자수} - \text{비경제활동인구} - \text{실업자}) / \\ (\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금월말근로자수}) \div 2 \}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20. 구인배율

$$\circ \text{算式} : (\text{구인수} / \text{구직인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21. 취업알선 비율

- 취업알선비율은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비율임.

- 算 式 : $(\text{취업알선자수} / \text{구직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22. 고용보험적용사업체 비율

- 算 式 : $\text{고용보험가입사업체수} / \text{총사업체수}$
- 資料源 : 근로복지공단(1997부터 자료수룩가능)

4-23.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 資料源 : 근로복지공단(1997부터 자료수룩가능)

4-24. 고용안정기금수혜

- 資料源 : 근로복지공단(1997부터 자료수룩가능)

4-25.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 資料源 : 근로복지공단(1997부터 자료수룩가능)

4-26. 실업급여수혜자 비율

- 資料源 : 근로복지공단(1997부터 자료수룩가능)

4-27. 고령자 재고용 비율

- 算 式 : $(\text{재고용자} / \text{만기퇴직자})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4-28. 장애인 고용 비율

- 算 式 : $(\text{장애인 근로자수} / \text{총근로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4-29.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 算 式 : (기능자격증소지자수/ 총근로자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30. 직업훈련자수

- 사내훈련, 공공, 인정포함한 직업훈련자수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31. 재훈련수료자 지수

- 算 式 : (재훈련자수료자수/ 총근로자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32.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 算 式 : (전직훈련수료자수/ 총근로자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33. 주당 평균근로시간

-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임금수준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算 式 : 월평균근로시간× (7/30.4)
- 資料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34. 월평균근로일수

- 算 式 : { 월중근로일수/(전월말근로자수+당월말근로자수)÷2 }
- 資料源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

4-35.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 算 式 : 유급휴가 총일수/ 총근로자수
- 資料源 : (장래개발)

4-36.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

- 算 式 : (주휴2일제실시사업체수/ 100인이상사업체수)×100
- 資料源 : (장래개발)

4-37.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 算 式 : (변형근로시간 근로자수/ 총 근로자수)×100
- 資料源 : (장래개발)

4-38.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 임금수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100으로 하여) 산업별, 직종별, 교육수준별,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을 제시함.
- 평균임금지수는 임금총액에 대한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을 의미함.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39.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서 최하위란 업종별 최저임금중 최하위 업종의 임금을 의미함.
- 算 式 : (최하위 최저임금/ 전근로자 평균임금)×100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0. 임금계층별 임금수준(지니계수)

- 算 式 : 10%단위로 임금소득의 임금구조 기본조사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1. 노동생산성 지수

-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의 생산적 효율(productive-efficiency)을 의미하며, 기술혁신에 의해 크게 좌우됨.
- 算 式 : 산업생산지수 또는 불변GDP지수/ 연실근로시간지수
- 資料源 : 한국생산성본부자료

4-42. 기본급 비율

- 算 式 : (임금 중 기본급/ 임금총액)×100
- 資料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4-43, 4-44, 4-45, 4-46. 산업별·직종별·기업규모별·성별 평균임금격차

- 임금격차를 산업종류별, 직업종류별, 기업규모별, 성별로 살펴봄.
- 資料源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7. 노동분배율

- 算 式 : (피용자보수/ 국민소득)×100
- 資料源 : 한국은행, 『국민계정』

4-48. 평균정년퇴직연령

- 算 式 : (직급별가중평균 정년퇴직자연령총계/정년퇴직자수)
- 資料源 : (장래개발)

4-49. 희망정년시기

- 희망하는 정년연령을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4-50.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직무, 작업환경, 장래성, 임금, 근로시간, 인간관계,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등의 제차원에 걸쳐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함.
- 응답은 만족, 보통, 불만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51. 직업선택요인

- 직업선택요인을 명성·명예, 안정성, 수입, 보람, 발전성, 기타등으
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52. 직업병 유병근로자율

- 算 式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수/ 대상근로자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3. 재해발생률

- 算 式 :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1,000,0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4. 산재사망률

- 算 式 : (산재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5.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 算 式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총근로자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6. 성별근속연수 격차

◦ 算 式 : (여성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남성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7. 성별근로시간 격차

◦ 算 式 : (여성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
남성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58. 성별이직률비

◦ 算 式 : (여성근로자 이직률/ 남성근로자 이직률)×100

◦ 資料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59. 노동조합 조직률

◦ 算 式 : (조직근로자수/ 조직대상자)×100

◦ 資料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60. 단체협약체결 기업체 비율

◦ 算 式 : (단체협약체결기업체수/ 50인 이상 기업체수)×100

◦ 資料源 : (장래개발)

4-61. 노사분규건수, 손실일수 및 비율

- 算 式 : $(\text{노사분규손실일수} / \text{총노동일수}) \times 100$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4-62. 종업원지주제도 참여업체율

- 算 式 : $(\text{참여업체수} / 100\text{인 이상 사업체수})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5. 教育

5-1.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국교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초급 및 전문대중퇴 13년, 대학 이상 중퇴는 14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년수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 算 式 : 국민의 총교육년수/

{ (만 6세 이상 인구)-(학생수) }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 국민의 학력구성비

-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25세 이상 성인 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구성비로 나타낸 것임. 재학생 및 중퇴자의 경우는 바로 아래 단계로 하였음.

◦ 算 式 : { 교육단계별 졸업자수(중퇴자 포함)/

25세 이상 성인인구수 }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3. 자녀교육의 목적

- 국민의 일반적인 교육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자녀를 대학 이상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려는 경우 목적을 가구주에게 질

문하여 조사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추가

5-4.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 취원율은 4~5세 인구수(연앙추계인구)에 대한 원아수의 비율임. 유치원의 범위는 공·사립 유치원 및 각종 종교단체 운영 유치원을 의미함.

- 算 式 : $(\text{유치원 아동수} / \text{적령인구수}) \times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5. 취학률

- 算 式 : $(\text{취학자수} / \text{적령인구수}) \times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6. 진학률

- 졸업자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임. 진학률이란 당해년도 졸업자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을 말함. 예를들어 대학교 입학률은 진학률에서 고려되지 않은 재수생을 포함하여 계산한 비율임.

- 算 式 : $(\text{진학생수} / \text{졸업생수}) \times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7.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 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만명당 대학생수의 추이로 교육기회의 확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算 式 : (대학생수/ 총인구수)×10,0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8. 교육기회 미충족이유

-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응답자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이유를 조사함.

◦ 算 式 : 각 충족 이유/ 총 교육기회 미충족자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9.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 算 式 : (특수교육대상 취학자수/ 특수교육대상아동수)×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10.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 算 式 : 총사교육비/ 학생총수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1. 학생 및 교원현황

- 교육자원에 대한 중요한 지표임.

- 교원수의 범위는 시간교사를 제외한 전임교사(임시교사 포함)이 상인 재직교원수(휴직자 포함)이며, 2개교 이상 겸임 발령된 교원은 ①학교담임의 학교 ②담당수업시간이 많은 학교에 따라 구분하여 1개 학교의 교원으로 함.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2. 교원 1인당 학생수

◦ 算 式 : 총학생수 / 교원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3.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

- 교원별 경력년수의 합계를 총 교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임.
- 교원의 경력년수를 합계할 때 교육통계연보에서는 경력년수가 계급별(0~5년, 5~10년, 10~15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때 중앙값(2.5년, 7.5년, 12.5년...)에 해당계급 교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평균연령은 호적상의 만연령을 기준으로 “다. 평균연령년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음.

◦ 算 式 : 교원의 평균연령 = 교원의 총연령 / 총교원수

교원의 평균경력년수 = 교원의 총경력년수 / 총교원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4. 여교원 비율

- 算 式 : $(\text{여교원수} / \text{총교원수}) \times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5. 교원의 이·퇴직률

- 교원 이직률은 연간 이직 교원수가 총 교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직 교원수는 전년도 4월2일부터 당해년도 4월1일까지 1년 동안의 질병, 사망, 정년, 이직, 해임, 기타의 사유로 교직을 떠난 교원수를 의미함.
- 算 式 : $(\text{이·퇴직 교원수} / \text{총교원수}) \times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16. 사무직원당 교원수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임.
- 算 式 : $\text{총교원수} / \text{사무직원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17.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한 인식

- 교사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처우에 대한 평가를 일반인, 교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으로 나누어 조사.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18. 학교당 학급수

- 算 式 : 학급수/ 학교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19. 학급당 학생수

- 算 式 : 학생수/ 학급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0. 학생당 교지·건물·체육장 면적

- 교육시설의 확보는 학습의 과정에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영역으로 이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임. 대학교의 범의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타 각종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교에 국한함.
- 건물면적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 미술실, 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 교무실, 교장실), 기타교실 등의 면적으로 부대 건물의 면적은 제외됨.
- 교지면적은 학교소유, 공공소유, 개인소유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의미하며 농장과 연습림은 제외됨.
- 算 式 : 학생당 교지면적= 총학교교지/ 학생수
 학생당 건물면적= 총건물면적/ 학생수
 학생당 체육장면적= 총체육장면적/ 학생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1. 시설·비품 확보율

- 기존의 법정시설 파악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외에도 컴퓨터 시설,

시청각 시설, 급식 시설 등을 첨가하여 살펴봄.

◦ 算 式 : (현행 확보시설/ 법정시설)×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2. 특별교실 확보율

◦ 算 式 : (현행 특별교실확보수/ 법정 특별교실수)×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3. 도서실 장서·좌석수

◦ 算 式 : 학생당 장서수= 학교도서실 보유장서수/ 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학생수/ 학교도서실 좌석수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24. GDP 대비 공교육비

◦ 算 式 : 공교육비/ GDP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5.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 정부예산은 중앙정부예산만을 의미함. 교육예산은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가 있음. 교육비는 교육예산에서 간접교육비 부문(교육본부, 학술기관)을 제외한 세출예산임.

· 『정부와 사회참여』의 ‘정부예산의 구성(13-25)’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문교예산/ 정부예산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26.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교육비 지출률은 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육비에는 각급학교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잡부금 등이 포함됨.
- 『소득과 소비』부문의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3-16)’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text{교육비} / \text{소비지출})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5-27.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 算 式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text{총공교육비} / \text{학생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text{총사교육비} / \text{학생수}$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첨가)

5-28.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비율

- 算 式 : $\text{공교육비} / \text{각 단계별 학교교육비}$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29. 장학금 수혜학생비율

- 算 式 : $(\text{장학생수} / \text{총학생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3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

- 『정보와 통신』부문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8-1)’에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text{총연구개발지출}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5-31.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사부담 교육비의 부담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보통, 부담이 별로 없다, 부담이 전혀 없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5-32, 5-33, 5-34.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격형성에의 효과(덕), 건강·체력증진의 효과(체)

-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재학생·재수생을 제외하고 학급교육에 대한 효과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하였음. 이는 교육목표인 지·덕·체·생활직업에의 활용의 달성도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35. 중퇴율

◦ 算 式 : 중퇴학생수 / 총학생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36. 비행발생률

◦ 算 式 : 폭력, 절도, 흉악, 기타 비행발생수 / 총학생수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의 청소년지표』

5-37.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 교육수준별로 평균임금을 비교함.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38.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이 학교생활일반에서의 만족도를 학교급별(중,고,대학교)로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만족스러움, 만족스러운 편임, 불만족스러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장래개발)

5-39. 전공선택 만족도

- 전문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만족스러움, 만족스러운 편임, 그저 그렇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추가)

5-40.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중이거나 취업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과 전공이 얼마나 상응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응답은 매우 일치함, 일치하는 편임, 그저그렇다, 관계가 없는 편임, 전혀 관계가 없음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추가)

5-41. 졸업생의 취업률

-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수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 算 式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 - 기타) } ×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42. 계열별 학위취득자수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43. 전공계열별 대학생 비율

◦ 算 式 : (계열별 대학생수 / 전체 대학생수) × 100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6. 保健

6-1. 연령별 기대여명

-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를 말하며 평균 여명이라고도 함.
-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 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요구와 직결되는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6-2. 무병기대여명

-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하여는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하며, 기대여명에서 이러한 장애의 기대기간을 뺀 건강한 상태의 기대여명은 복지의 손실량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됨.
- 資料源 : (장래개발)

6-3, 6-4, 6-5. 신장, 체중, 흉위

- 연령별 학생의 신장, 체중, 흉위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성장지표이며 6~17세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임.
- 질병, 사망 등이 건강의 척도인데 비해 체위, 체격은 건강의 양성적인 척도인 동시에 영양상태의 간접적인 측정방법이기도 함.
- 체위에 관한 자료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한 것임.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6-6. 체질량지수(B.M.I)

-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체격지수(Body Mass Index)를 계측할 수 있으며, 이 지수는 비만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성인병 발병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지수는 25로서 아래의 산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수의 크기가 커질 수록 비만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

◦ 算 式 : 체중(kg)/ (신장(m))²

◦ 資料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6-7. 1인 보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 12세 아동 조사인구 전체의 부식치아수, 발치치아수, 보충치아수를 조사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세계 공통의 지표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자료는 없는 형편임.

◦ 算 式 : (D+M+F)의 수/ 조사인구

D: 부식치아수 M: 발치치아수 F: 보충치아수

◦ 資料源 : (장래개발)

6-8. 혈압정상비율

- 조사대상 중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 算 式 : (혈압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 총조사인구)×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9. 건강관리방법

- 개인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건강유지관리 방법(운동, 식사조절, 담배·술·절제, 보약·영양제 복용, 기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유병자가 치료목적을

위해 행할 경우는 제외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10. 개인의 건강평가

- SIP(Sickness Impact Profile)개념의 사회의료수혜자 입장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된 상태(Social Well-being State)라는 지표의 정의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개인의 건강평가는 응답자가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응답토록 “귀하는 연령에 비하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조사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11. 음주율 및 과음횟수

- 음주율은 조사인구 중에서 음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과음횟수는 음주인구 중에서 자신이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고 느끼는 경우의 평균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임.
- 算 式 : $(\text{음주인구} / \text{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12. 1인당 주류소비량

- 算 式 : $\text{총주류} / \text{소비량}$
- 資料源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6-13. 흡연을 및 흡연량

- 흡연율은 조사인구 중에서 흡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흡연량은 흡연인구의 1일 평균흡연량('갑' 기준)을 나타냄.

◦ 算 式 : (흡연인구/ 조사인구)×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14. 영아사망률

- 영아는 환경, 영양, 질병 등의 외인성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영아사망률은 경제상태, 영양(섭취)문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등의 의료수혜정도, 교육정도, 환경위생상태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따라서 국제간은 물론 같은 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 크게 변화되므로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됨.

- 1993년도 영아사망률에 관한 전국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算 式 : (출생 1년 미만내 사망영아수/
특정년도 1년간 출생수)×1,0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15. 1~4세 사망률

◦ 算 式 : (1~4세 사망자수/ 연간 출생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16. 주산기사망률(Perinatal Mortality Rate)

- 후기사산과 조기신생아사망과는 그 사망원인에 공통성이 인정되

고 있음. 임신경과(임신 제29주 이후) 중에 발생하는 태아사망과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사망에는 선천성 이상의 상태인 것이 많
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

◦ 算 式 : $(A+B/C) \times 1,000$

단, A: 임신 제29주 이후의 사산수

B: 생후 7일 미만의 신생아 사망수

C: 같은 해의 연간출생수

◦ 資料源 : (장래개발)

6-17. 65세 이상 사망비율

◦ 算 式 : $(65\text{세 이상 사망자수} / \text{연간 사망자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18. 모성사망률

◦ 算 式 : $(\text{임신, 분만, 산욕합병증 관련 사망부인수} /$

$\text{연간출생수}) \times 1,0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19.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동 지표는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자연신고, 신고누락(특히 영아), 사인미기록 등으로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인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원사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사인(원사인)으로 사망원인으로 보았음.

- 직접사인은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또는 상황을 뜻하며, 중간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병태이고 선행사인은 사망에 이르게한 일련의 병적상상을 야기시킨 질병 또는 상해를 말함.
-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상태가 증진됨에 따라 총 사망자가 상대적 크기변화와 아울러 사망원인의 구성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지표임. 즉, 건강상태가 저조한 국가에서는 사망률이 높고 전염병 및 기생충질환에 대한 이환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사망률이 낮고 만성병 및 사고(특히 교통사고)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임.
- 算 式 : (각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전체 사망자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6-20.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

유병률이란 어느 특정시점(시점유병률) 또 특정기간(기간유병률)에서 일정한 집단안에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함. 주요 성인질환은 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임.

- 算 式 : 유병률= 특정시기의 환자수/ 특정시기의 인구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6-21. 주요질병 발생건수

- 주요 질병은 AIDS, 뇌염, 말라리아, 홍역, 성병, 결핵 등이 포함됨.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22. 치매유병률

-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지표임.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치매유병률은 조사된바 없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도에 수행한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의 연구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공식적인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복지』 부문의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의 비율(10-29)’에서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특정시기 치매환자수 / 특정시기의 인구
- 資料源 : (장래개발)

6-23. 정신질환 유병률

-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정신질환자는 증대할 것이므로 정신질환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유병률을 계측한 적은 없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유병률을 계측하여 발표한 바 있음.
- 算 式 : 특정시기 정신질환환자수 / 특정시기의 인구
- 資料源 : (장래개발)

6-24.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한 사망자수와 더불어 부상자수도 중요한 바,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도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임. 우선 계측 가능한 것부터(예: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연차적으로 다른 지표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資料源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산업재해분석』
건설교통부, 『교통통계연보』

6-25. 유병률(기간)

- 일정한 기간(2주간)동안 조사대상자(0세 이상) 중에서 2주간내의
신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 아
팠던 사람의 비율로 “아팠다”의 일반적 조사정의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는 잘 놀지 못할 정도로 질환이나 약물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 학생이나 직장인은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주부나 기타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장기질환자 및 기타 심신장애자.
- 이환율에 대한 면접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
고 있으며 조사대상인구라 일반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환은 조사하기 힘들고 수절적 질환(감기 등)의 영향을 많
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함.
- 算 式 : (기간내 유병자수 / 조사인구) ×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26. 활동제한일수

- 이 지표는 평균적으로 환자 1인이 상병으로 인하여 반나절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총 일수를 의미하며, 앞으로 의료보험에
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를 통

하여 이 지표를 구할 수 있음.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6-27. 외병일수

- 유병자가 조사대상기간(2주간)중 질환으로 누워 있었던 평균 일수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28. 열량섭취량

- 資料源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수급표』

6-29.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 단백질 섭취량은 위와 같이 계산된 1일 1인당 순식용 공급량에 식품별 단백질 성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견과류, 두류, 기타 식물성 단백질의 양이며,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 난류, 우유류, 어패류, 등의 단백질의 양으로 실제 섭취량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고 보아도 별 문제는 없음.

- 다만 섭취량이 아닌 공급량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영양개선의 기초자료보다는 식량의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성이 크며 FAO가 권고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제비교 자료로도 이용가능함.

- 資料源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수급표』

6-30. 1인 1일당 식품소비구성비

- 資料源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수급표』

6-31. 예방접종률

- 算 式 : (종류별 예방접종수/ 당년도 0~4세인구)×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32. 건강검진율

- 모든 질병에 대비한 건강검진은 불가능하나 성인병(암, 고혈압, 심장병, 간질환 등)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건강검진율은 중요한 지표이며, 조사인구중의 건강검진을 받은자의 비율을 나타냄.
- 算 式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총조사인구)×1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6-33. 입원율

- 算 式 : (입원환자수/ 총인구수)×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34. 평균재원일수

- 算 式 : (입원환자 연인원수/ 입원환자당 실인원수)×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35. 1인당 평균의사방문회수

- 연간 1인당 평균의사방문회수(외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환자의 외래이용량을 의미하는 것임. 의료보험 자료가 발표되고 있음.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전체 일수(내원일수)를 연평균 의료보험 적용인구로 나눈 것임.

- 算 式 : 내원일수 / 연평균 적용인구
- 資料源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6-36. 병상이용률

· 병상이용률은 병원운영의 합리화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병상당 재원환자이용률을 의미함. 여기서 병원이라 함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결핵, 정신, 나병원을 말함. 또 병원을 소유주체별인 국립, 공립, 사립(법인 및 개인)과 병동별인 일반, 전염, 결핵, 정신병원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작성하였음.

- 算 式 : (1일 평균 재원환자수 / 병상수) ×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37. 한방의료이용회수 및 이유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6-38. 의료서비스 충족도

· 주관적 지표로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됨.

- 資料源 : (장래개발)

6-39.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평가를 내리는 주관적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6-40.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 算 式 : 총인구/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1. 의료기관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 算 式 : 병상당 인구= 입원환자수/ 병상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2.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 특수의료시설이란 결핵, 나병, 정신과병원등을 말함.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3.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 영아사망률 및 기대여명이 보건의료부문의 산출물이라면 국민의료비는 투입물로서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국민의료비의 수준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지표임.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나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음.
- 算 式 : 1인당 의료비= 총국민의료비/ 총인구
- 資料源 : (장래개발)

6-4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 영아사망률 및 기대여명이 보건의료부문의 산출물이라면 국민의료비는 투입물로서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GDP대비 총국민의료비는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또는 투입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적절한 기준치는 없는 실정임.

·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의 ‘GDP 대비 기능별예산(13-24)’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국민의료비}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6-45. 부문별 국민의료비

· 국민의료비를 민간 및 공공 부문별로 구분한 것임.

◦ 資料源 : (장래개발)

6-46. 정부예산 대비 보건예산

·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의 ‘정부예산의 구성(13-25)’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보건부문예산} / \text{당년도 총예산}) \times 100$

◦ 資料源 :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47. 가구당 의료비지출률

· 가구당 의료비지출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의료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소득과 소비』 부문의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3-16)’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의료비지출} / \text{소비지출})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6-48. 장기이식건수(간, 신장, 폐, 심장등의 이식건수)

- 의료기술의 발달은 장기이식 등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과 경제 활동을 연장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계속되어 장기 등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적절함. 인공장기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장래에는 이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각 의학학회별로 자료가 발표되는 경우(예: 신장학회)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자료생산을 위해서는 병원별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임.

◦ 資料源 : (장래개발)

6-49.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 인공관절, 고정장치, 실리콘등의 장치건수를 말하며, 장기이식건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資料源 : (장래개발)

6-50. 고가장비보유대수(인구 1,000명당)

- 감마나이프, CT, MRI등의 고가장비의 보유가 항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료기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수가 및 의료비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건의료정책면에서도 중요한 지표임.

◦ 算 式 : 일정 시점에서의 고가장비보유대수/1,000명

◦ 資料源 : (장래개발)

7. 住居와 交通

7-1. 주택보급률

- 算 式 : $(\text{주택재고수} / \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 주택투자율

- GNP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算 式 : $(\text{총주거용건물건설 투자액} / \text{GNP}) \times 1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3. 연간주택건설호수(인구천명당)

- 공공 및 민간 주택건설수를 포함하며 공공부문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주택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민간시공 주택건설을 의미함.
- 算 式 : $(\text{연간 총건설호수} / \text{인구수}) \times 1,0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4. 주택의 유형분포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기타 등임.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5. 자가보유율

- 현재 타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타지역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기집을 가진 가구비율을 의미

함.

-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보유율은 주거의 안정성이나 형평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算 式 : (자가보유가구수/ 총가구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6. 주택의 점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 형태별 주거비율임.
- 算 式 : { 각 점유형태별 가구수(자가,전세,월세)/
총가구수 }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7. 주택의 노후정도

- 현재 거주주택의 내구년수를 의미함.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8. 도시주택 가격지수

- 주택은행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39개 도시의 주택규모형태를 고려하여 약 4,119호의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1990년 12월말을 기준(‘90 12월말=100.0)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수요와 공급 양측간에 형성되는 가격변동 상황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특히 주택수요측면에서 주택의 수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조사방법

- ① 매매가격은 매월 동일 조사구내의 동일 유형의 인근 타주택의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조사대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평가하도

록 하되 전월 조사가격과 상호 비교하여 조사원이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를 병행한 후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매도자의 부득이한 사유나 주택자체의 결함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배제한 가격임.

② 전세가격은 표본주택을 독채전세로 임대할 경우의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의 조사요령에 따른 조사가격임.

◦ 算 式 : 전월(혹은 전년) 대비 도시주택가격의 변화지수

◦ 資料源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7-9. 원하는 주택형태

· 현재 주거하는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가구주가 장래 희망하는 주택형태를 조사함. 주택의 형태로는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0. 원하는 주택방수

· 자기집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가구주가 앞으로 원하는 주택방수를 조사함. 주택방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1. 원하는 주택규모

· 자기집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가구주가 앞으로 원하는 주택규모를 의미함. 주택규모는 대지를 제외한 연건평으로 점포, 상점, 계사, 돈사 등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부분만을 조사하였음. $33m^2$ 미만, $33-65m^2$, $66-98m^2$,

99-131m², 132-164m², 165m² 이상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2.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 자기집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가구주가 앞으로 원하는 주택규모를 의미함. 주택규모는 대지를 제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당 주거비용 구성비율증감추세를 파악하는 지표임.
- 도시가구는 가구집기, 가사용품, 주택설비수리(설비재료 구입, 설비수리 서비스료) 및 아파트 관리비, 복덕방수수료 등의 기타 주거비를 포함하고 전세 및 자가평가액은 제외하였음.
- 농가는 가구집기, 가사용품, 설비수리비 등이 조사됨은 도시가구와 동일하나 문화용품(T.V., 카메라, 피아노 등)이 포함된 점이 다름.
- 『소득과 소비』부문의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3-16)’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주거비지출/ 소비지출)×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7-13. 최초 주택마련시기

-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최초 주택마련 이후의 기간에 대해 사실상 혼인을 기준으로 결혼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결혼이후 주택을 마련했을 경우는 결혼시점을 기준하여 기간을 연·월 단위까지 파악하여 6개월을 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4. 결혼 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 결혼후에 최초의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만 대상으로 최초의 주택을 마련한 때까지의 결혼후 이사회수를 조사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5.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 조사 당시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자기집이 있었거나 현재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에게 자기소유의 최초 주택을 마련했을 때 당시 조달한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각 방법(자금원천)의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였음. 부모 및 친척보조, 저축, 융자 및 사채, 퇴직금·보상금, 재산매각, 상속 등이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16. 현 주택거주연수

- 가구주가 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17. 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

- 1주택당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로, 항목으로는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18. 가구당 사용건평

- 주택규모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거 복지지표로 주거면적(건평), 가구당 방수, 방당 인구수를 살펴봄.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주택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지표임.

◦ 算 式 : 총사용건평/ 총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19. 가구당 사용방수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주택규모의 차이까지 고려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算 式 : 총사용방수/ 총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0. 가구당 대지면적

◦ 算 式 : 총대지면적/ 총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1. 방당 가구원수

· 가구당 주택수(또는 주택보급률)에 비하여 가구규모의 차이 까지 고려한 지표임.

◦ 算 式 : 총가구원수/ 총사용방수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2.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하고 있는 주택자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거주지역에 관한 것이나 이웃관계 등과 같은 주택외적 제요인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불만이유를 일조, 통풍불량, 주택협소, 난방시설불량, 부대시설미비, 상하수도 시설 미흡 등으로 구분조사하였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3. 과밀거주가구수

- 거주(밀도)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수를 알아내고자 하는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가)

7-24. 상수도 보급률

- 총인구(중양추계인구) 대비 급수인구 비율로 급수인구라 함은 간이상수도, 우물물, 기타를 제외한 상수도 사용인구임.

◦ 算 式 : $(\text{상수도 공급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25. 하수도 보급률

- 총인구(중양추계인구) 대비 雨水配水인구, 汚水配水인구, 處理인구, 水洗式인구비율임.

◦ 算 式 : $(\text{하수도 공급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26. 입식부엌 시설률

◦ 算 式 : $(\text{입식부엌시설 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7.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 연탄온돌, 중앙집중식 난방, 단독연탄보일러, 단독유류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전기보일러, 태양열, 지역난방 등임.
- 算 式 : (난방방식별 가구수/ 총가구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28. 취사용 연료

- 취사시 사용하는 연료를 연탄, 유류, 단독가스, 도시가스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29. 목욕탕 시설률

- 算 式 : (단독목욕탕시설 주택수/ 총주택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30. 수세식 변소 시설률

- 算 式 : (수세식 변소 시설 가구수/ 총가구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31. 에어컨 소유 가구율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현황(2-27)’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에어콘 소유 가구수/ 총가구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7-32. 주차장 확보율

- 算 式 : (전용주차장확보주택수/ 총주택수)×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7-33. 편의시설 근접도

- 주거복지의 구성요소인 근린생활시설중 금융기관, 우체국, 병·의원, 유치원·국민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7-34. 현거주지 선택이유

-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거주지 선택이유를 자녀교육, 직장사업, 교통인근시설, 경제적 사정, 제환경,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35. 현거주지역 만족도 및 불만이유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교통시설, 각종 편의시설, 주변환경, 공해 등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로 여기에는 주거지역 주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요인이 포함 측정됨.
- 응답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으로 나누어 조사함.
- 현거주지역에 대하여 약간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불만이유를 교육여건불만, 교통사정불편, 주변환경불량, 공해, 편의시설낙후, 범죄다발지역,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36. 교통수단별 분담률

-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타)별 수송인구 분담비율임.
- 算 式 : { 교통수단별 이용인구수(시내버스 이용인구, 지하철·전
철 이용인구, 택시 이용인구, 기타 자가용 포함 이용
인구) / 총수송인구 }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교통통계연보』

7-37.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 승용차 등록대수로 관용, 자가용, 영업용 포함한다. 승용차 및 승
용차 중 자가용 1대당 인구수는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 算 式 :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 총인구수) × 1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교통통계연보』

7-38.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7-39.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비용

- 가구의 총소비지출비에서 교통관련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개인교통비와 공공교통비로 구분하여 제시함.
- 算 式 : 가구당교통비지출비율 = (교통비지출 / 총지출) ×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7-40. 도로연장

- 도로의 총연장 km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41. 도로포장률

- 算 式 : (포장된 도로의 총연장/총도로연장)×100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편람』

7-42. 통근·통학 소요시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43. 주된 통근·통학수단

- 주된 통학·통근수단이 무엇인가를 시내버스, 지하철(또는 전철), 승용차, 기타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7-44. 버스·지하철 접근성

- 버스나 지하철등 주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시간을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7-45. 장애인 편의시설수

- 장애인 편의시설 즉 장애인 전용주차면수, 횡단보도, 유도노면, 음성정보신호등수, 지하철승강기 시설수등을 조사함.
- 資料源 : (장애개발)

7-46.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표지판,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신호기 설치, 신호등, 도로넓이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응답은 매우만족함, 만족하는 편임, 그저그려함, 불만족스러운 편

임, 매우 불만족스러움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7-47. 시내버스 혼잡률

- 시내버스 한대당 이용승객수에 의하여 혼잡률을 평가
- 算 式 : 총시내버스이용승객수/총시내버스대수
- 資料源 : (장래개발)

7-48. 지하철 혼잡률

- 지하철 한량당 이용승객수에 의하여 혼잡률을 평가
- 算 式 : 총지하철이용승객수/ 총지하철차량수
- 資料源 : (장래개발)

7-49.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 算 式 : 총도로연장/ 총자동차대수
- 資料源 : 건설교통부, 『교통통계연보』

7-50. 자동차 주행속도

- 資料源 : (장래개발)

7-51.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 算 式 : (연간 총교통법규위반건수/ 총차량대수)×100
- 資料源 : 경찰청자료

8. 情報과 通信

8-1. GDP 대비 총연구개발지출

-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에서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뺀 금액이며, 총연구개발지출은 (기업 연구개발비+대학 연구개발비+정부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을 의미함. 이 지표는 한 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입 정도를 봄.
- 『교육』부문에서도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지출(5-30)’로 제시 됨.
- 算 式 : $(\text{총연구개발지출}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8-2. 특허수(대내, 대외)

- 어느 나라의 발명자에 의한 발명중 그 나라에 등록(대내 특허수) 되거나 외국에 등록(대외 특허수)된 특허의 건수로 과학기술활동의 산출 지표임. 대내특허는 대외특허에 비해 등록이 용이하며, 대외특허는 등록비용 때문에 엄선되어 질이 높고 산업의 국제화나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의 증대에 따라 후자가 증가함.
- 資料源 : 특허청, 『특허청연보』

8-3. 기술수출액

- 기술의 제품 수출, 지적재산권, 자문, 설계 및 유지 용역 계약 등을 제공하여 외국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과학기술활동이 상업화에 성공한 산출의 지표임.
- 資料源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8-4. 통신서비스 인력비중

-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지원의 네개 분야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의 세분야로 나뉘어짐.
- 기간 통신 서비스에는 유선 및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이 있음. 국민의 생활정보화를 위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에 취업한 인력의 비중을 봄.
- 부가통신서비스에는 데이터서비스, 부가통신망서비스, 정보서비스 부문이 있음. 국민의 생활 정보화를 위해 부가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에 취업한 인력의 비중을 봄.

◦ 算 式 : (통신서비스부문 취업인구/ 상용근로자수)×100

◦ 資料源 : 산업정보화인력지표는 공통적으로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포함하여 아래 자료를 참조하였음.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5. 방송서비스 인력비중

- 방송서비스에는 일반방송서비스와 뉴미디어서비스로 나뉨. 국민의 생활 정보화를 위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송서비스 부문에 취업한 인력의 비중을 봄.

◦ 算 式 : (일반방송·뉴미디어 취업인구/ 상용근로자수)×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6. PC 보유가구를

- 개인 사용자,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용 컴퓨터의 보유 대수를 총가구수로 나눈 지표임.
- 算 式 : $(\text{PC 보유대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7. PC 이용시간의 구성비

- 算 式 : $(\text{주당 각 활동을 위한 PC이용시간} / \text{주당 총 활동시간})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8. PC 공중전산망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 算 式 : DSN 가입자와 HiNet-P서비스 가입자
- 資料源 :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통계연보』

8-9. 컴맹비율

- 算 式 : $100 - (\text{운영시스템} \cdot \text{문서작성} \cdot \text{스프레드시트} \cdot \text{데이터베이스, 통계패키지} \cdot \text{통신 등의 소프트웨어 이용가능자} / \text{총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8-10. 가구당 전화보급률

- 가구당 전화보급률은 업무용 및 주택용 전화를 포함하며 차량용 및 공중전화는 제외됨. 체신부는 100인당 총전화가입자수로 보급율을 산정하고 있음.
- 算 式 : $(\text{총전화 가입자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개별생활 및 공동 생활 정보화 지표를 위해 공통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참조.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한국통신, 『전기통신통계연보』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한국DB산업진흥회
정보처리산업연합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ITU, 『Yearbook of Common Carrier
Telecommunications Statistics』

8-11. 가구당 Fax 보급률

- 가구당 팩시밀리 보급율은 업무용 및 주택용을 포함하며 이와 대
체적인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전송 주변기기는 따로 계산하고 이
지표의 계산에서 함께 제시한다. 팩스매출대수를 총가구수로 나
눈.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현황(2-27)’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Fax 매출대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 資料源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한국통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12. 이동통신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 算 式 : $\text{휴대폰, 카폰 이용자수} / 1,000$
- 資料源 : 이동통신
체신부, 『체신백서 각 년도』
전자신문사, 『한국전자연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13. 무선호출기 가입자수(인구 1,000명당)

- 算 式 : 무선호출기 이용자수/ 1,000
- 資料源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각 년도』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8-14.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자수(인구 100명당)

- 算 式 : (공공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자수/ 총인구)×100
- 資料源 : 전자신문사,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통계연보』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
 『알기 쉬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편람, 199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월드』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15. PC통신 가입률

- 천리안, Hitel, POS Serve 등 가입 비율임.
- 算 式 : $(\text{PC통신 가입회선} / \text{총전화회선}) \times 100$
- 資料源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8-16. 인터넷(Internet) 가입률

- 算 式 : $(\text{인터넷 가입회선} / \text{총전화회선})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17. CATV가입률(1,000가구당)

- 뉴미디어방송 가입률을 반영하는 지표임.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현황(2-27)’에서 자료가 제시됨.
- 『문화와 여가』부문에서도 ‘CATV 가입률(11-11)’로 제시됨.
- 算 式 : $(\text{CATV 가입가구수} / \text{총 조사가구수}) \times 1,0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추가)

8-18.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현황(2-29)’에서, 그리고 『문화와 여가』부문의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11-10)’에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text{위성방송안테나 설치대수} / \text{총TV가입대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19. 의료업무 전산화율

- 算 式 : (전산처리 의료업무/ 총의료업무)×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0. 판매관리 전산화율

- 유통부문의 전산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算 式 : (단말기도입 점포수/ 총점포수)×100
- 資料源 :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1. 금융전산망 크기

- 금융기관의 주전산기대수
- 算 式 : 금융기관의 주전산기 대수
- 資料源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통계연보』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2. 행정전산망의 정보입력률

- 算 式 : 행정전산망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 입력건수/ 총인구
- 資料源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각 년도』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통계연보』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
『알기 쉬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편람, 1993』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3. 과학·산업용소프트웨어 매출액

- 算 式 : 매출액(1,000만원)

- 資料源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통계연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4. GDP 대비 정보통신투자액

- 算 式 : $(\text{정보통신투자액}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한국전산원, 『1995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8-25. 가계정보관련비용 지출률

- 算 式 : $(\text{매월 정보처리지출} / \text{매월 총가계지출})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사업 현황과 전망』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과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연감』

※ 8-26항에서 8-28항까지의 정보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가정생활의 정보화로서 재택근무 대화형 영상정보, 재택민원, 재택 쇼핑, 재택 은행 서비스, 가정안전서비스, 전화 자동 통역 서비스, 의료 및 보건의 정보화로서 원격 진료, 개인 건강 정보 기록, 통합 복지 카드(의료보험, 의료정보, 개인주민등록, 신용카드의 통합), 행정서비스 이용의 정보화로 자동전입신고처리, 도로 교통 정보, 시설물 관리체계 정보, 정부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등의 변화에 의한 개인적 심리적 만족도를 질문함.

8-26. 정보화를 위한 투자실태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약간 불만/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의 주관적 지표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추가)

8-27.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 정보화로 인한 작업환경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응답은 매우 부정적/부정적/중립적/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으로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추가)

8-28. 정보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 첨단 영상매체가 개인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응답은 매우 불만/약간 불만/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으로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추가)

9. 環境

9-1. 녹색GDP

- Green GNP란 환경을 자유재로 보지 않고 환경이 생산자본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내 생산요소와 더불어 생산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만들어 낸 진정한 부가가치로 정의된다. 즉, 환경자본의 서비스가액이 반영된 GNP를 Green GNP라고 한다.
- 算 式 :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임. 과거 녹색GDP의 임시추정치는 발표한 바 있음.
- 資料源 :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 문헌참조-김승우, 『ESSD달성을 위한 거시환경경제지표개발 및 정책수단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기술개발연구원 (1993)

9-2. 1인당 녹색GDP

- 算 式 : 녹색GDP/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기술개발연구원

9-3. 녹색GDP/ GDP

- 算 式 : 녹색GDP/ GDP
- 資料源 : 환경기술개발연구원

9-4. 1인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 算 式 :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 인구
1일 특정폐기물 배출량/ 인구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5.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과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배출량

- 算 式 :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인구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6. 1인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 算 式 : 질소산화물 배출량/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7. 1인당 폐수배출량

- 算 式 : 폐수배출량/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8. 농업생산량 대비 비료투입량

- 算 式 : 비료투입량/ 농업생산량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9-9. 농업생산량 대비 농약투입량

- 算 式 : 농약투입량/ 농업생산량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9-10. 1인 1일 급수량

- 算 式 : 급수사용량/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9-11. 1인당 에너지 사용량

- 算 式 : 에너지 사용량/ 총인구수
- 資料源 : 통상산업부, 『에너지통계연감』

9-12.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총 에너지소비량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눈 양을 말함.
- 에너지 수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란 에너지전환산업(석유정제업, 발전소, 가스공업 등)이나 최종 에너지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를 의미하고, 최종에너지란 최종에너지 소비자에게만 공급된 에너지를 말함.
- 단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t당 열량값인 10^7 Kcal로 환산한 것임.
- 算 式 : 에너지 사용량/ GNP
- 資料源 : 통상산업부, 『에너지통계연감』

9-13. 대기의 질

- 아황산가스(SO_2)의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0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연간 3회 미만 초과 허용)유지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算 式 :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됨.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4. 수질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환경기준은 이용목적에 따라 1~10 이하 유지달성을 목표(상수원수 1급: 1 이하, 상수원수 2급: 3 이하, 상수원수 3급: 6 이하, 공업용수 2급: 8 이하, 공업용수 3급: 10 이하)로 하고 있음.
- 算 式 : $(\text{수질등급달성구간} / \text{수질등급설정 총구간}) \times 100$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5. 주요연안의 수질오염도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해역별 수질기준은 1급(수질이 가장 청정한 해역)은 1mg/l 이하, 2급(해수욕 등)은 2mg/l 이하, 3급(공업용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에 이용)은 4mg/l 이하의 유지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6. 토양오염

- 토양오염도를 의미하며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함.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7.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 환경기준치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소음공해도를 측정지역별로 구분하였음.
- 算 式 : $(\text{환경기준치 적합지점수} / \text{소음측정장소수}) \times 100$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8. 주요도시의 스모그 발생률

- 算 式 :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됨.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19. 수질기준 달성률

- 算 式 : $(\text{수질등급달성구간} / \text{수질등급설정 총구간})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9-20. 음용식수 종류

- 음용식수의 종류를 수도물(그대로, 끓여서), 정수기, 생수, 약수, 지하수,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21.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농약오염에 대한 태도를 매우 불안함, 불안한 편임, 보통,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9-22. 주관적 오염도

-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를 조사함. 응답은 매우 심각함, 심각한 편,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환경부,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9-23. 1인당 녹지면적

- 算 式 : $\text{녹지면적} / \text{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9-24. 1인당 공원면적

- 算 式 : (공원면적/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9-25. GDP 대비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 算 式 :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GDP)×100
- 資料源 :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환경기술개발연구원자료

9-26. 1인당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

- 算 式 : (환경관련 방어적 지출액/ 총인구수)
- 資料源 : 환경처, 『한국환경연감』
환경기술개발연구원자료

9-27. 기업의 매출액 대비 방어적 지출액

- 算 式 : (방어적 지출액/ 기업의 매출액)×100
- 資料源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9-28. 하수처리율

- 算 式 : 하수처리량/ 하수발생량
- 資料源 : 건설부, 『건설교통통계편람』

9-29. 천명당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

- 算 式 : (민간환경단체 가입자수/ 총인구)×1,000
- 資料源 : 환경부, 『환경백서』

9-30. 환경오염 방지노력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응답은 노력함, 보통, 노력안함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노력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노력의 종류별(합성세제줄임, 쓰레기 분리, 소음억제, 하천바다오물 투척금지, 야외쓰레기폐기, 비닐봉지사용자제, 기타 등)로 나누어 노력여부를 조사함.

9-31. 재생산업사업체수 및 인력

- 資料源 :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보고서』

10. 福祉

10-1.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 『정부와 사회참여』부문의 'GDP 대비 기능별 예산(13-24)'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사회보장예산}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10-2.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 『정부와 사회참여』부문의 '정부예산의 구성(13-25)'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사회보장예산} / \text{정부예산})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10-3.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많은 기업이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민간의 사회복지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이러한 민간자원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수와 재단출연금을 지표화함.
- 資料源 : (장래개발)

10-4. 민간모금액 및 사용처

-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서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비·보조금, 2) 공동모금 및 기부금, 3)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달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안정적인 재원으로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비·보조금이나 최근에는 민간모금액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음.

◦ 資料源 : (장래개발)

10-5. 5년전 대비 삶의 질의 개선여부

· 삶의 질이란 아직까지도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量의 문제가 아니라 質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수준과 삶의 가치(인간의 주관적·심리적 행복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多面的(multi-dimensional)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의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함. 전반적인 삶의 질, 소득수준, 직업, 환경, 개인의 건강, 주택, 교통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0-6.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응답은 매우 만족함, 약간 만족함, 보통임, 약간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0-7.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10년 후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으로 설문조사함.

· 응답은 매우 향상될 것임, 약간 향상될 것임, 비슷할 것임, 조금 나아질 것임, 매우 낮아질 것임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0-8.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사회보험에 있어서 기여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 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가 귀하의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0-9. 1인당 평균부담액

- 算 式 : (의료보험 총 부담액/ 의료보험 가입자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0. 1인당 평균급여비

- 算 式 : (총급여비/ 의료보험 가입자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1. 공적연금 적용률

- 算 式 : (가입자/ 18세 이상 취업자)×100
- 資料源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및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10-12. 가입자 대비 수혜자

- 算 式 : (국민연금수혜자수/ 국민연금가입자수)×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3. 연금급여 종류별 건당 평균급여비

- 算 式 : (종별 급여비/ 종별 급여건수)×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4.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 算 式 : (공적부조예산액/ GDP)×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5.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 算 式 :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10-16.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 算 式 :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17. 최저생계비

-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衣食住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인간 노동능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생계비를 의미함. 가구원수별로 제시함.
- 資料源 : (장래개발지표)

10-18.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

-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을 성 및 연령별로 제시함.
-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居宅保護, 施設保護, 自活保護로 나누어

집. ①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임신부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를 행할 자를 말함. ②시설보호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함. ③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자로서 시장·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10-19. 총인구 대비 종별 생활보호대상자

◦ 算 式 : (종별 생활보호대상자 / 총인구) ×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10-20. 생활보호대상자의 종별 1인당 급여액

◦ 算 式 : (종별 생활보호급여액 / 종별 생활보호대상자) ×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21. 의료보호수혜율

◦ 算 式 : (의료보호대상자 / 총인구) ×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22. 임대주택 공급호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0-23.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算 式 : $(\text{사회복지서비스예산}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24.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算 式 : $(\text{사회복지서비스예산} / \text{정부예산})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10-25.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算 式 : $(\text{사회복지서비스예산} / \text{사회보장예산})$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10-26. 사회복지수용시설당 평균수용인원

- 시설 및 수용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규정된 시설 수 및 동 시설에 수용된 인원수임. 시설종별로 자료를 제시함.
- 算 式 : $(\text{수용인원} / \text{수용시설수})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27. 시설별 평균종사자수

- 算 式 : $(\text{시설종사자수} / \text{시설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28.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 算 式 : $(\text{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수} / \text{65세 이상 인구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

10-29.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비율

- 『보건』부문의 ‘치매유병률(6-22)’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치매노인수} / \text{총노인수})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10-30.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 수용자

- 算 式 : $(\text{노인시설 수용자수} / \text{총노인수})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1.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유료양로시설과 유료 요양시설이 있음.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2. 시설입소희망 노인인구 비율

-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가고, 국민연금 실시 등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에 유료시설에의 입소희망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시설입소희망인구의 비율은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성 및 연령별로 자료를 제시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0-33.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4. 요보호아동 발생수

- 요보호아동이란 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동, 기타 환경상 요양을 요하는 아동을 가리키며, 광의로는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의 간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아동을 의미하며, 기아, 미혼모의 아동, 미아, 가출아로 나눌 수 있음.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5. 소년소녀가장세대수 및 아동수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6. 아동입양현황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7. 요보호여성수

- 요보호여성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의미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만이 아닌 가출, 부랑 등으로 인해 윤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여자까지 폭 넓게 포함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보호여성은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을 의미함.
- 資料源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0-38. 장애인 출현율

- 算 式 : (장애인수 / 총인구) × 1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39.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짐.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0. 시설수용 장애인 비율

- 算 式 : $(\text{시설수용장애인수} / \text{장애인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41. 장애인 취업률

- 算 式 : $(\text{취업장애인수} / \text{취업희망장애인수}) \times 100$
- 資料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0-42. 장애인 등록률

- 장애인복지법에는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여 등록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함.
- 算 式 : $(\text{등록장애인수} / \text{추정 장애인수}) \times 100$
- 資料源 : 보건복지부

10-43. 장애인 의무고용준수를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算 式 : (의무고용준수사업체수 / 의무고용대상사업체수) × 100

◦ 資料源 : 노동부, 『장애인취업실태조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文化와 餘暇

11-1.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부예산

- 『정부와 사회참여』의 ‘정부예산의 구성(13-25)’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 算 式 : (문화체육부예산/ 정부예산)×100
- 資料源 : 재경원 자료

11-2. 문화예술시설공간수

- 시설공간의 수를 말함. 시설공간은 극장,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으로 구분함. 다만 야외시설은 제외하고, 공연장에 종합문예회관, 시민회관, 연극공연 소극장은 포함함.
- 전시장은 화랑(미술회관 및 화랑등 단일전시관)과 전시실(종합문예회관, 시민회관 등 복합문화공간내 전시공간)을 포함함.
-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資料源 : 문화체육부, 『전국문화공간현황』

11-3. 전시장 입장률

- 인구 1만명당 전시장을 1년에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전시장이란 박물관, 미술관, 화랑을 말함. 박물관은 공공박물관, 학교박물관, 사설박물관, 기타(향토자료관 등)로 구분함. 미술관은 공공미술관, 학교 미술관, 사설미술관, 기타로 구분함. 표기방법은 1년에 한번 이상 이용한 시설을 각각 체크하게 하고 모두 이용해 본 사람의 비율은 따로 산출토록 함.
- 算 式 : 전시장 입장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4. 공연시설 입장을

- 인구 1만명당 공연관람장 시설을 1년에 한번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공연관람장은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기타(야외공연장, 종합문예회관, 시민회관 등)로 구분함.
- 표기방법은 1년에 한번 이상 이용한 시설을 각각 체크하게 하고 모두 이용해 본 사람의 비율은 따로 산출토록 함.
- 전시장 입장률과 공연관람장 입장률은 국민들의 지적인 용구의 충족정도뿐만 아니라 전시장과 공연관람장이 사회에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算 式 : 관람공연장 입장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5.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이용률

- 인구 1만명당 공공도서관의 좌석수, 장서수, 이용자수를 말함. 도서관은 국립·중앙, 국회, 공공,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도서관 등을 포함함.
- 算 式 : 도서관 이용자 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도서관 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1-6. 도서발행 종류 및 부수

- 주요 분야별 도서발행 종류 및 발행부수를 말함.
- 도서종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름. 분류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산업,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아동, 학습참고서 등으로 나누어 구분함.
- 도서는 문화공보부 납본에 의한 통계로서 만화, 비매품은 제외됨.
- 資料源 : 한국출판문화협회, 『도서발행실적』

11-7. 보유장서수, 구입인구, 독서인구비율

- 조사대상 개인별 보유장서, 구입인구비율, 독서인구 비율을 말함.
- 도서는 일반서적과 교양서적으로 구분하되 일반서적은 교양서적, 직업관련서적, 생활취미 및 정보서적류, 기타(백과사전, 육아서적) 등을 포함하고, 교과서 참고서류는 제외시킴. 교양서적은 과학,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지리, 예술서적을 말함.
- 보유장서수를 1-20, 21-50, 51-100, 101-200, 201-500, 500권이상의 6단계로 구분하여 『문화통계자료집』의 경우처럼 표기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임.
- 算 式 : $\text{독서구입인구} = \text{독서인구} / 15\text{세 이상 조사인구}$
 $\text{독서인구비율} = \text{독서인구} / 15\text{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8. 잡지발행부수 및 구독률

- 우리나라 잡지의 발행부수를 나타냄. 잡지종류 구분은 포괄적으로 시사, 여성종합, 문학, 교양종합, 전문지, 연예오락스포츠지, 외국잡지, 기타의 8가지로 구분함.
- 구독률은 조사대상 인구 중 1개월에 1회 이상 구독한 사람의 비율을 대상으로 함. 구독을 정기구독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정기구독(3회 이상 계속 사서보거나 빌려서 보는 경우), 비정기구독, 회독(직장, 도서관, 타인의 것 등)도 구독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해야 함.
- 算 式 : $\text{잡지 구독률} = \text{잡지 구독자} / 15\text{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잡지발행부수- 한국출판문화협회, 『도서발행실적』
구독률-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9. 음반, 테이프 등 구입비율

- 음반, 음악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ROM 등을 1년에 한개 이상 구입한 인구의 비율을 말함. 한개 이상 구입한 것을 각각 체크하게 하고 모두 구입한 사람의 비율은 따로 산출함.
- 활자매체 중심에서 감각적인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문화생활의 변화를 반영함.
- 算 式 : 음반·테이프 등 구입인구/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10. 위성방송안테나 설치율

- 조사대상가구 중 위성안테나 설치 가구의 비율을 말함.
- 위성방송안테나의 설치가 뉴미디어시대의 기초라는 점에서 뉴미디어화에 대한 수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현황(2-27)’에서 자료가 제시되고, 『정보와 통신』부문에서도 ‘위성방송안테나 설치가구율(8-18)’로 제시되고 있음.
- 算 式 : 설치가구수/ 총 조사가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11. CATV 가입률

- 뉴미디어방송 가입률을 반영하는 지표로 『정보와 통신』부문과 『가족』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가족』부문의 ‘가족생활용품(2-27)’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CATV 가입가구수/ 총 조사가구수)×1,0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12. 구독신문 종류 및 구독빈도

- 신문구독 종류의 수와 주당 구독빈도를 말함. 구독빈도는 매일, 주 5-6회, 3-4회, 1-2회 정도로 구분함. 종래의 “2주 1회 정도”는 구독자로서의 의미가 없을것이므로 삭제함.
- 조사대상은 적어도 “1주 1회이상” 구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비정기 구독을 모두 포함함.
- 算 式 : $\text{신문구독빈도} = \text{주 1회 구독인구수} / \text{15세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3. 신문의 관심분야

- 신문구독자에게 평소 가장 관심있는 부분 한곳만을 선택하게 함.
- 관심분야의 내용을 정치, 산업·경제, 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연예·스포츠, 국제, 기타로 구분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4.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 신문구독자에 대한여 신문보도 및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신문에 대한 외적 요인인 배달 문제들은 제외되었음.
- 매우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척도로 만족도를 측정함.
-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 불만,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불만이유를 신속하지 못함, 편파적임, 정확하지 못함, 필요한 정보 부족, 깊이있는 내용이 적음, 기타 등으로 나눔.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15. TV시청시간 및 기호프로그램

- 조사대상자의 주당 평균 TV시청시간임.
- TV시청은 요일과 계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응답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일요일로 구분하여 기입케 함. 또한 매년 조사시기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기호프로그램은 1주간에 TV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시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평소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뉴스, 연속극, 연예오락, 스포츠, 영화, 교육, 코미디, 생활정보(생활정보, 날씨), 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6. TV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 평소 TV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응답은 매우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의 5점척도로 함.
- TV 방송내용에 대해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불만이유를 조사함.
- 응답은 보도 내용이 공정치 못함, 교양·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프로그램의 질이 낮음, 재미가 없음, 현실성이 없음, 광고가 많음, 방송사간의 과다경쟁 및 중복,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7.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의 주된 습득 방법을 조사하였음.
- 문화예술 행사란 문학행사, 음악회, 연극, 영화, 무용, 미술전시회, 박물관 관람, 민속놀이(탈춤, 농악, 마당극)등을 말함.
- 출처는 일간신문, TV, 라디오, 잡지, 친구·동료, 포스터·전단, 지역

신문, 교육문화기관, 기타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8. 공연예술 관객 및 이용자의 특성

- 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사회적 특성을 말함. 관객을 공연관람장(음악회, 무용 등), 전시장, 미술관, 영화관으로 특성에 따라 구분함.
- 문화예술 향수층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19.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관심없음으로 나누어 조사함.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별 문화정책의 기초로 활용 및 지역간 비교가능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0. 비디오 시청률 및 시청편수

- 조사대상인구 중 1달에 1회 이상 비디오를 구입하거나 빌려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비디오시청자를 대상으로 1달간의 시청편수를 조사함. 비디오 종류는 오락용, 교육용, 종교용으로 구분함.
- 算 式 : 비디오 시청률 = 비디오 시청자수 /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1. 휴양지 종류별 이용자수

- 휴양지 이용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년에 이용횟수를 조사함. 휴양지 종류는 관광지, 골프장, 온천장, 해수욕장, 스키장, 사찰, 농장 등으로 구분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2. 평균 여행회수

- 1년동안 국내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비율 및 평균횟수를 조사함. 여행종류는 숙박여행, 비숙박여행으로 구분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3. 해외여행비율

- 조사대상 인구중 조사기간 현재까지의 해외여행 비율 및 최근 1년간 비율을 관광, 가사, 업무여행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4.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 1년간 국내관광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편함 점이 있는 경우 불편한 이유를 교통, 숙박, 화장실, 음식식수, 바가지 요금, 질서, 오락시설, 기타 등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5. 여가활용방법

- 주말, 공휴일, 휴일의 여가활용방법을 조사함.
- 활동종류는 감상, 관람, TV시청, 창작적 취미오락, 잡기 및 승부

놀이, 스포츠 및 여행, 가사, 기타임. 창작적 오락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독서, 요리, 사진촬영, 악기연주, 수예, 원예, 꽃꽂이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6.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 스포츠, 관광, 공원휴양지 등으로 구분한 활동 중 이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함.
- 불만이유 조사는 약간 분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불만이유를 조사함. 응답은 경제, 시간, 교통, 시설, 정보, 취미 없음, 기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7. 여가 및 체육활동비 지출률

- 소득원이 있는 개인이 총소비지출액 중 상기의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임
- 『소득과 소비』부문의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3-14)’에서 자료가 제시됨.

◦ 算 式 : $(\text{교양·오락비 지출액} / \text{총소비지출액})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1-28. 취미 및 교양 학원별 수강자수

- 조사대상인구 중 취미 및 교양학원 종류별 수강자수의 비율을 말함. 취미 및 교양학원의 종류는 꽃꽂이, 서예, 요리, 컴퓨터, 사진, 무도장, 불령장으로 구분할수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29. 1인당 체육시설면적

- 算 式 : 학교체육시설 면적/ 학생수
- 資料源 : 문화체육부, 『전국체육시설현황』

11-30. 여가 및 체육시설 이용현황

- 조사대상인구 중 여가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을 말함.
- 여가시설은 스포츠, 관광, 공원휴양지 등으로 구분함.
- 算 式 : 종별 휴양지 이용자수= 휴양지 이용자수/
15세 이상 조사인구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31.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 주요 항목별로 1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측정함.
- 국민생활시간 구분은 ①생활필수(수면, 식사, 신변잡일) ②이동 ③여가 행동(교제, 후양, 레저활동,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④ 재택시간 ⑤본업시간 등으로 나눔.
- 여기서 본업이란 직장, 학교, 주된 생업(농업, 어업, 막노동 등)을 말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32.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현대인들은 항상 생활시간을 쪼개어 써야만 한다. 따라서 생활시간이 여유있는지 여부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기반

이 제공되는지를 밝혀줄뿐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응답은 항상 쫓기고 있다, 때때로 쫓기고 있다, 쫓기는 일이 거의 없다 등 3가지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33.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에 대한 태도

- 외래문화유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 응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약간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등으로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1-34.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

-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 安全

12-1. 주거지역의 불안전지대에 대한 의식

- 각종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지역, 시설물, 운송수단 등에 대한 순위를 의미함.
- 지역: 별도의 규정이 필요
시설물: 공공용물(도로, 하천, 항만, 건축물 등)
운송수단: 유상, 해상, 항공 등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2.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 일생동안 평안하고 위험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임.
- 범주는 가능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불가능할 것이다 등이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우 이유를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3.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 일터란 농장, 작업장 등을 의미함.
- 안전도는 매우 안전, 약간 안전, 그저 그렇다, 약간 불안, 매우 불안 등의 범주로 구분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4.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 식품이란 외국산을 포함한 식품, 가공식품 등을 의미함.
-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매우 안전, 약간 안전, 그저 그렇다, 약간

불안, 매우 불안 등의 범주로 조사함.

◦ 資料源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조사』

12-5.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 자기평가 준법수준이란 자기 자신이 평가한 준법수준을 의미하고, 타인평가 준법수준이란 다른사람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 응답은 지킨다, 보통이다, 안지킨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6.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 사회의 안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는 지표임. 안녕질서란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고 사회질서가 바른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요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위험사상, 기타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포괄적인 불안요인을 의미함.

· 응답은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응답은 느낀다, 보통이다, 못느낀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8.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 算 式 : 공갈, 협박, 전화폭력 등을 경험한 인구수/ 조사인구수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9. 야간보행시의 안전도

- 야간보행시의 안전도는 두려운 곳이 없다, 두려운 곳이 있다는 2 범주로 조사하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두려운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10.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인구 10만명당)

- 형법범 및 특별범 범죄의 총 발생건수를 의미함. 형법범의 경우 유형별로 표시함.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1.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 주요범죄로는 건도, 강도, 폭행 및 상해, 강간, 살인이 있고, 절도란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강도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단순강도, 특수강도, 살인강도, 기타), 폭행·상해란 형법상의 폭행 및 상해,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부녀를 간음하는 것, 살인이란 보통살인, 존속살인, 영아살인, 기타 등을 각각 의미함.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2.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발생 건수

- 외국인(국적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국내범죄의 연간 건수 또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자수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범죄의 주동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함.

- 범죄종류별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있음. 형법범은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기타 등이 있고, 특별법범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 특별법범 등이 있음.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3.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발생 건수

-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의 연간 발생건수는 주동자가 내국인인 경우를 의미함.
- 資料源 : (장래개발)

12-14. 주요범죄의 질적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 질적변화란 광역화, 흉폭화, 기동화, 집단화(조직범죄), 전문화, 지능화 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지표임.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5.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 10만명당)

- 算 式 : (주요범죄별 범죄자수/ 총 인구)×100,000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6.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7. 주요범죄 초범률

- 算 式 : $(\text{초범자수} / \text{주요범죄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18.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 資料源 : 법무부, 『법무연감』

12-19. 여성범죄자의 비율

- 算 式 : $(\text{여성범죄자수} / \text{총범죄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0. 컴퓨터 범죄자수

- 전자화폐, 신용카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한 범죄자수를 의미함.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2-21. 청소년 범죄율

- 算 式 : $(20\text{세 미만의 주요 범죄자수} / \text{주요 범죄자수}) \times 100$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2.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협박의 피해학생수(학생 1만명당)

- 학교주변이란 등하교시 통학 도로상을 의미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3.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청소년에 의한 비행 및 탈선행동에 대한 인지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임.

- 인지정도는 경험하였다, 보았다, 들었다 등으로 조사되고, 인지내용은 학내에서 학생간 폭행, 집단구타, 학내 시설물 파괴, 스승구타 등이고, 가정에서는 혈연폭행, 가구집기의 파괴, 가출 등이며, 사회에서는 흡연, 음주, 악물의 오·남용, 심야배회, 성적 탈선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24.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률과 피해자수(인구 10만인당)

- 주요범죄 발생률은 ‘당한적이 있다’에 응답한 비율임. 조사대상범죄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임.
- 算 式 : 발생률 = (피해자수 / 조사대상인구) × 100,0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5.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피해액

- 조사대상 범죄로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임.
- 算 式 : (주요범죄 피해자수 / 총 가구수) × 1,0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6. 주요범죄(피해)신고율

- 算 式 : { (조사된 주요범죄(피해)신고건수 / 조사된 주요범죄 발생건수)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7.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 미신고 이유로는 피해근소, 보복우려, 모신고해도 성과가 없어서, 귀찮아서, 명예손상, 자체해결, 기타 등임.
- 조사대상 범죄로는 강도, 절도(소매치기 포함), 폭행상해 등의 민생범죄 등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2-28.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 체포기간으로는 1일 이내, 2~4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미만, 1년 이상 등임.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29.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 算 式 : $\{ (\text{신고된 주요범죄 해결건수} / \text{조사된 주요범죄 발생건수}) \times 100$
- 資料源 : (장래개발)

12-30.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경찰관이란 경찰(전경, 의경 제외)과 해양경찰을 의미함.
- 算 式 : 연앙인구수 / 경찰관수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2-31.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 算 式 : $(\text{경찰청 지출액} / \text{GDP}) \times 100$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2-32.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 순찰차량이란 범죄신고 즉응체제에 활용되는 차량을 의미함.
- 算 式 : 순찰차량수 / 지·파출소수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2-33. 주요범죄 재범률

- 算 式 : 주요범죄자수 중 재범자수 / 주요범죄자수
- 資料源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34.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 資料源 : 법무부, 『법무연감』

12-35.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 算 式 : 수감자에 대한 경비 지출액 / 수감자수
- 資料源 : 법무부, 『법무연감』

12-36.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 철도(철도, 지하철, 고속전철), 항공, 자동차, 선박에 의한 사고의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지수임.
- 資料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37.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인구 10만인당, 자동차 1,000대당)

- 資料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38. 교통사고 야기도주 검거율

- 사망자수를 함께 표시함.

- 資料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39.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 고속(화)도로 상의 교통사고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율을 의미함.
- 算 式 : $(\text{사망자수} / \text{고속(화)도로 상의 교통사고발생건수}) \times 100$
- 資料源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2-40.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 발생원인으로 운전자 부주의, 도로구조의 잘못, 각종 신호체계의 불비, 교통혼잡, 기타 등의 범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41. 입체도로 시설수

- 도로연장 100km당 입체도로 시설수를 의미함.
- 資料源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2-42.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

- 算 式 : $(\text{사상자수} / \text{화재발생건수}) \times 100$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2-43.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

- 算 式 : $\text{총피해액} / \text{화재발생건수}$
- 資料源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2-44.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算 式 : $\text{주민수} / \text{소방관수}$

- 資料源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2-45.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 算 式 : 주민수/ 소방자동차수
- 資料源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2-4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및 피해액)

- 풍수해 또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와 피해액을 의미함.
- 資料源 : 내무부, 『재해연보』, 『화재통계연보』

12-47.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 算 式 : (화재보험 가입가구수/ 총 가구수)×1,000
- 資料源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12-48. 불의의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 불의의 대형사고란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일간지(사회면)에 톱기사로 취급한 사고를 기준함.
- 가스폭발, 교량붕괴, 건물붕괴, 군중에 의한 사고 등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고이다.
- 算 式 : 사상자수/ 불의의사고 건수
- 資料源 : (장래개발)

12-49.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사법기관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서 공정성은 매우 공정, 약간 공정, 그저 그렇다, 약간 불공정, 불공정 등의 척도로 조사되고, 사법기관으로는 법원, 검찰, 경찰 및 사법권이 부

여된 기관을 의미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2-50.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인당)

- 소송사건으로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소년, 기타의 사건 등이 있음.

- 資料源 : 법원행정처, 『행정통계』

12-51. 유죄선고율

- 算 式 : $(\text{유죄선고} / \text{기소범죄}) \times 100$

- 資料源 : 법원행정처, 『법무연감』

12-52. 형집행유예 비율

- 算 式 : $(\text{집행유예} / \text{선고건수}) \times 100$

- 資料源 : 법원행정처, 『법무연감』

12-53.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 資料源 : (장래개발)

12-54. 법률구조건수 지수

- 資料源 : 법구조공단자료

12-55. 인구 천명당 개업변호사수

- 資料源 : 변호사협회자료

13. 政府와 社會參與

13-1. 투표율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 모두를 반영해주는 유용한 지표임.
- 算 式 : $(\text{투표자수} / \text{총 유권자수}) \times 100$
- 資料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13-2. 정치에 대한 관심

- 국민의 정치·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표로서 의미있는 것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측정은 매우 많다, 많다, 다소, 약간, 없다는 5 범주로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3.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인물/ 정당/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 등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치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4.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지표로서 유용함.

- 算 式 : (여성국회의원수/ 총 국회의원수)×100
- 資料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13-5.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지표로서 유용함.
- 算 式 : (여성지방의회의원수/ 총 지방의회의원수)×100
- 資料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람』

13-6.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매우 공정함, 공정한 편임, 그저 그러함, 불공정한 편임, 매우 불공정함으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7.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통하여 측정하며, 국민의 주관적인 정치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신뢰할 만함, 어느정도 신뢰할만함, 그저 그러함, 신뢰할 수 없는 편임, 매우 신뢰할 수 없음의 5개의 항목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8. 통일에 대한 태도

-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는 지표임.

- 응답은 통일은 대단히 절실하며 조속히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분단상태유지가 더 좋다 등의 3가지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9.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 통일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살펴보는 지표임.
-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방식을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이 서로 인정하며 남한 주도로 통일, 남북한의 좋은 점을 따서 통일한다등의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10.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 우리사회에서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개인이 일생동안 노력을 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개방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1. 주관적 계층의식

-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 교육, 직업, 재산들을 고려했을 때 상상/상하/중상/중하/하상/하하의 6범주중 어떠한 범주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주관적인 계층귀속의식을 살펴봄.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2. 사회단체 참여율

- 사회단체에 가입한 비율을 살펴보는 지표로, 여기서 사회단체는 친목단체, 사교단체, 학술단체, 스포츠 단체를 포함함.
- 산 식 : $(\text{사회단체 참여자수}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13. 사회교육 참여율

-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로, 사회교육은 일반교양, 기술, 직업, 취미, 안보, 통일등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임.
- 算 式 : $(\text{사회교육참여인구}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14. 자원봉사 참여율

- 사회봉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임.
- 算 式 : $(\text{자원봉사자수(연인원)}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15. 후원금·기부금 제공자 비율

- 算 式 : $(\text{후원금·기부금을 1년에 한번 이상 제공한 사람수} / \text{15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3-16. 종교인구 비율

- 종교인구비율을 지역별, 교육수준별, 계층별, 연령계층별로 살

- 펴봄으로써 국민의 종교생활을 파악함.
- 종교인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며 수계, 세례, 영세 또는 입교등을 한 사람과 종교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믿음을 갖고 종교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종교의 분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로 함.
 - 算 式 : $(\text{종교인구} - 15\text{세 이상 조사인구}) \times 100$
 - 資料源 : 통계청,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3-17. 종교집회 참여도

- 종교집회참여도를 통하여 종교생활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8.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 정치민주화, 물가안정, 빈부격차, 농촌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치안문제, 부정부패, 윤리·도덕성, 환경공해등에 대한 국민의 견해와 제문제의 변화양상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시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19.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별 우선문제의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의 기초로 활용가능.
- 주택, 교통, 환경, 문화·교육, 보건, 방법 및 재해등의 문제중 우선 순위를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3-20.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 算 式 : $(\text{공무원수} / \text{총인구}) \times 1,000$
- 資料源 : 각부처별 행정자료

13-21. 공무원의 부처별 분포

- 算 式 : $(\text{각 부처별 공무원수} / \text{전체 공무원수}) \times 100$
- 資料源 : 각부처별 행정자료

13-22.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 算 式 : $(\text{서기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수} / \text{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수}) \times 100$
- 資料源 : 각 부처별 행정자료

13-23.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 각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응답은 매우 만족함, 만족하는 편임, 불만스러운 편임, 매우 불만임, 잘 모르겠음으로 조사함.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13-24. GDP 대비 기능별예산

- 국민들에게 기능별 정부예산분배상황을 알려주며, 또한 국가가 어떠한 기능에 상대적 우위성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복지』부문의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10-1)’에서도 일부가 제시되고 있음.
- 算 式 : (기능별 예산액 / GDP) × 100
- 資料源 :

13-25. 정부예산의 구성(기능별예산)

- 정부의 기능을 일반공공행정, 방위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오락, 문화 및 종교, 경제사업등으로 나누어 그 지출구조를 살펴봄.
- 算 式 : (기능별 예산액 / 총예산액) × 100
- 資料源 : 재정원 자료

13-26. 국민 1인당 기능별예산비

- 算 式 : 기능별 예산액 / 총인구
- 資料源 : 재정원 자료

13-2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 算 式 :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세입총액 } × 100
- 資料源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3-28.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 세금의 소득수준에 대해 적당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파악함.
- 응답은 매우 적게내고 있음, 적게내는 편임, 적당한 편임, 많이 내는 편임, 매우 많이내고 있음, 모르겠음으로 조사함.

- 『소득과 소비』부문의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태도(3-32)’에도 제시되어 있음.
- 資料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추가)

參考文獻

- 강동식, 1991,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3집 (인문·사회관학편), pp. 437-459.
- 강무섭 외,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 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4』, 경상남도, 1994.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제1회 사회지표 세미나』, 1978.
-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대장성 인쇄국, 1992.
- ,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대장성 인쇄국, 1995.
-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1995년 국가경쟁력보고서』, 1995.
-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 매일경제신문사, 1989.
- 김광웅, 『정보통신정책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92 통신학술연구과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
- 김명환, “지역복지지표의 설정과 그 정교”, 『한국행정학보』, 제 26권 제 2호, pp. 687-707.
- 김영섭, “사회개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지표,” 『환경논집』 2(1),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1975.
- 대한보건협회, 『보건·사회 통계개선 발전을 위한 WORKSHOP』 서울대한보건협회, 1989.
- 박보희, 정영순, 『어린이 관련 사회지표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한국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자료집, 서울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1992.
- 배무기, 『근로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87.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년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99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사회지표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1993.
- 송과구청, 『송과 사회지표』, 서울특별시 송과구청, 1994.
- 신도철, 『한국인의 삶의 질 대 연구-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호』, 1981.5. 26-47.
- 신도철, “공산권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4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3.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의 주관적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 신한종합연구소, 『한국경제의 국제화 정도에 관한 연구』
- 안두순, “사회지표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분석,” 산경총론, 『서울시립대학논총』, 1990.
- 양병이, “환경지표를 활용한 도시환경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 8권, pp. 54-8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체계 및 지표체계 연구: 최종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6.
- 유종해, “사회지표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 유종해 외, 『행정학 세미나』, 서울, 고시원, 1982.
- 윤종주, “한국사회의 사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II)』, 서울여자대학교, 1991. pp. 807-902.
- , “한국의 정신문화지표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II)』, 서울여자대학교, 1991. pp. 903-970.
- 윤종주, 송보경, 『소비생활지표의 체계개발을 위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 윤희미외, 『사회복지지표의 체계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이시백 (1990), “국민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추진전

- 략”,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2), 한국보건교육학회
- 이정식 (1982), 「사회 경제지표의 특성과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주학중, 김경동, 「국민 문화지표 설정을 위한 사회지표론적 모색」,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봄호
- 주학중, “인구성장과 개인복지의 관계,” 『인구성장과 개인복지』, 아세아정책연구원, 1979.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각년도)
- 통신개발연구원, 『국가 정보화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89.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1991』, 통일원, 1991.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3.
- 한국무역협회, 『동독의 사회·경제지표』, 한국무역협회, 1990.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체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정신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983.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지표』, 1986.
- Anand, S. and Harris, C. J., "Choosing a Welfare Indicator," Vol. 84., No. 2, pp. 226-237.
- Andrews, F. M.,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Objective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ing Systems", Juster, F. T. and Land, K. C. (Eds.) *Social Accounting Systems*, Academic Press, 1981, pp. 377-421.
- Anson, J., "Demographic Indices as Social Indicators," in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3, pp.433-446.

- Baster, Nancy, "Development indicators: an introduc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III(3), 1972.
- Bauer, R.A.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 Basu, "The Status of Women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oor,"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6, pp.249-267.
- Bebbington, A. and Bleddyn Davies, "Territorial Need Indicators: A New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9, 1980.
- Bideman, A.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S.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pp.63-77.
-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Bureau of Census, USA, 1984.
- Campbell, A. and Converse, P. 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 Campbell, Angus,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Co., 1981.
- Carley, M.,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Carlisle, 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ocial Indicator," in Shonfeld and Shaw, S(Eds.),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Policy*, London on Heimann Educational Books, 1972.
- Central Statistical Office, *Social Trends 23*, (1990 Ed.),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1990.
- De Neufville, J. I.,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Interactive Processes of Design and Application*, American Elsevier, 1975.
- Derman, William, *Social Impact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ning in the Third World*, Westview, 1985.
- Dre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Report No. 70.3, Geneva, 1970.*
- Erikson, R. and Aberg, R., *Welfare in Transition: A Survey of Living Conditions in Sweden, 1968-1981*,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Fanchette, S., "Social Indicators" in *Problem of Methodology and Selection in UNESCO Indicators: Problem of Definition of Selection*. Paris: UNESCO, 1974.
- Fox, C.,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Theory
- Gastil, Raymond, D.,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Nov/Dec.
- Grant, James P., *Disparity Reduction Rates in Social Indicators: A Proposals for Measuring and Targeting*,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78.
- Gross and Springer, "A New Orientation in American Government," Annals of AAPSS, Vol. 371, 1967, pp. 1-9.
- Hamberger, Polia Lerner, *Social Indicators: A Marketing Perspectiv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74.
- Inkels, A.,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4. 1993.
- Juster, Francis Thomas, *Social Accounting Systems: Essays on the State of the Art*, Academic Press, 1981.
- Kamray, Nake, E. and Alexander Christakis, "Social Indicators in Perspectiv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 Vol. 4.
- Kuz, T.Z., "Quality of Life, An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 Analysis," Regional Studies, Vol.12, 1978.
- Land, K., C., *Social Indicators Models*,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 _____,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Land, K.C. and Spilerman, S. (Eds.), *Model of Social Indicators*, Russell Sage, New York, 1975.
- _____, "Social Indicators",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1-26.

MacRae, D. Jr.,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le Hill, North Carolina, N.C. University Press, 1985.

McGranahan, D., Pizarro, E., and Richard, C., "Methodological Problems in Selection and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dicators," *Discussion Paper submitted to the Expert Group Meeting*, pp. 20-25.

Miles, I., *Social Indicators for Human Development*, Frances Pinter, 1985

Miringoff, M.L., "Monitoring the Social Well-being of the Nation," *Public Welfare*, Fall, 1990. pp.35-38.

Moore, W. E. and Sheldon, E. B.,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Moser, Claus (1973), *Social Indicators - systems,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2*

Moss, Milt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3.

Mushkin, Selma J., *National Assessment and Social Indicators*, USGPO 1973.

Naisbitt, J.,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Warner Books, 1982.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OECD, 1973.

———,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Papers Presented at a Seminar of The OECD*, Paris, OECD, 1974.

———,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1976.

———, *Urban Environmental Indicators*, Paris, 1978.

———,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 ,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A Compendium of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1986.
- Ostroot. N. M. and Syner, W. A. "Measuring Cultural Bias in A Cross-Nation Study," in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21, 1987, pp. 243-251.
- Nectoux, F. et al. (1980), *Social indicators for Individual Well-being or Social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0 (1).
- Research Committe Council of National Living (1975), *Social Indicators of Japan*, Ministry of Finance, Tokyo.
- Rise, S. A., "Social Accounting and Statistics for the Great Society", in PAR Vol.27, (June, 1967), pp. 169-174.
- Scott, W. , Argalias, H., and McGranahan, D.V., "The Measurement of Real Progress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the Literature and a Poilot Study," Report No.73.3 Geneva, 1973.
- Schneider, M., "The Quality of Life and Socil Indicators Resera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6, No.3, 1976.
- Srinivasan, T.N., "Human Development: A New Paradigm or Reinvention of the Wheel?," Vol.84, No.2, pp.238-243.
- Taylor, Charles Lewis, *Aggregate Data Analysis: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in Cross-n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1968.
- Terleckyj, Nestor E.,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 Estimates of Pos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75.
- Trinidad and Tobago (1975), *Social Indicators*,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rinidad and Tobago.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 UNESCO (1986),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Report for the Third Joint Meeting on Cultural Statistics*, Geneva.

United Nations (1978), Social Indicators: Preliminary Guidelines and Illustrative Serie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3,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1991), World Women,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1993),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1993, United Nations.

U.S. Bureau of the Census (1980), Social Indicators, 1980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U. N., ESCAP., Compendium of Social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ESCAP region.

UNESCO, Cultural Statistics and Cultural Development, CSR-C-27. 198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frican Development Indicators 1994-9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5.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oward a Social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97.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1976), The Measures of Poverty.

WHO, Statistical Indicators for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mes Geneva, 1971.

Wade, L. L. and Kim, B.S.,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Political Economy of Succes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8.

Walter-Busch, W.,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Switzerland," 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983, pp. 337-391.

Wolf S., The Measurement of Real Progress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the Literature and a Pilot Study, United Nations

-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No.73. 3, 1973.*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World Bank, 1989.
- , *Social Indicators of Development 1993*, World Bank, 1993.
- World Economic Forum and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 Wish, Naomi B., "Are We Really MEasuring th eQualiyt of Life?: Well-being Has Subjective Dimensions, as well as Objective On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5, No.1; 93-99.
- Yoon, Jong-Joo and Lim, Moun-Young, "Report of Household Survery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and Adapted Version of the UNESCO Survey Model," in UNESCO,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ree Case Studies, 1986*, pp. 49-89.
- Zapf, W., "German Social Report",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4, 1987, pp. 5-171.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에 參與하신 分〉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학중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자문위원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수곤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성규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달선 (한림대학교 부총장)

연구진

연구총괄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간 사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연구실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사은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문별 집필책임자

1) 인구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가족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 |
|--------------|--------------------------|
| 3) 소득과 소비 | 남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4) 노동 |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5) 교육 | 임두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4팀장) |
| 6) 보건 |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 7) 주거와 교통 |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8) 정보와 통신 | 권용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9) 환경 |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 10) 복지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복지연구실장) |
| 11) 문화와 여가 | 이홍재 (한국문화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12) 안전 | 한성덕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
| 13) 정부와 사회참여 | 이 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부문별 토론참여자

- | | |
|-----------|---|
| 1) 인구 |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현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
| 2) 가족 |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홍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3) 소득과 소비 |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양세정 (전 국민가계연구소 연구위원) |
| 4) 노동 | 윤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5) 교육 | 한성덕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 6) 보건 | 한달선 (한림대학교 부총장)
김동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 7) 주거와 교통 | 남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8) 정보와 통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홍정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9) 환경 김홍균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위원)
 김승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위원)
- 10) 복지 성규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계훈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통계실장)
- 11) 문화와 여가 한성덕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임두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4팀장)
- 12) 안전 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장)
 이홍재 (한국문화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3) 정부와 사회참여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장)

정 부

조휘갑 (통계청 통계조사국장)
 강계두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허 홍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박영진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김정익 (통계청 사회통계과)
 류중남 (통계청 사회통계과)
 유수덕 (통계청 사회통계과)
 김주혜 (통계청 사회통계과)

刊行物 案內

Ⅰ 研 究 報 告 書 Ⅰ

- 94-11 우리나라 家口構造의 變動과 市·道別 家口數 推計
A5新 / 158쪽 / 定價 4,000원 / 金柔敬·曹大熙 著
- 94-12 2010年の 醫師人力 需給 展望
A5新 / 84쪽 / 定價 2,000원 / 宋建鏞·崔晶秀·金東奎 外
- 94-13 未婚男性의 性行態에 關한 研究
A5新 / 224쪽 / 定價 5,000원 / 林鍾權·金惠蓮·張東鉉 外
- 94-14 21世紀에 對備한 韓國製藥産業의 發展方向과
保險藥價 管理制度 改善方案
A5新 / 296쪽 / 定價 7,000원 / 李儀卿·曹在國·金元重 外
- 94-15 障礙人福祉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357쪽 / 定價 8,000원 / 朴玉喜·權重燮 著
- 94-16 性比의 不均衡 變動推移와 對應方案
A5新 / 144쪽 / 定價 3,000원 / 趙南勳·徐文姬 著
- 94-17 老人生活 實態分析 및 政策課題
A5新 / 577쪽 / 定價 13,000원 / 李佳玉·徐美卿·高敬煥 外
- 94-18 開放化에 對備한 食品産業의 構造改善 및 發展方案
A5新 / 242쪽 / 定價 6,000원 / 金元重·李相暎·金惠蓮 外
- 94-19 最低生計費 計測調査 研究
A5新 / 297쪽 / 定價 7,000원 / 朴純一·金美坤 外

- 94-20 醫藥品 臨床試驗 管理基準 導入方案 研究
A5新 / 159쪽 / 定價 5,000원 / 李儀卿·張善美 外
- 94-21 韓國 家族保健事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125쪽 / 定價 3,000원 / 文顯相·張英植 外
- 94-22 母乳授乳實態 分析과 支援政策의 課題
A5新 / 115쪽 / 定價 3,000원 / 朴仁和·黃那美 著
- 94-23 國民健康診斷調查 設計에 關한 研究
A5新 / 145쪽 / 定價 3,000원 / 李順英·金善祐 著
- 94-24 少年/少女家長家族의 生活實態와 政策課題
A5新 / 186쪽 / 定價 4,000원 / 金應錫·李尙憲 著
- 94-25 1994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
A5新 / 328쪽 / 定價 7,000원 / 洪文植·李相暎·張英植 外
- 94-26 21世紀를 향한 保健醫療 政策課題
A5新 / 220쪽 / 定價 5,000원 / 金秀春·金銀珠 編著
- 94-27 精神保健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453쪽 / 定價 10,000원 / 南貞子·韓英子·崔晶秀 外
- 94-28 診療圈別 醫療資源의 適正配分과 政策課題
A5新 / 143쪽 / 定價 3,000원 / 金東奎·金銀珠 著
- 94-29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調査 研究
A5新 / 117쪽 / 定價 3,000원 / 林鍾權·張東鉉·趙洪湜 著
- 94-30 家族領域의 삶의 質과 政策課題
A5新 / 213쪽 / 定價 5,000원 / 張玄燮·金顯玉·裴花玉 著

- 94-31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 改善方案 研究
A5新 / 223帙 / 定價 5,000원 / 金基玉·魯仁喆·柳美女 著
- 94-32 韓國의 保健·社會福祉 政策研究
- 1994年度 研究結果 要約報告 -
A5新 / 261帙 / 定價 6,000원
- 94-33 健康增進示範保健所 運營을 위한 技術支援 研究
A5新 / 350帙 / 定價 7,000원 / 卞鐘和·李順英·鄭基惠 編著
- 95-01 赤十字會費 募金制度 改善方案
A5新 / 149帙 / 定價 4,000원 / 韓惠卿·魯仁喆·姜惠圭 著
- 95-02 化粧品 價格表示의 適正化 方案
A5新 / 134帙 / 定價 4,000원 / 曹在國·李相映·金銀珠 著
- 95-03 家族缺損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A5新 / 467帙 / 定價 11,000원 / 孔世權·曹愛姐·許美映 著
- 95-04 葬儀制度의 現況과 發展方向
A5新 / 187帙 / 定價 5,000원 / 李顯松·李必道 著
- 95-05 出產率豫測과 人口構造 安定을 위한 適正出產水準
A5新 / 217帙 / 定價 6,000원 / 文顯相·張英植·金柔敬 著
- 95-06 低所得層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A5新 / 472帙 / 定價 11,000원 / 魯仁喆·李成基 外
- 95-07 血漿分割製劑의 公共管理政策에 관한 研究
A5新 / 162帙 / 定價 5,000원 / 韓惠卿·鄭宇鎭 著
- 95-08 嬰兒死亡率 算出을 위한 調查方法 開發研究
A5新 / 180帙 / 定價 5,000원 / 韓英子·都世緣 外

95-09 公衆保健醫師 職務教育 改善方案

A5新 / 177帙 / 定價 5,000원 / 李大熙·李熙龍·鄭沆 著

95-10 醫藥品 再評價制度 改善方案

A5新 / 158帙 / 定價 5,000원 / 李儀卿·張善美 著

95-11 保育施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 開發

A5新 / 141帙 / 定價 4,000원 / 鄭基源·吳美暎·安賢愛 著

【政 策 報 告 書】

94-01 老人生活實態와 老人福祉의 政策課題

李佳玉 著

94-02 低出產時代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

洪文植 著

94-04 醫療서비스市場 對外開放에 따른 政策課題

魯仁喆 著

94-05 專門醫 人力需給 展望과 政策課題

宋建鏞 著

94-06 醫藥品 品質管理制度의 現況과 政策課題

李儀卿 著

94-07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高喆基·鄭敬培·李佳玉 外

94-08 癡呆老人의 扶養實態와 對應戰略

權重燉 著

94-09 社會福祉事業基金 運營改善을 위한 共同募金制度의
導入方案

鄭基源·韓惠卿·張玄燮 著

94-10 社會保障基本法の 政策構想

鄭敬培·李成基 著

- 94-11 地域保健情報體系 開發研究 金善祐·鄭永澈 著
- 94-12 農村福祉의 主要 政策課題 朴純一·金鎮順·李佳玉 著
- 94-13 公衆保健醫師 敎育 및 活動改善에 관한 研究
金鎮順·趙成晉·崔成旭 著
- 94-14 西獨의 分斷管理政策과 統一後 所得保障政策에
관한 研究 金振洙 著
- 95-01 國際社會保障協定 締結의 對應方向 金龍夏·崔秉浩 著
- 95-02 人口變動에 따른 勞動人力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鄭宇鎮 著
- 95-03 地方化時代의 保健福祉政策 方向
金元重·鄭基源·張英植 外
- 95-04 生活保護對象者의 永久賃貸아파트 現況과 政策課題
朴純一 著
- 95-05 高齡化 社會를 향한 老人福祉의 實踐課題
金秀春·林鍾權·徐美卿·吳京錫 著

研究報告書 95-13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研究(I)

1995年 12月 日 印刷

1995年 12月 日 發行

著 者 趙 南 勳 外

發行人 延 河 清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ISBN 89-8187-010-1 93310

ISBN 89-8187-012-8 93310 (전2권)